

#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5권 제4호 (통권 85호) / 2020. 12

#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4호 (통권 통권 85호), 2020년 12월호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이해와 활용 | 강진구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YouTube by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 Jingoo Kang
- 031 교회 아이덴티티(C.I) 디자인에 대한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소속 교회를 중심으로 | 최영옥  
A Study on Church Identity(C.I) Design: Focused on the Churches Belonging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Baekseok) | Young-Ok Choi
- 057 존 콜린스의 관점으로 본 디아코노스 예수-요한복음을 중심으로- | 유용옥  
Diakonos Jesus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N. Collins  
- Focused on the Gospel of John - | Yong-Ouk You
- 079 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 고찰  
-기독교 대학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 조경덕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hristian Personality Competency  
through Novel Education : Focused on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 Kyoung-Duk Cho
- 099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일터 신학의 관점에서- | 김동연  
A Study on the Spirituality Maturity by the Types of Workplace Church  
- From the Standpoint of Workplace Theology - | Dong-Yeon Kim
- 133 포스트 시대 교회의 역할  
-지넷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를 중심으로- | 김철수  
The Role of the Church in the Era of Postism  
-Centering o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 Cheol-Soo Kim
- 161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손끝세션교회'를 중심으로- | 고경희 / 백은령  
A Qualitative Case Study on Self-help Group for the Deaf-Blind:  
Focusing on the Case of 'Sonkkeutse' Missionary Society | Kounghhee Koh / Eun Ryoung Paik
- 211 경관해석의 성경적 틀 | 김농오 / 이웅규 / 이창훈  
Biblical Framework for Landscape Interpretation | NongOh Kim / WoongKyu Lee / ChangHun Lee





#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이해와 활용\*

##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YouTube by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강진구 (Jingoo Ka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present the strategies necessary to utilize YouTube in accordance with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First, Francis Schaeffer's "Apologetics" approach allows Christians in Korea to more actively intervene on YouTube and fulfill the mission of the church needed for this era.

Schaeffer said the purpose of "Apologetics" was defense and communication. Defense is an argumentative defense to protect Christian faith from non-Christian or anti-Christian messages. Communication means delivering Christianity in a form that any particular generation can understand.

Second, it presents specific examples of making good use of the technical features of YouTube and realizing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Damascus TV" is a Christian YouTube channel that draws attention from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in the YouTube world and carries out Christian Apologetics.

Third, it reveals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YouTube. And study the strategy Francis Schaeffer used to practice Christian Apologetics in L'Abri and apply it to YouTube. Francis Schaeffer is offering a strategy that Christians can use on YouTube.

From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we can make two suggestions that the Korean church needs. One is that the church needs a change in its perception of YouTube society, and the other is to establish a cultural strategy that suits the reality of YouTube. When the church uses YouTube as the site and tool of the ministry, it requires a different perception and attitude than in the past.

**Key words :** YouTube, Francis Schaeffer, Christian apologetics, Damascus TV, Christian worldview

\* 2020년 08월 12일 접수, 10월 05일 최종수정, 10월 1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19년 5월 1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교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moviejin1@naver.com

## I. 서론-유튜브는 미디어 혁명이다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가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인터넷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 2005년 유튜브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2020년 4월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명이 유튜브를 이용하며, 매분 500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 하루 조회 시간은 10억 시간 이상에 이른다(Social Media Today, 2020.04.19).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컨슈머포스트, 2020.07.09)의 경우 유튜브는 전 세대를 합쳐 가장 많이 이용한 동영상 앱으로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유튜브 앱을 1번 이상 이용한 사람의 수가 3, 366만 명에 이르렀고 1인당 평균 1, 540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베타경제, 2020.07.28).

세계를 향한 한국의 유튜브의 활용 또한 놀랍다.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통해 온 세상에 ‘싸이’란 한국 가수의 존재를 알린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방탄소년단이 제작한 2019년 앨범 ‘맵 오브 더 솔:페르소나’의 타이틀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삼시간에 세계적 인기를 끈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였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공개된 지 불과 37시간 37분 만에 조회 수 1억 뷰를 달성했다(서울신문, 2019.04.15). 방탄소년단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셈이다.

유튜브가 단지 엔터테인먼트 수준에서만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사이트가 제공했던 지식과 정보의 통로 역할도 아울러 하고 있다. KT그룹 산하의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가 발표한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에 따르면 대상자 중 60%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응답했고, 10대의 경우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검색이 70%에 달함으로써 오락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생각을 넘어 유튜브가 검색 영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나스미디어, 2019). 한마디로 유튜브에는 궁금한 모든 것의 답과 더불어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담겨 있는 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유튜브 열풍의 현상들은 기독교 신앙과 일상의 삶을 통합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를 남긴다.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려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유튜브에 대한 지식’이란 유튜브의 현황을 인식하는 단순한 정보취득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유튜브를 분석·판단하여 구체적인 참여와 행동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온전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유튜브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선행 논문은 나와 있지 않으며, 기독교 잡지에 교양 수준의 단편적인 글들만이 게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튜브의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순위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상위를 차지하는(서울경제, 2018.12.13) 현실에서 유튜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인 조망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을 가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유튜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서 보다 면밀하게 그 가치를 파악하고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유튜브에 대한 기독교 변증학적 연구를 시행한다.

첫째는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Christian Apologetics)’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무신론이 지배하는 현대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유튜브 안에서 문화선교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웨퍼의 변증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될 수 있다.

둘째는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유튜브의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례분석을 통해 유튜브의 기술적 특징을 잘 활용하는 동시에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유튜브의 활동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 대한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적 이해를 적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단지 현장 예배를 중계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소극적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소통시키는 복음전파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인식의 확장도 이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튜브의 미디어적 특성을 밝히고 아울러 프란시스 웨퍼가 라브리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연구하여 유튜브에 적용한다. 프란시스 웨퍼는 라브리 사역을 통해 기독교 변증학을 몸소 실천했는데, 뜻밖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웨퍼는 라브리를 찾아 온 다양한 평신도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일은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의 최종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보여준다. 웨퍼가 기독교 변증을 위해 활용한 전략들은 웨퍼의 저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디스 웨퍼와 웨퍼의 제자들이 남긴 자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 II.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의 특징

기독교 철학자이며 ‘라브리(L’Abri)’를 통해 복음주의 운동을 펼쳤던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는 현대사회에서 문화가 어떻게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지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쉐퍼의 문화관의 중요한 특징인 ‘변증학(Apologetics)’은 유튜브를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변증학’이란 일종의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을 뜻한다. 쉐퍼는 일평생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변증학’의 목적을 방어(defense)와 전달(communication)이라고 말하였다(Schaeffer, 1994: 179). 여기서 방어는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메시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논증적 방어를 말하며, 전달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진리를 소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그가 활동하던 시절의 상대주의적이며 반지성주의적인 문화 분위기로부터 성경이 진리이며 인간의 삶을 하나로 꿰뚫는 통일적 지식을 제공한다는 확신 가운데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쉐퍼는 현대사회에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거대 담론’이나 ‘전통적인 철학’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간파했고 그는 이를 ‘통일적 지식의 붕괴’라 불렀다(성인경, 1996:25-26). 인간의 실재에 대한 의미를 무너뜨린 실존주의의 성행과 성경적 정통성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현대신학, 그리고 뭔가 영적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버린 당시 사회상에서 쉐퍼가 발견한 것은 성경을 통한 진리의 통합이었다(박삼영, 1995: 52-57). 성경을 통합의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예술 등을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기독교 신앙은 비합리적이며 지성과 무관하다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신비주의적 체험을 기독교 신앙으로 대체시켰던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쉐퍼는 기독교 신앙은 지성과 연관이 있으며, 아울러 ‘체험적이며 지성적(experiencial & intellectual)’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성인경, 1996: 95-96). 기독교 신앙이 지성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쉐퍼가 비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기독교 변증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쉐퍼가 기독교 변증의 방법으로 지성에 바탕을 둔 합리성을 사용한 것은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오해를 사기도 했다. 논쟁의 핵심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접촉점에 대한 것이었다. 반틸은 먼저 신과 인간 간에는 접촉점이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접촉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내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비신자의 자율적 이성 자체에는 진리를 판단할 기준이 들어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성인경, 1996: 207-211).

이에 대해 이상원은 웨퍼가 철저한 복음증거자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웨퍼의 변증학에서의 이성을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불신자가 가지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신자와의 대화의 접착점으로 사용한 것임을 밝혔다.

웨퍼가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한 것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뿐, 불신자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진리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웨퍼가 말하고자 한 것은 불신자도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대와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학문적인 논의와 탐구를 시작하기 마련인데 - 그가 결과적으로 진리 또는 논리적 일관성에 이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전도자는 바로 그 점을 전략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원, 2003: 37).

웨퍼가 라브리를 찾아온 다양한 무신론자들과 비기독교인들을 환대하면서 변증학으로서 불신자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가졌던 지성 혹은 합리성이란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방어하는 가운데 전도를 위한 접착점이며, 동시에 신앙은 믿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이상원, 2003: 38).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는 웨퍼가 활동했을 때 보다 무신론자들로부터 공개적인 공격을 더욱 많이 받고 있다. 대학과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관점과 성경적 이해를 동원하는 일은 외면과 조롱거리가 되었고<sup>1)</sup>, 현대인들은 리처드 도킨스와 칼 세이건 그리고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기독교의 사상에 반(反)하는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 전도되었다. 유튜브를 통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세계관의 대결에서 웨퍼의 변증학으로서의 ‘방어’는 여전히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사역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웨퍼는 그의 다양한 저술과 강연 그리고 영화제작 활동이 의미하듯이 ‘방어’보다 ‘전달’에 관심이 많았다. 즉 그는 어떤 특정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독교를 전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웨퍼의 이 같은 변증학은 일종의 ‘문화 선교’ 로써 유튜브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기독교 진리를 문화를 통해 소통할 때 필요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덴설교 장면은 웨퍼가 자신의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성경적 예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현시대의 유튜브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선교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다.

1) 다큐멘터리 영화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2008)은 서구 사회에서 지적설계론을 인용한 학자나 연구원, 과학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추방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인간이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닌 지적인 존재에 의해 창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연구에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신랄한 비난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현대사회가 지성의 전당인 대학과 학문의 세계에서조차 결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아텐의 문화를 보며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지만(16절) 우상을 파괴하는 격한 행동을 벌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 양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교의 맥을 잡아갔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행17:22-23).”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 찬 아텐의 문화를 보며 그 안에 사는 아텐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을 발견했다. 그리고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아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의 다신(多神)문화는 일종의 기능적 개념으로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영역마다 신을 만들고는 그것에 의지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혹시라도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상을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신’을 거론하며 아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을 설교했다.

여기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복음전파 전략은 문화적 이해를 동반하며, 그 문화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접착점으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문화선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쉐퍼연구소장을 역임한 제람 바즈(Jerram Barrs)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에텐 설교를 문화를 접착점으로 하는 전도의 중요한 사례로 들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설교의 대상자들과 다리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먼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믿는 믿음에 가지는 문제점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갖고 있는 옳은 것, 잘하는 것, 접근이 가능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Barrs, 1995: 77).

유튜브는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현대인들의 성향이 파악되는 현장이다. 다시 말해서 쉐퍼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문화적 접착점으로 오늘날 유튜브만큼 좋은 것은 없다. 비록 유튜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텐의 광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현대인을 만나기 위해 가장 좋은 장소는 유튜브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대인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성장



한 새로운 세대에게 유튜브가 복음소통의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음소통의 도구로서 당대의 중심 문화를 활용한 예는 쉐퍼가 영화제작에 관여한 사실로부터도 확인될 수 있다. 쉐퍼는 1976년, 아들 프랭키 쉐퍼(Frank E. Schaeffer, Jr)와 함께 자신의 명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How Should We Then Live?)’를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 북아메리카 전역을 순회강연하며 이 영화를 함께 상영한 일이 있었다. 쉐퍼의 전기 작가인 콜린 듀리에즈에 따르면 청중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Duriez, 2009: 325).

현대의 세속적이며 상대주의적인 문화를 기독교의 역사적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결코 쉽지 않은 이 책을 영화화한 사실은 프란시스 쉐퍼의 변증법에 따른 전달의 역할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쉐퍼의 변증법에서 전달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예술이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의 수단임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예술은 모든 유형의 메시지에 사용될 수 있다’(Schaeffer, 2001: 47-48)고 언급하며 예술을 단지 비판적 수용의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도구의 역할에도 주목했었다. 아울러 그는 ‘예술로 표현된 것은 그 세계관을 더욱 강화시킨다’(Schaeffer, 2001: 37-38)고 보았다. 그 예로서 쉐퍼는 렘브란트가 그린 “푸주간에 매달린 쇠고기의 옆면”이란 그림을 제시했었다. 즉 그는 실제 현실에서 푸주간에 걸려있는 쇠고기를 볼 때와는 다르게 미술작품으로서 감상할 때는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며 이전처럼 피상적으로 볼 수 없음을 언급했던 것이다. 이는 예술이 매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일상의 것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시킬 수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영화라는 대중예술에 주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유튜브가 다양한 동영상상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게 만든다.

### III. ‘다마스쿠스 TV’<sup>2)</sup>에 나타난 유튜브의 기독교 변증 사례

‘다마스쿠스 TV’는 호기심과 선정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유튜브 세계에서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의 관심을 끌어내어 기독교 변증 전략을 펼치는 대표적인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의 진행자는 약학을 전공하고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다메섹’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20대 후반의 청년

2) ‘다마스쿠스 TV’는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선교단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는 유튜브 상에서 운영중인 두 채널 ‘다마스쿠스 TV’와 ‘On the Road to Damascus’를 포함하여 다마스쿠스 블로그(<https://blog.naver.com/osm4709>), 다마스쿠스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ontheroadtodamascus/>), 그리고 다마스쿠스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Ontheroadtodamascus1>) 등을 참고하였다.

기독교인이다. 채널에 등장한 진행자의 이미지는 어느 교회에서나 만날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가 젊은 기독교인이면서 세계의 문화중심지 뉴욕에 거주하는 유학생 출신이란 점은 다마스쿠스 TV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 본 교회 청년이라면 의례 가졌을 법한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목회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학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궁금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나 비신앙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의문을 제시하고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한 정직한 이해와 바른 성경 지식을 전달받도록 하는 점도 이 채널이 적지 않은 수의 고정적인 독자들을 갖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특히 진행자가 미국 유학생으로서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려진 다양한 기독교 명사의 기독교 변증 관련 영상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1월 ‘On the Road to Damascus’란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할 당시의 의도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William Lane Craig) 교수의 영상을 번역하여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크레이그 교수의 장점과 한계점을 함께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 팀 켈러(Tim Keller) 등으로 점차 변증학자들의 범위와 이들이 다루는 기독교 변증학의 주제를 넓히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17년부터는 번역 영상을 넘어서 다양한 주제를 펼치는 종합채널의 성격을 가지고 ‘다마스쿠스 TV’를 새롭게 개설하여 기독교 변증 사역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다.

‘이성적인 신앙과 변증’을 목표로 삼는 다마스쿠스 TV의 주요한 특징은 첫 방송에서부터 나타났다. 2017년 11월 27일 ‘만들어진 신’의 저자이자 무신론자들의 대표 격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옥스퍼드대 수학 교수인 존 레녹스(John C. Lennox)와의 토론을 한글자막을 넣어 라이브로 생중계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의 의문점들에 대한 논리적 답변들을 다룬 영상들이 이어졌다. 윌리엄 크레이그의 ‘크리스천이 왜 기독교 변증을 배워야만 하는가’와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와 팀 켈러 목사의 ‘C.S. 루이스를 말하다’와 같은 대담 영상들도 한글자막을 입혀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유튜브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Table 1. Key YouTube video content of 'Damascus TV'(2020. 08. 10)

게시 일자	제 목	조회수	상영시간
2015.10.07	「만들어진 신」에 대한 응답(feat.알리스터 맥그래스)	26, 443	02:32
2017.11.27	어느 철학자의 일침, 리처드 도킨스는 낙제 수준이다	3, 448	02:28
2018.02.10	기독교인으로서 백워드마스킹에 대해 폭로합니다	15, 642	40:38
2018.03.29	[무신론자와의 대화 3] “하나님은 왜 안 믿으면 지옥에 보냅니까?”	17, 478	34:31
2018.04.02	뉴욕 힐송교회의 충격적인 부활절 예배 근황 (직촬)	373, 443	02:36
2018.10.29	왜 세계관과 철학이 중요한가? (기독교인들 7분 안에 설득해드립니다)	8, 221	07:15
2018.11.27	토론:신은 존재하는가? 다마스쿠스 vs 천문학도 무신론자	15, 589	1:09:46
2019.04.07	국내 최고 권위자 모셨습니다. 기독교를 구한 인류학자, 르네지라르의 세 가지 기둥을 알아보자	8, 609	40:39
2019.06.09	최고의 교회 오빠와 함께하는 뉴욕 브이로그(를 가장한 진지토크 주의)	6, 448	21:13
2019.06.18	분당우리교회 동성애 설교 사태 총정리와 나의 생각	738, 236	15:34
2019.08.01	기독교 유튜브 VS 하버드, MIT생   1부: 신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까?	98, 138	50:47
2019.08.30	영화 기생충의 2가지 실패와 기독교적 돌파구	82, 186	22:45
2020.04.15	마음에 안들면 박제하는게 능사인가요?-무분별한 교회 비판에 대한 소신 발언	4, 555	10:25
2020.04.20	기독교는 패배자들의 자기위로에 불과할까	3, 582	03:49
2020.06.10	내가 노숙인들과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	2, 771	11:07
2020.07.15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feat. 존 레녹스)	5, 247	03:31
2020.07.30	옥스퍼드 수학자 존 레녹스에게 물었습니다 (feat. 베리타스 포럼)	5, 672	03:08

다마스쿠스 TV에 방송된 동영상 콘텐츠들을 보면 세상 속에 사는 기독교인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일들에 관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이해를 추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특징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마스쿠스 TV는 웨퍼의 기독교 변증의 특징인 ‘방어’와 ‘전달’에 모두 능하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콘텐츠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버드와 MIT 같은 미국 유수의 명문대학원생들과 신의 존재에 대해 솔직한 대답(2019.08.01.)을 나누면서 과학과 신앙 간의 주제를 다루는 면은 어떤 예배나 설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독교 변증의 강점을 보여주었다. 이성 중심의 생활에 익숙한 과학도를 통해서 비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이해가 동반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면은 기독교 변증의 측면이 유튜브에서 매우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둘째는 세상의 사회문화적 사건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적용을 매우 잘하고 있는 점이다. 다마스커스 TV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콘텐츠는 ‘분당우리교회 동성애 설교 사태 총정리와 나의 생각(2019.06.18.)’이다. 이 채널의 운영자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한다는 개인의 성경적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아울러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한국 기독교인의 행동에 대해서 갖는 교회 안의 또 다른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유튜버들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뉴욕에 살면서 매일 마주치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갖는 강한 거부감과 저항감이 실제로는 폭력에 가까움을 느끼면서 두려워했다는 증언은 서구사회의 동성애 문화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의 기독교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기독교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콘텐츠(2020.07.15.)와 이에 대한 최신 저술을 발표한 존 레녹스 교수와의 화상 인터뷰(2020.07.30.)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들을 유튜브로 끌어내어 현실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신앙적 필요를 채워줬다는 점에서 시의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젊은 유튜버들의 눈높이에 맞게 유튜브의 기능을 적절하게 살린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마스커스 TV는 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매우 다양한 포맷으로 연출되고 있다. 진행자의 준비된 얘기를 들려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유튜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를 다루고 중요 인사를 초청하거나 화상 인터뷰를 시도하며,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점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갖는 유튜브의 기능을 잘 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식 또한 현장녹화(2018.04.02.)에서부터 브이로그 형식의 토크쇼(2019.06.09.)와 같이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구현했다.

고무적인 것은 이 채널의 진행자가 청년이라는 사실이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젊은 감성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은 기존 교회가 제작한 설교나 부흥 집회 영상 콘텐츠들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 유튜버들과의 관심과 소통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유튜버의 형식과 감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역량을 갖춘 기독교 크리에이터의 등장이야말로 유튜버 시대에 기독교의 문화선교전략을 펼칠 책임자임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마스커스 TV가 기록한 조회 수는 역대 수입을 올리는 유명 크리에이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독자와 조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들은 진행자가 스스로 삭제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며 그 영상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튜버들은 앞으로도 계속 출

현한다는 점에서 유튜브를 통한 웨퍼의 기독교 변증 방식은 시간이 흘러도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랜선교회 TV’는 ‘다마스쿠스 TV’의 분립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다마스쿠스 TV의 제작진 중 일부는 ‘랜선교회’의 이름을 갖고 창조적인 분립을 이루었다. 즉 다른 채널을 만들어 독립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기독교 변증 형식의 채널이 꼭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능력을 통해서 기독교 변증을 다채롭게 이루어갈 수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Table 2. Key YouTube video content of ‘Lan Mission TV’(2020. 08. 05)

게시일자	제 목	조회수	상영시간
2020.06.27	‘메’로나와 인터넷 예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440	08:08
2020.07.11	구교vs신교: 이거 답 나올까요?	640	11:00
2020.07.25	치리: 교회에서 쫓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9	08:11
2020.07.31	예정론: 저는 선택되었나요, 유기되었나요?(갈뉘브X태혁주의 라방 하이라이트)	271	07:13

다마스쿠스 TV는 오직 운영자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능력에 의지해서 만드는 1인 미디어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마스쿠스 TV는 개성이 살아있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현실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교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랜선교회 TV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을 통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랜선교회 TV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눔과 교제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토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점에서 교회 공동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참고할 만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기독교 변증을 실행하는 공동체 라브리를 세운 프란시스 웨퍼가 살아있다면 유튜브를 활용했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sup>3</sup> 다마스쿠스 TV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웨퍼의 기독교 변증 사역

3) 한국 라브리 대표 간사인 성인경 목사는 본 논자와의 인터뷰(2020.09.11.)를 통해 만일 웨퍼 박사가 생존해 있었다면 유튜브를 통한 기독교 변증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쳤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왜냐하면 웨퍼 박사는 인생의 고민을 갖고 라브리를 찾아온 무신론자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보낸 사실로부터 신앙이나 세상의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는 기독교 변증가의 역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라브리를 찾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활용했고 나아가서 영화제작이 보여주듯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은 그가 유튜브를 접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국제 라브리는 별도의 공식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지 않으나 간사 개인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국제 라브리는 웨퍼 박사의 강연과 활동 그리고 라브리의 많은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을 생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쉐퍼의 과거 활약상을 되짚어볼 수 있다면 쉐퍼는 기독교 변증의 도구이자 활동공간으로 유튜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쉐퍼는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이 미디어를 통해 널리 전파되는 일에 큰 관심이 있었다.

이디스 쉐퍼(Edith Schaeffer)는 그의 남편인 프란시스 쉐퍼가 비트족이나 히피, 마약 중독자, 동성연애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나 인도인, 구세대와 신세대 등 인종과 국가, 연령을 초월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예술가에서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chaeffer, 2018: 351). 그리고 쉐퍼의 강연을 녹음하여 테이프를 복사하고 세계 곳곳에 공급함으로써 녹음테이프를 통한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Schaeffer, 2018: 344-345). 다양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아울러 그 당시 최첨단 미디어 문화를 이용했던 ‘테이프 사역’을 통해 기독교 변증을 실행한 프란시스 쉐퍼의 태도는 온 세상을 상대로 복음의 수호와 전파가 가능해진 유튜브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든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너무도 넓으며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유튜브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드는 광장과도 같은 곳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 같이 현실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어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전염병과 상관없이 만민에게 열려있으며 만민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는 유튜브 문화를 이해하는 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인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이루어지는 유튜브의 세계에 기독교 변증가들의 출현이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 IV.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활용 전략

프란시스 쉐퍼가 그의 기독교 변증학으로서 ‘전달’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유튜브는 미디어적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유튜브를 미디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다소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와 통신이 결합된 유튜브는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결합체’라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김영환, 2007: 16). 즉 유튜브에서 개인과 집단이 올리는 영상물들은 콘텐츠가 되지만 이 콘텐츠들은 유통망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

서 TV와 같은 조직화 된 생산자가 일방향으로 내용물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IT산업에서는 유튜브를 미디어로 간주하기 보다는 플랫폼(Platform)으로 이해하고 있다. 플랫폼이란 글이나 사진 혹은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수단을 말하는데 이 플랫폼이야말로 글로벌 IT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체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때 플랫폼은 사용자들을 연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Parker, 2017:49). 이것은 플랫폼이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미디어의 가치관과는 달리 사적이며 경제적 이익이 우선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이나 이베이, 위키피디아, 인스타그램은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플랫폼들이며 SNS와 1인 미디어의 특성을 결합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가운데 유튜브는 가장 혁신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이해하는 이유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정보 통신기술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람과 조직, 자원을 연결하는 쌍방향(interactive) 및 다중소통의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플랫폼이 보여주는 ‘일대 다(one to many)’ 간의 연결구조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매스 미디어의 특징을 간직함과 동시에 극히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편향적 수용과 전파가 가능한 1인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특징을 간직한 유튜브에서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활용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평신도 전문가들의 참여

유튜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사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문분야의 평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자나 이용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민족과 종교,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서는 뿐만 아니라 소수 엘리트만이 주도했던 미디어 권력을 개인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떠한 차별이나 사회적 장벽을 모두 걷어냈다. 특히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이나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인 콘텐츠를 통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보다 민주주의 사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종교 편향성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즉 유튜브는 공영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다. 거기다 교회라는 조직과 구조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평신도 개개인의 신앙과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콘텐츠화시켜 세상에 내보내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유튜브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되는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동역자 의식을 갖는 일이 필요하고 더불어 바른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만인제사장주의(Priesthood of All Believers)’가 가톨릭의 성직자 중심의 사역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성직자와 같은 신앙의 가치를 구현하도록 도전을 준 것처럼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에서 성직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동역자 의식을 갖고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성경에 부합되도록 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익히고 이를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직자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적 입장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성도들을 양육하여 유튜브 속으로 파송할 필요가 있다.

라브리에서 강의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쉐퍼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교회가 유튜브 활용 전략으로 평신도 전문가들의 참여가 의미 있음을 보여준다. 즉 라브리에서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체험한 라브리 멤버들과 간사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출판 영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책과 소책자들이 이미 출판되었으며, 간사들만이 아니라 젊고 창조적인 시인, 작가 그리고 예술가들도 20세기를 사는 세대에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브리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진리로서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브리에 있는 한 배우는 현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경 설계사, 조각가, 사진가, 교육자들도 여러 아이디어로 흥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성의 결과물이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는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Schaeffer, 2018: 346).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이 유튜브 안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마스쿠스 TV’에서 나타나듯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성직자들만의 권한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창조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튜브가 지닌 웹2.0의 특징들이라 할 수 있는 참여(participation)와 공유(sharing) 그리고 개방(openness)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일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의 기독교 변증은 웹의 내용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에서의 개방성과 공개 커뮤니케이션, 공유와 사용의 자유를 수용하는 방식으로서의 기술적 특징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권위의 분산과, 공동체, 투명성이라는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성직자 중심의 권위적이며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탈피하고 평신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윤영훈, 2010: 126-127).



## 2. 이중 언어의 사용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들은 현대문화 속에서 기독교 변증을 펼칠 때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이중 언어(bilingual)’를 제시하고 있다.<sup>4</sup>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언어 외에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언어를 통해 기독교 변증을 시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브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계적인 복음의 전도자로서 활동 중인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는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법, 즉 복음의 관점을 우리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earcey, 2006: 133-134).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의 소통에 실패하며 그에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앙의 언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웨퍼에게 있어서 이중 언어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현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변증학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무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 그리고 기독교 교사들이 그들 주변의 교양인들과 대중들에게 말하고자 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우리 세대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변증학의 적극적 측면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현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Schaeffer, 1994: 181).

웨퍼는 새롭게 세상에 등장한 영상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영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객관적 비평’을 시도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안경을 끼고 작품에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거나 메시지의 유무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작품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상, 시대 상황, 예술성, 기술성 등을 먼저 객관적으로 음미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성인경, 1996: 30-31). 여기서 객관성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언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라 유튜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란 무

4) 기독교 철학자이자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영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언어’ 능력을 갖기를 호소했다. 본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는 자신의 전공인 철학 분야의 언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했다. 그는 믿음의 언어를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예술과 학문 영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완전한 진리’가 보여주는 특징임을 밝혔다(Pearcey, 2006: 20-21).

옛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란 쉽지 않지만 유튜브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독교 변증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가 어떤 것인지 예를 들 수는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서 의사소통 스타일에 있어서 항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Lancaster·Stillman, 2010: 279-280)는 점에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법을 그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

임홍택(2019)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간단하거나’이며, 둘째는 ‘재미있거나’이고, 셋째는 ‘정직하거나’이다. 이 특징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의 특징인 동시에 그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때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기도 하다.

‘간단하거나’는 ‘길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문화상품권을 ‘문상’으로 줄여서 부르거나 ‘ㅇㄱㅇ(이거레알)’ 등의 자음 초성으로 만든 신조어들은 카톡과 같은 SNS와 게임 중 사용하는 채팅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문화가 일상화된 앱 네이티브들에게는 책을 읽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임홍택은 이를 90년대 생들의 뇌 구조가 더 이상 기존의 긴 소설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단언한다(임홍택, 2019: 91).

‘재미있거나’란 삶의 유희를 추구하고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질서나 권위에 대해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성향을 말한다. 흔히 웹툰에서 사용되었던 ‘병맛’이란 결말로 끝내는 만화는 이에 대한 적절한 예로 거론된다. ‘병맛’은 ‘맥락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는 것’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유머나 코미디와는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서 임홍택은 완전무결함만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증가 때문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임홍택, 2019: 98-99).

마지막으로 ‘정직하거나’는 90년생들에게 혈연, 지연, 학연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성세대의 문화를 일종의 적폐로 여기는 경향을 말한다(임홍택, 2019: 112). 성공의 원인이 순수한 노력과 열정이 아닌 숨겨진 비리로부터 기인한 것일 때 밀레니얼 세대는 분노한다.

임홍택이 제시한 밀레니얼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에 대한 완벽한 적용법이라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유튜브상에서 활동할 때 언어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짧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야 함과 동시에 권위를 내세우는 언어사용은 지양하며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흥미로운 소재를 끌어내어 정직한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어야 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사용자가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에



서 이중 언어의 사용은 결국 콘텐츠의 성격과 수용대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외에도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주 구독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믿음의 내용을 구독자가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중 언어 활용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 3. 인기주의와 상업주의의 극복과 기도

유튜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는 상업주의(commmercialism)와 인기주의(populism)에 영합하지 않는 일이다. 조회 수와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거나 돈벌이 수단에 집착하여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독교 변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지성 안에서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비신앙인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프란시스 웨퍼가 라브리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유튜브는 선정성과 상업주의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미디어가 갖는 부정적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는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따라 광고가 붙고 이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으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 유튜버들은 인기 있는 채널을 소유함으로써 많은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벌기 위해서 비윤리적이며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상업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2020년 한국의 인기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뒷광고’ 논란은 상업주의 물든 유튜버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뒷광고’란 특정 회사로부터 협찬 물품이나 광고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는 홍보를 말한다. 즉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하는 홍보임을 알리지 않은 채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SNS를 통해 제품을 노출시키거나 사용 소감을 전달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다. 이것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에게서 나타나는 기만행위지만, 유튜버가 다른 어떤 매체 보다도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인기 유튜버들의 경우 구독자들이나 다른 유튜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중앙일보 2020.08.31.).

또한 일부 그리스도인의 경우 유튜버들의 시선을 끌고 조회 수를 늘리는 방편으로 선정적인 기독교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도 한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다루는 영상들이 대표 격이다. ‘666 이야기’는 기본이고 ‘베리칩’과 ‘그림자 정부’ 등 음모론에 기대어 종말론이 바른 성경의 이해나 근거 없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지나치게 사적이고 주관적인 유튜브 방송 콘텐츠는 조회 수를 늘리는 일에 도움

이 될지 몰라도 성경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며 교회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게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1인 미디어의 특성상 크리에이터의 주관성은 유튜브의 강력한 특징이지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지 않는다면 성경을 왜곡하고 건강한 신앙을 훼손시킬 우려를 함께 안고 있다.

쉐퍼는 철저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라브리 공동체의 책임자였지만 라브리의 재정을 위해 광고를 하거나 어떠한 수익사업을 한 일이 없었다. 즉 라브리의 인기를 구하거나 물질적 풍요를 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뿐이었다. 쉐퍼가 지성을 사용한 기독교 변증 사역을 실천할 때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일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성공적인 사역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는 라브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몇 명의 사람만이 와서 열심히 질문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 커지거나 달라져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20세기에도 새롭고 독창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달라고 말했습니다(Schaeffer, 2018: 191-192).

쉐퍼는 라브리 형성 초기부터 라브리를 확장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특히 ‘기도의 날’을 정하여 라브리 멤버들 각자가 30분씩 원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스케줄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하루하루의 필요가 다 채워졌고, 세금을 내지 못한 적도 없었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를 돌려보내야 했던 적도 없었다(Schaeffer, 2018: 244-247).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유튜브 안에서도 여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확장과 영혼 구원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선정성과 상업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함으로써 유튜브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 변증의 최종적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만의 유튜브 활용 전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한국교회를 향한 제언

이 논문은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를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 전파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무신론이 득

세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유튜브에서 활용 가능한 기독교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성경의 ‘문화명령(Culture Mandate, 창1:28)’과 ‘선교명령(Mission Mandate, 마28:19-20)’에 바탕을 두고 충실히 이행되었으며, 그가 라브리 공동체 활동을 통해 경험된 결과란 점에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무신론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울러 당시 테이프와 출판 그리고 영화 등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은 유튜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튜브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를 볼 때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교회는 그동안 남이 만든 것을 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산자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드러본 경험은 선교나 교제, 교육 등 다른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코로나19가 앞으로 전개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튜브는 현실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교회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에 끼칠 큰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트렌드 분석가인 김용섭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올 종교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분명 종교가 오프라인 기반의 ‘공간’ 중심, ‘종교 지도자’ 중심에서 벗어나는 답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인기 유튜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방식으로 예배나 설교를 하는 일은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할 뿐 대세는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용섭, 2020: 256-257).

유튜브의 놀라운 기능을 경험한 한국 교회가 유튜브의 영향력을 간파하고 인기 유튜버들처럼 재미 중심의 사역을 펼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교회사역에 있어서 변화가 예고되어 있음을 김용섭은 분명히 밝혔다. 그 변화는 전통적인 한국교회 문화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예배당과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즉 탈예배당과 탈성직자의 경향 속에서 평신도 전문가들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사역의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수 있다.

비대면 문화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라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도 유튜브 사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대면 문화 때와는 다른 인식의 변화를 갖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유튜브의 현실에 맞는 문화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교회는 성경학습과 신앙훈련을 받은 평신도 전문가들에게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역할을 담당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튜브 안에서 문화선교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일은 상업주의에 따른 세속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도와 경건의 신앙생활이 밑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 김영환(2007), **미디어 삼국지-미디어 환경 변화를 읽는 하나의 시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Kim, Y. H., (2007). *Media Three Kingdoms-One View of Changing the Media Environment*.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김용섭(2020), **언컨택트**. 서울:퍼블리온.  
[Kim, Y. S.(2020). *Uncontact*. Seoul: Publion.]
- 성인경(1998).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 서울: 낮은울타리  
[Seong, I. K., (1998). *When discussing culture with Adam*. Seoul: Nadeunwooltari.]
- 성인경 엮음(1996). **프란시스 쉐퍼 읽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Seong, I. K., (Ed.)(1996). *Read Francis Schaefer*. Seoul:Yeyoung Communications.]
- 윤영훈 엮음(2010), **문화시대의 창의적 그리스도인**, 서울:두란노아카데미  
[Yoon, Y. H., (Ed.)(2010). *Creative Christians of the Cultural Age*. Seoul:Duranno Academy.]
- 이상원(2003).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 서울:살림출판사.  
[Lee, S. W., (2003). *Schaeffer's Christian Worldview and Ethics*. Seoul: Salleem Publishing House.]
- 임홍택(2019). **90년생이 온다**, 서울:웨일북.  
[Im, H. T., (2019). *The 90s are coming*. Seoul:Whalebook.]

### 2. 번역서

- 김진홍 역(2001). **예술과 성경**, Schaefer, Francis(1998), *Art & the Bible*. 서울:생명의 말씀사.  
[Kim, J.H.(2001). *Art & the Bible*. Seoul:IVP. Trans. Schaefer, Francis(1998), *Art & the Bible*. Downers Grove:IVP]
- 문석호 역(1994), **기독교 문화관**, Schaeffer A. Francis(1982),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olume One*.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Moon, S.H.(1994). : *Christian Vview of Culture*: Cristian Digest. Trans. *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olume One*, Westchester:Crossway]

- 박삼영 역(1995), **프란시스 쉐퍼의 생애와 사상**, Dennis, Lane T.(1986), *Francis A. Schaeffer: Portraits of the man and His Work*, 서울:한국로고스연구원
- [Park, S.Y.(1995). *Francis Schaeffer's Life and Work*: Korea Logos Research Institute. Trans. Dennis, Lane T.(1986), *Francis A. Schaeffer: Portraits of the man and His Work*. Westchester: Crossway Books]
- 양유신 역(2010).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Lancaster, Lynne C · Stillman, David(2010), *The M-FACTOR*. 서울:도서출판 더숲
- [Yang, Y.S., (2010). *Millennial Generation*. Seoul: The Souppub Press. Trans. Lancaster, Lynne C · Stillman, David(2010), *The M-FACTOR*. Old Saybrook: Tantor Media]
- 양혜원 역(2009). **쉐퍼의 편지**, *Schaeffer A. Francis(1985), Letter of Francis A. Schaeffer*. 서울:홍성사.
- [Yang, H.W.(2005). *Letter of Francis A. Schaeffer*: Hong Sung Sa. Trans. Schaeffer A. Francis, (1985), *Letter of Francis A. Schaeffer*, Wheaton: Crossway]
- 양혜원 역(2018). **이디스 쉐퍼의 라브리 이야기**, Schaeffer, Edith, *L'abri(1992), Edith Schaeffer's, L'abri Story*, 서울:홍성사
- [Yang, H.W.(2018), *Edith Schaeffer's, L'abri Story*: Hong Sung Sa. Trans. Schaeffer, Edith, (1992), *L'abri New Expanded Edition*, Wheaton: Crossway]
- 이현경 역(2017), **플랫폼 레볼루션**, Parker, Geoffrey(2016), *Platform Revolution*, 서울:부키.
- [Lee, H.K.(2017). *Platform Revolution*: Bookie. Trans. Parker, Geoffrey(2016), *Platform Revolution*. New York: Norton Paperback]
-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1995). **현대문화 속의 전도**, Barrs, Jerram(1991), *Learning Evangelism from Jesus*.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 [Korea Labri Translation Committee (1995). *Missionary Work in Modern Culture*. Seoul: Yeyoung Communications. Trans. Duriez, Colin(2008), *Francis Schaeffer: An Authentic Life*, Wheaton: Crossway]
- 홍병룡 역(2009). **프란시스 쉐퍼**, Duriez, Colin(2008), *Francis Schaeffer: An Authentic Life*. 서울:복 있는 사람.
- [Hong, B.R.(2009). : *Francis Schaeffer*: Bokitnunsaram. Trans. Duriez, Colin(2008), *Francis*

---

*Schaeffer: An Authentic Life*, Wheaton:Crossway]

홍병룡 역(2006). **완전한 진리**, Perccey, Nancy(2004, 2005), *Total Truth*, 서울:복 있는 사람.

[Hong, B.R.(2006). *Total Truth*. Seoul: Bokitnunsaram. Trans. Perccey, Nancy(2004, 2005), *Total Truth*, Wheaton:Crossway]

### 3. 인터넷 자료

나스미디어, “2019 인터넷 조사 NPR”, <https://www.nasmedia.co.kr/NPR/2019%EB%85%84>(검색일 2020.07.01.)

[“2019 Internet User Survey NPR”, NASMEDIA. Retrieved from <https://www.nasmedia.co.kr/NPR/2019%EB%85%84> (2020.07.01.)]

나스미디어, “2020 인터넷 조사 NPR“ <https://www.nasmedia.co.kr/NPR/2020>(검색일 2020.08.05.).

[“2020 Internet User Survey NPR”, NASMEDIA. Retrieved from <https://www.nasmedia.co.kr/NPR/2020/>.(2020.08.05.)]

베타경제 2020.07.28., “유튜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쓴 동영상앱 ‘1위’...1인당 평균 1, 540분 이용.” <http://www.betaec.net/article/1213415#csidx9347979ca51e4be99d8f5854aafcfa0>.(검색일 2020.07.31.)

[“Youtube, the most popular video app used by Koreans...Use an average of 1, 540 minutes per person.”, Beta Economics(2020.07.28.). Retrieved from <http://www.betaec.net/article/1213415#csidx9347979ca51e4be99d8f5854aafcfa0>. (2020.07.31.)]

서울경제 2018.12.13., “초등생 꿈 1위 ‘교사→운동선수’...유튜버, 첫 10위권 진입.”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7AKA1K> (검색일 2020.06.30.)

[“1st drea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teacher’→athlete’...Youtuber, First Top 10”, Seoul Economics(2018.12.13.).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7AKA1K> (2020. 06.30)]

서울신문 2019. 04.15., “또 BTS, 37시간 만에 1억뷰 앨범 300만장 예약”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01016&wlog\\_tag3=daum](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01016&wlog_tag3=daum)(검색일



2020. 08.05)

[“BTS also booked 3 million views in 37 hours”, Seoul Newspaper(2019.04.15.). Retrived from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01016&wlog\\_tag3=daum](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01016&wlog_tag3=daum) (2020.08.05.)]

중앙일보 2020.08.31., “내일부터 SNS ‘뒷광고’ 금지...과거 게시물도 고쳐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751>.(검색일 2020.09. 07.)

[“Starting tomorrow, social media ‘back advertisement’ is prohibited...need to fix past posts.” Jooangilbo(2020.08.31.).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751>. (2020.09 07.)]

컨슈머포스트 2020.07.09.,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1위에 올라” <http://www.consumer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46>(검색일 2020.07.18).

[“South Korea Ranked No. 1 in smartphone distribution”, Consumer Post(2020.07.09.). Retrieved from <http://www.consumer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46> (2020.07.18.)]

CSI BRIDGE 2020. 03.12., “코로나 19상황, 한국교회 온라인 예배 현황 설문조사 결과” <https://csibridge.org/82>(검색일 2020. 08. 15)

[“Corona19 Situation, Survey of Korean Church’s Online Worship Status”, CSI BRIDGE (2020. 03.12). Retrived from <https://csibridge.org/82>(2020.08.15.)]

“Top YouTube Statistics That Matter In 2020”, Social Media Today(2020.04.19.). Retrieved from <https://www.socialmediatoday.com/news/top-youtube-statistics-that-matter-in-2020-infographic/576242/>(2020.07.30.)



#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른 유튜브의 이해와 활용\*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YouTube by  
Francis Schaeffer's Christian Apologetics

강진구(고신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에 따라 유튜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프란시스 쉐퍼의 ‘변증학(Apologetics)’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쉐퍼는 ‘변증학’의 목적을 방어(defense)와 전달(communication)이라고 말하였다. 방어는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메시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논증적 방어이다. 전달은 어떤 특정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유튜브의 기술적 특징을 잘 활용하고 프란시스 쉐퍼의 ‘기독교 변증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다마스쿠스 TV’는 유튜브 세계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의 관심을 모으며 기독교 변증 전략을 펼치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이다.

셋째는 유튜브의 미디어적 특성을 밝히고 아울러 프란시스 쉐퍼가 라브리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실천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연구하여 유튜브에 적용한다. 프란시스 쉐퍼는 라브리 사역을 통해 기독교 변증학을 몸소 실천했는데 뜻밖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를 제언할 수 있다. 하나는 유튜브 사회를 바라보는 교회의 변화된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유튜브의 현실에 맞는 문화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것은 교회가 유튜브를 사역의 현장이며 도구로 삼았을 때 과거와는 다른 인식과 자세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주제어 : 유튜브,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변증학, 다마스쿠스 TV, 기독교 세계관



## 교회 아이덴티티(C.I) 디자인에 대한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소속 교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urch Identity(C.I) Design: Focused on the Churches  
Belonging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Baekseok)**

최영옥 (Young-Ok Choi)\*\*

### ABSTRACT

C.I design refers to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a company's identity. C.I design has become a global spotlight as the information age continues. The church also needs to introduce or renew its C.I design in line with this tren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I design and its introduction into the church, and to provide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church's C.I design through the survey. To this end, chapters 1 and 2 explained the background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research, and chapters 3 and 4 conducted the research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based on the C.I design of the church belonging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Baekseok). A survey was conducted on college students who took a C.I design clas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C.I design by domestic churches was strong, the unity of C.I design by denomination and church was emphasized, and the similarity of symbol marks was important for this. Also, for the improvement of church C.I design, a design study is needed on symbols that can express Christianity. Through designers with opinions and expertise,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C.I design that can effectively represent the identity of the church.

**Key words :** Church Identity(C.I) Design, research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Baekseok)

\* 2020년 11월 10일 접수, 11월 28일 최종수정, 11월 30일 게재확정

\*\* 백석문화대학교(Baekseok Culture University) 디자인학부 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1 백석문화대학교 창조관 1002호, ok747@bscu.ac.kr.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Identity 디자인을 점검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함이다. 국내의 교회 C.I(Church Identity) 디자인은 실제 디자인학에서 다루는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일반적으로 Corporate Identity 디자인이란 기업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C.I 디자인에서 Corporate는 기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단체, 조직 등을 총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실제로 정부의 경우 Government Identity 디자인, 도시의 경우 City Identity 디자인, 대학의 경우 University Identity 디자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체, 조직 전체를 뜻하는 광의의 C.I 디자인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C.I 디자인은 Church Identity 디자인과 광의의 Corporate Identity 디자인을 동시에 의미한다.

실제 기업이나 실무에서 다루지는 C.I 디자인은 단순한 로고의 제작이 아닌 기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일을 말한다. 특히 C.I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단체의 정체성과 미션, 비전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디자인은 단순한 제품 제작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실제 교회의 C.I 디자인을 보면 각각의 교회가 가진 성격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단순히 기독교 전체에서 활용되는 상징들을 조합하여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띠도록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국내 교회의 C.I 디자인에서 아쉬운 점은 대다수의 디자인이 교회의 간판을 제작할 때에 교회 이름을 활자로 적고 그 앞부분에 십자가를 합치는 형태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교회 C.I 디자인은 일관성과 구별성이 부족하여 신도들에게 혼동을 주기도 한다.

C.I 디자인이 여타의 다른 디자인과 다른 점은 그 대상이 조직 전체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C.I 디자인을 로고 디자인 혹은 Brand Identity 디자인과 혼동하여 사용하지만, 로고 디자인 혹은 B.I 디자인보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조직 전체의 정체성을 디자인하는 일을 C.I 디자인이라 칭한다. 때문에 C.I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업의 미션, 핵심가치 등을 일관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점과 그 조직의 하위조직 등이 같은 C.I 컨셉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실제 산업에서도 모(母)기업의 정체성을 이에 속한 자(子)기업이 공유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C, I 디자인 또한 같은 컨셉을 갖추거나 혹은 해당 사업에 맞추어 변형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 동질성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C.I 디자인의 개념을 교회조직에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기업 C.I 디자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회는 기독교라는 공통된 종교 아래 여러 교단과 총회, 지부 등으로 그 가치가 여러 방면으로 퍼져있다. 같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과 각각의 성격이 각

각 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이비종교 등 이단 단체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도용 및 사용하는 경우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C.I 디자인을 통한 정체성의 시각적 표현은 실리적인 이득도 분명할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성경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각 교회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는 C.I 디자인은 교회의 발전과 선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국내 교회의 디자인은 대부분 위와 같은 C.I 디자인 개념이 아닌 각 교회 자체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C.I 디자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교회 C.I 디자인에 따라 디자인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일반 교인들이 모여서 제작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무엇보다 교회와 교단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낮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디자인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교단의 C.I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소속 교회의 로고 디자인이 진행되었을 경우, 교단의 C.I와 교회의 로고가 서로 어울리지 않아 실제 활용에서도 그 효용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천안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각 교회의 C.I 디자인을 점검하고, 소속인 백석총회의 C.I 디자인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C.I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진행하여 교회의 C.I 디자인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 백석총회의 C.I 디자인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백석총회의 C.I 디자인이 여타 기독교 교단의 디자인과는 달리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백석총회의 C.I 디자인은 일반적인 십자가 기반의 디자인이 아닌 원과 삼각형(삼위일체)을 활용한 디자인이다. 더불어 성경을 활용하여 기독교의 정체성을 1차원적으로도 전달하고 있으며, 색상과 형태 또한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었다. 마지막으로 백석총회의 C.I 디자인은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석총회 소속의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C.I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하여 더 전문적인 개선 방향을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목적

### 1. Corporate Identity 디자인의 개괄

‘Corporate Identity’라는 단어는 경영학에서 창안된 용어로, 기업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인 ‘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일환으로 C.I 디자인의 개념이 성립되었다. 일반적으로 C.I.P는 기업의 내부에서 스스로 추구하는 기업의 자아와 기업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평가를 일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정철중(2010), ‘감성적 C.I디자인 개발과정을 위한 이미지텔링의 활용-심벌 디자인을 중심으로’에서 C.I.P는 기업의 Self identity(조직 내부에서 평가하는 정체성)와 Ego identity(조직 외부에서 평가하는 정체성)를 동일화하는 작업이라 하였다.

C.I 디자인의 시초로 기업의 로고 혹은 심벌을 활용한 사례는 19세기 독일 알게마이네사(현 AEG)에서 페터 베렌스(Behrens, Peter)가 디자인한 심벌을 거론된다. 현대디자인사(1990)에서 와 끼미야 노부하루는 독일 제품에 대한 나쁜 인식을 바꾸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알게마이네사는 페터 베렌스를 고용하여 기하학적 문양을 만들어 대량생산 제품에도 각인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Figure 1. AEG's Logo in 19's centry, Retrieved from <https://logoorange.com/>(2020.10.30.)

이와 같은 C.I.P 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경영전략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1956년 발표된 IBM의 C.I.P 작업이 그 중요성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알린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IBM은 당시 기존의 기업명이던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을 ‘IBM’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단순한 로고를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C.I 디자인의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 되었으며, 그 이후 기업의 로고와 제품의 상징을 C.I 디자인을 통해 개편한 사례들이 일상화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전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로고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등을 변경하는 C.I 디자인의 유행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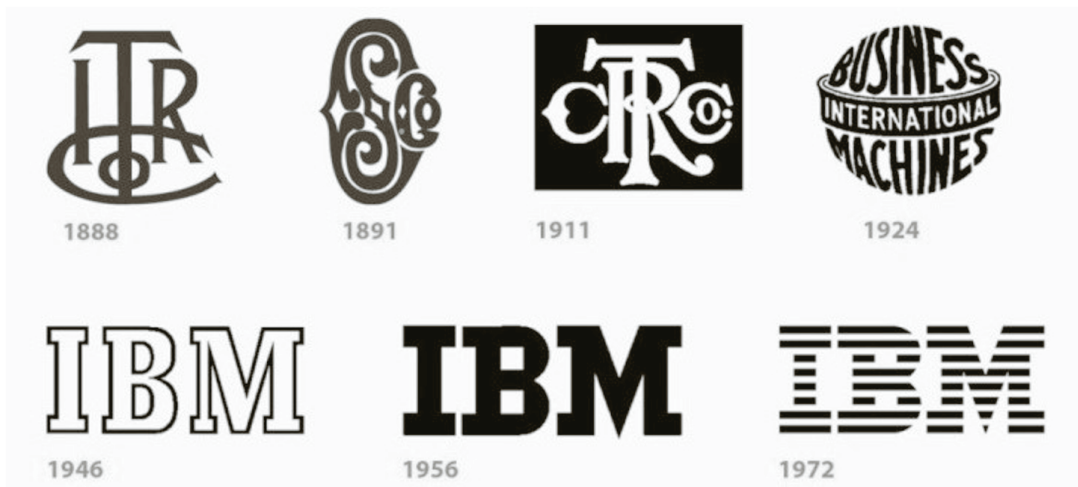


Figure 2. IBM Logo's process of change, Retrieved from <https://logoorange.com/>(2020.10.30.)

변경 등의 작업은 이전 7~80년대 기업명을 단순히 활자로 적었던 디자인에 약간의 심벌을 가미했을 뿐, 기업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활동은 부족했다.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선진 경영기술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기업 이미지에 민감해진 2000년대 후반부터 진정한 의미의 C.I 디자인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특징이다.



Figure 3. Change of 21's Korean Companies's Logos,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cncad6001/10079644636>(2020.10.30.)



C.I 디자인은 C.I.P 작업에서 디자인적인 분야, 특히 시각적인 분야를 뜻한다. 즉, 기업이나 단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맞는 디자인을 진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C.I 디자인이라 하면 대부분 기업 로고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C.I 디자인은 단순히 로고를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을 만들어 내는 디자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기업의 로고 혹은 심벌이며, 이 외에도 조직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이 모두 C.I 디자인의 분야인 것이다.

C.I 디자인의 가장 큰 목표는 집단의 미션을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싶은 이상적인 기업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같은 목표 의식과 가치관을 공유하여 사기를 북돋우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당 시장에서 선호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이미지 구축 및 자긍심 또한 부여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C.I 디자인을 리뉴얼하게 된다. 먼저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기업 혹은 브랜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소비자에 심어주기 위해 C.I 디자인을 진행한다. 또한, 위 같은 경우 기업의 미션과 비전이 긍정적 이미지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래의 C.I 디자인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자연스럽게 C.I 디자인을 교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C.I 디자인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기고, 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와 같이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진출 혹은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 혹은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C.I를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새로운 브랜드의 출시, 기업합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업의 정체성과 방향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C.I 디자인을 통해 이를 외부에 알리고, 내부의 결속을 다진다.

## 2. Corporate Identity의 개념적 3요소

C.I 디자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해당 기업의 C.I, 즉 단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육선(2014: 116)에 따르면 기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디자인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한다.

먼저 해당 기업의 경영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션과 비전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를 ‘Mind Identity(이념적 정체성)’라 하며, 기업의 경영철학을 확립하여 공유가치를 명확히 하는 단계이다. 그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경영학적 가치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주로 디자이너의



분야가 아닌 직접 기업을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경영진이 가지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Behavior Identity(행위적 정체성)’로 기업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행동규범과 공동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정체성이다. 이는 M.I 확립 단계에서 주어진 새로운 경영철학에 기반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행동규범과 공동의 가치관을 경영철학에 반영할 수도 있다. C.I.P 작업을 통해 아무리 그럴싸한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구성원들이 행동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C.I의 정립에서 B.I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B.I의 실질적 결정자는 그 단체에 속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Visual Identity(시각적 정체성)’이다. 이는 C.I 디자인에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이 개입하는 단계로, 위의 정체성들을 바탕으로 실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C.I를 시각화하는 것 외에도 해당 C.I가 제품이나 홍보물 등으로 실제 활용될 때 어떤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그 기업의 C.I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시각적 통일성은 이루었는지를 계속하여 고민하여 디자인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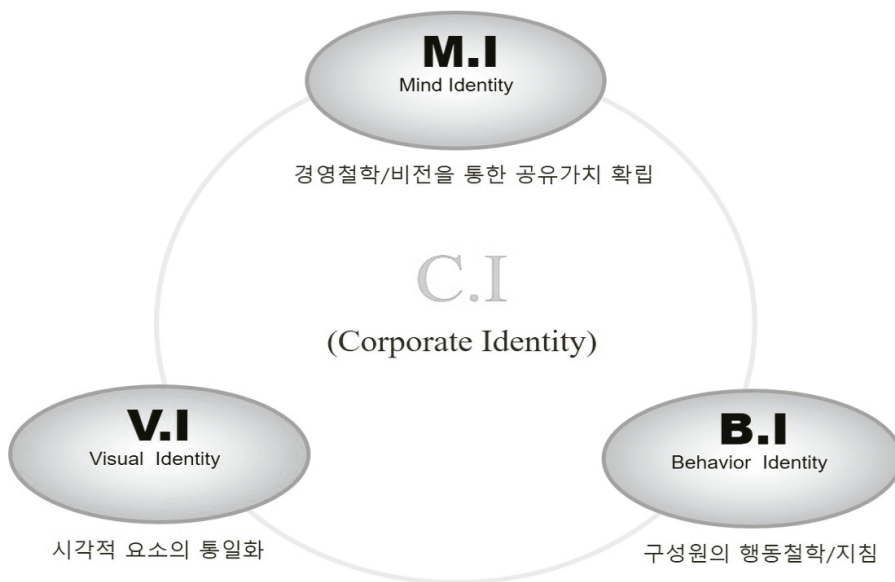


Figure 4. 3 Element of Corporate Identity

위처럼 C.I 디자인은 ‘M.I’, ‘B.I’, ‘V.I’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진행된다. 이때 각각의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 어떤 한 요소가 선행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때문에 C.I를 확립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은 단순히 디자이너가 기업의 요청을 받아 목적에 맞는 제품을 내놓는 것

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완성된 C.I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 3. C.I 디자인의 구성요소

C.I.P 작업이 일상화되면서 C.I 디자인은 기본분야와 이를 활용한 응용 분야로 구분하여 그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C.I 디자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명칭

기업명칭은 디자인적 구성요소라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명칭이 없다면 애초에 C.I 디자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아래의 심벌 마크 등과 함께 로고타이프의 구성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몇몇 기업에서는 해당 기업을 기재할 때에 명확한 서체를 지정해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2) 심벌마크(Symbol Mark)

심벌의 사전적 정의는 ‘상징’이다. 하지만 디자인학에서 그 의미는 조금 더 구체화하여 ‘시각적 상징’을 의미한다. 심벌마크는 C.I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어떠한 시각적 구성물을 보았을 때 어떤 대상이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위의 기업명칭이나 로고타이프가 활자를 통해 대상을 지정한다면, 심벌마크는 회화적, 도형적인 표현으로 대상을 표현한다. 기업 중에는 애플의 사과로고가 있으며, 디자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심벌마크는 기독교의 십자가와 각국의 국기를 들 수 있다.



Figure 5. Examples of Symbol Marks,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haede8/221029274186>(2020.10.30.)

#### (3) 로고타이프(Logotype)

로고타이프란 활자와 심벌마크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명칭을 활용하여 활자를 새롭게 디자인한 경우를 뜻한다. 즉, 글자가 활자의 판독성을 유지한 채로 심벌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성적으로 디자인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로고타이프의 사례로는 코카콜라와 IBM의 C.I 디자인을 들 수 있다.



Figure 6. Examples of Logotypes,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haede8/221029274186>(2020.10.30.)

#### (4) 심벌컬러(Symbol Color)

심벌컬러는 C.I 디자인에서 색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밝은 초록색을 보면 네이버를 떠올릴 수 있고, 노란색을 떠올리면 카카오를 떠올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심벌컬러는 주로 메인컬러와 서브컬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 노란색을 주색으로 갈색을 부색으로 활용하는 예를 들 수 있다.

#### (5) C.I 디자인의 응용요소

C.I 디자인의 응용요소는 위의 기본요소들을 활용하여 제품에 적용하거나 기업명칭과 심벌마크 혹은 로고타이프를 함께 배치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로고와 기업명칭을 상하로 배치하거나 좌우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합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홍보용품, 서식 등에 활용하는 것을 C.I 디자인의 응용요소라 한다.

### 4. 국내 교회의 C.I 디자인

전은호(1999:16)는 ‘교회 시각 이미지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교회의 심벌과 로고타이프 디자인이 “기업이 창업과 동시에 심벌마크를 초보적인 수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듯 교회도 처음 교회를 창립할 때 담임 목회자가 직접 도안을 제작해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그저 그 상징을 관례적인 표시일 뿐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의 많은 교회가 아직 C.I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조무광(1990:371)은 ‘교회 C.I, 교회 심벌마크 분석연구를 중심으로’에서 “국내 교회의 로고는 대부분 십자가 디자인에 한정되어 있다”며 “교회 로고의 심벌마크 형성과 C.I 디자인을 통해 종파의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의 기독교 침투가 계속되는 형국에서 심벌마크를 만들어 종파를 특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였을 때, 국내 교회로고의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디자인 수준이 초보적 수준에 머문 교회가 아직 다수라는 점이다. 21세기에 들어 시각 이미지

를 통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교회가 C.I 디자인을 도입하여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가 오래전 제작한 초보적 수준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십자가 옆에 교회 이름을 적어 넣은 로고를 활용하는 곳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젊은 층에 대한 교회의 확장성이나 교회에 대한 접근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Figure 7. Examples of Old Style Logos of Korean Churches

두 번째로 십자가 일변도의 디자인 컨셉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수의 교회가 십자가 옆에 교회 이름을 배치하는 방식의 로고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각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십자가를 메인으로 C.I 디자인을 진행한 경우가 많다. 십자가의 상징성이 높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디자인학적으로 접근했을 때에 기독교의 더욱 다양한 심벌을 활용하면 더욱 개성 있는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Figure 8. Examples of Cross Style Logos of Korean Churches

세 번째로는 각 교단과의 통일성 부재이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단과 사이비종교의 침투가 계속되는 기독교의 현실에서 소속 교단을 전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부분 교회가 교회의 로고 옆에 소속 교단을 작게 써넣는 방식으로 소속 교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각 이미지를 통한 정보전달에서는 소속 교단을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교회 이름만 배치하는 로고 디자인들에서도 그 서체가 각기 다른 등,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로고 디자인 혹은 C.I 디자인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한국 기독교가 대중화된 1980년대 이후로 이제 40년이 지났고, 기독교의 개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근래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인 방향성과 기준을 세워서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C.I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그 정체성에 관한 진지한 탐구와 디자인 방향의 확립이 필요하다.

### III. 연구설계 및 설문 설계

#### 1. 설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C.I 디자인 및 로고 디자인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 교회 C.I 디자인 및 로고 디자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교회 C.I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C.I 디자인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하지 어렵다. 일반적으로 C.I 디자인의 개념을 로고나 심벌 등과 혼재하여 사용하고, 또 그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정체성의 표현 등 C.I 디자인이 가지는 특징을 인지하기에는 일반상식으로는 무리가 있다.

더불어 많은 교회의 당면과제 중 하나가 젊고 새로운 세대들의 유입이다. 그래서 설문 대상은 C.I 디자인 수업을 수강한 학생에 한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교회를 설문주제로 하여 조사할 수 없으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에 소속된 교회를 바탕으로 설문을 조직하였다. 총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는 “1912년 평양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가 조직된 후, 1959년 합동과 통합으로 교단이 분열되고 다시 합동이 세칭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이 사분오열하는 와중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통성을 사수하려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단 형식의 초석이 놓여졌다.”는 소개와 같이 설립되었고, 교단 산하 122개 노회와 6, 715개(2019년 9월 기준) 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목회자 수는 강도사, 전도사를 포함하여 11, 070명에 이른다. 백석대학교와 안양대학교, 백석문화대학과 백석예술대학, 백석신학교, 기독교 연합신문사가 소속되어 있는 정통 있는 교단이다. 더불어 교단의 C.I 디자인이 체계적이고 그 정체성 또한 명확하므로 설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C.I 디자인은 선행연구에서 한국 교회 디자인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십자가 일변도의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원과 삼각형, 성경을 활용한 디자인이라는 점이 가장 독창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의 심벌 해설에 따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민족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십자가 등 획일화된 C.I 디자인을 탈피했음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의 가치관과 미션, 비전이 잘 표현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C.I 디자인과 교단의 C.I 디자인의 통일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점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에 소속된 교회를 바탕으로 설문을 조직했다.

또한, 지역을 천안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소속 교회로 한정하여 그 중 20여 개 C.I 디자인과 로고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해당 교회의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그 C.I 디

## 심볼\_Symb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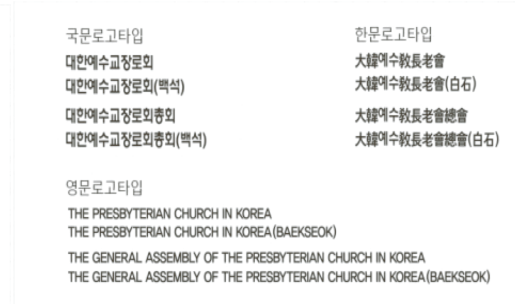
		<p>C : 100 M : 70 Y : 10 K : 0</p>
<p><b>심벌해설</b>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민족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교한다.</p>	<p>성 경 : 하나님의 말씀 白 石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승리 세 모 : 성부, 성자, 성령 안 쪽 원 : 한국 -&gt; 민족복음화 바깥 쪽 원 : 세계 -&gt; 세계선교다.</p>	



## 시그니처 A\_Signature A



## 로고\_Logo



## 시그니처 B\_Signature B



## 심볼응용\_Symbol application



Figure 9. C.I Desig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Baekseok), Retrieved from [https://www.pgak.net/www.contents.asp?id=sub01\\_03\\_new2\(2020.10.30\)](https://www.pgak.net/www.contents.asp?id=sub01_03_new2(2020.10.30))

인과 로고를 얻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방문하여 C.I 디자인 혹은 로고를 촬영하여 활용하였다. 설문 참여 인원은 총 60명이며, 설문 방법은 구글 스프레드를 통한 온라인 설문방식이고 기타 분석은 엑셀을 활용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0년 10월 25일~2020년 10월 30일까지이다.

## 2. 설문의 구성

설문의 구성은 크게 인적사항과 본 설문으로 구분하였다. 본 설문은 크게 교회의 C.I 디자인에 대한 필요 여부와 교단 C.I 디자인과의 통일성에 관한 설문, 그리고 교회 C.I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교회의 C.I 디자인 니즈에 관한 설문 문항

1. 1. 교회에는 C.I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매우 필요하다.
- ☐ 필요하다.
- ☐ 보통이다.
- ☐ 필요하지 않다.
- ☐ 매우 필요하지 않다.

2. 2. 하기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산하 교회들의 C.I 디자인을 보았을 때 개선 및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매우 필요하다.
- ☐ 필요하다.
- ☐ 보통이다.
- ☐ 필요하지 않다.
- ☐ 매우 필요하지 않다.

Figure 10. Questions about Needs of C.I Design for Church

## (2) 교단 C.I와 교회 C.I 디자인의 통일성에 관한 설문 문항

3. 3.2번 문항교회들의 C.I 디자인을 통해 하기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의 C.I와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4. 각각의 교회 C.I 중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의 산하 교회로 보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복수응답가능)



C : 100  
M : 70  
Y : 10  
K : 0

**심볼해설**  
상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민족을 복음화하고 나라가 세계를 선교한다.

**성 경** : 하나님의 말씀  
**세 모** : 성부, 성자, 성령  
**연 목 원** : 한국 → 민족복음화  
**비 말 목 원** : 세계 → 세계선교다.



C : 100  
M : 70  
Y : 10  
K : 0

**심볼해설**  
상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민족을 복음화하고 나라가 세계를 선교한다.

**성 경** : 하나님의 말씀  
**세 모**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승리  
**연 목 원** : 성부, 성자, 성령  
**비 말 목 원** : 한국 → 민족복음화  
**비 말 목 원** : 세계 → 세계선교다.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매우 연관성을 느낄 수 있다.  
☐ 연관성을 느낄 수 있다.  
☐ 보통이다.  
☐ 연관성을 느낄 수 없다.  
☐ 전혀 연관성을 느낄 수 없다.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옵션 1



☐ 옵션 2



☐ 옵션 3



☐ 옵션 4



☐ 옵션 5



☐ 옵션 6



☐ 옵션 7



☐ 옵션 8



☐ 옵션 9



☐ 옵션 10

Figure 11. Questions about Unity of C.I Design between Denomination and Church

### (3) 교회 C.I 디자인의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 문항

5. 5. 교회의 C.I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가능)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교회의 이름  
☐ 교회의 지역 및 위치  
☐ 교회의 연락처  
☐ 교회가 소속된 교단  
☐ 기독교의 상징
- 기타: ☐ \_\_\_\_\_
6. 6. 교회의 C.I 디자인이 소속 교단의 C.I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매우 그렇다. 7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 그렇다. 7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 보통이다. 8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 그렇지 않다. 7번째 질문으로 건너뛰세요.  
☐ 매우 그렇지 않다.
7. 6-2 교회의 C.I 디자인이 소속 교단의 C.I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_\_\_\_\_
8. 7. 위의 설문을 진행한 후 교회의 C.I 디자인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_\_\_  
 \_\_\_\_\_

Figure 12. Questions about improvement direction for C.I Design of Church

## IV. 설문결과

### 1. 기초통계량

본 설문 조사의 개요는 하기 표와 같다.

Table 1. Summary of Survey

Summary			
Question No.	Type of Question	Amount of Answer	Answering Percentage(%)
Question 1	Objective(Singular)	60	100
Question 2	Objective(Singular)	60	100
Question 3	Objective(Singular)	60	100
Question 4	Objective(Plural)	90	150
Question 5	Objective(Plural)	87	145
Question 6	Objective(Singular)	60	100
Question 6-1	Subjective	25	41.6
Question 7	Subjective	20	33.3

조사대상은 총 60명이며, 복수 응답이 가능한 문항4와 문항5는 각각 90개, 87개의 응답이 있었다. 또한, 주관식인 문항6-1과 문항7의 응답자는 각각 25명, 20명으로 집계되었다.

## 2. 교회의 C.I 디자인 니즈에 관한 문항 설문결과

문항1과 문항2는 교회의 C.I 디자인 니즈에 관한 설문이다. 문항1은 ‘교회에는 C.I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이다. 문항2는 ‘하기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산하 교회들의 C.I 디자인을 보았을 때 개선 및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3장의 설문지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에 소속된 교회의 로고와 C.I 디자인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의 응답으로 설문하였다. 문항1과 문항2의 설문결과를 하기 표와 같다.

Table 2. Statistics of Question 1

Result of Question 1		
Answer	Number	Percentage(%)
① Very much	7	11.7
② Yes	22	36.7
③ Normal	21	35
④ No	6	10
⑤ Not at all	4	6.7
Total	60	100

Table 3. Statistics of Question 2

Result of Question 2		
Answer	Number	Percentage(%)
① Very much	12	20
② Yes	16	26.7
③ Normal	25	41.7
④ No	5	8.3
⑤ Not at all	2	3.3
Total	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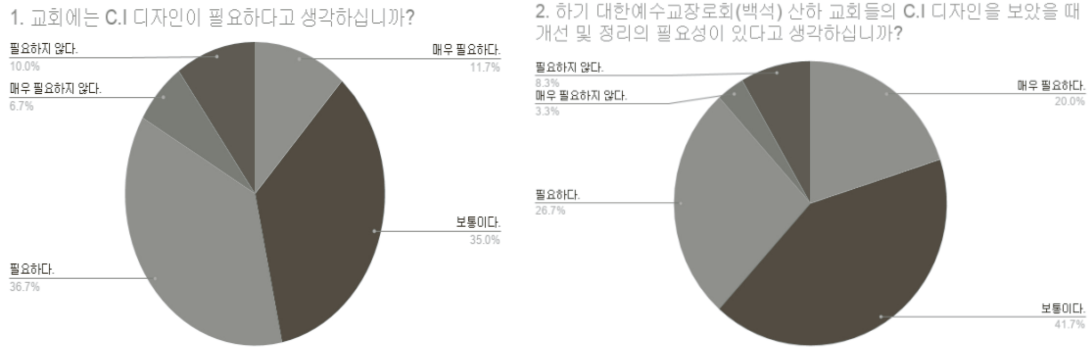


Figure 13. Statistics of Question 1, 2

### 3. 교단 C.I와 교회 C.I 디자인의 통일성에 관한 설문결과

문항3과 문항4는 교단 C.I와 교회 C.I 디자인의 통일성에 관한 설문이다. 문항3은 3장의 설문지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C.I 디자인을 제시하고, 문항2에서 제시한 교회들의 C.I 디자인들과 통일성을 물었다. 응답은 ‘매우 연관성을 느낄 수 있다.’, ‘연관성을 느낄 수 있다.’, ‘보통이다.’, ‘연관성을 느낄 수 없다.’, ‘전혀 연관성을 느낄 수 없다.’이다. 문항4는 3장의 설문지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C.I 디자인을 제시하고 옵션별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에 속한 교회의 로고를 제시한 후 ‘각각의 교회 C.I 중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산하 교회로 보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을 물었다. 이 중 옵션 3, 4, 6, 8은 로고가 활자로 되어있는 부류, 옵션 1, 2, 5, 7, 9, 10은 심벌 마크를 활용한 부류, 옵션 4, 9, 10은 심벌 컬러가 교단과 같은 부류, 옵션 1, 10은 심벌 마크가 교단과 같은 부류이다. 문항3과 문항4의 설문결과는 하기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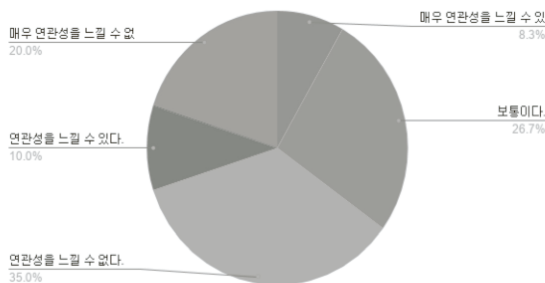
Table 4. Statistics of Question 3

Result of Question 3		
Answer	Number	Percentage(%)
① Very much	5	8.3
② Yes	6	10
③ Normal	16	26.7
④ No	21	35
⑤ Not at all	12	20
Total	60	100

Table 5. Statistics of Question 4

Result of Question 4		
Answer	Number	Percentage(%)
① Option1	31	53.3
② Option2	1	1.7
③ Option3	1	1.7
④ Option4	2	3.3
⑤ Option5	4	6.7
⑥ Option6	2	3.3
⑦ Option7	0	0
⑧ Option8	2	3.3
⑨ Option9	5	8.3
⑩ Option10	42	70
Total	90	150

3. 2번 문항교회들의 C.I 디자인을 통해 하기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의 CI와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4. 각각의 교회 CI 중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의 산하 교회로 보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복수응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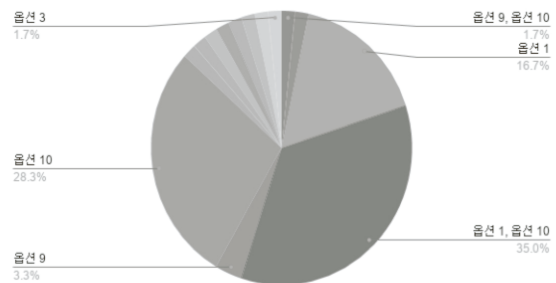


Figure 14. Statistics of Question 3, 4

#### 4. 교회 C.I 디자인의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결과

문항5, 문항6, 문항6-1, 문항7은 교회 C.I 디자인의 개선 방향에 관한 설문이다. 문항5, 문항6은 객관식이고 문항6-1, 문항7은 개선 방향을 질문한 주관식이다. 문항5는 ‘교회의 C, I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 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으로 응답은 ‘교회의 이름’, ‘교회의 지역 및 위치’, ‘교회의 연락처’, ‘교회가 소속된 교단’, ‘기타’이며 기타를 선택할 시 의견 기재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문항6은 ‘교회의 C.I 디자인이 소속 교단의 C.I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중 응답할 수 있다. 이 중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로 응답할 경우 문항6-1에서 ‘교회의 C.I 디자인이 소속 교단의 C.I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문항7은 위 설문을 진행한 뒤 느낀 교회의 C.I 디자인 개선 방향에 관한 생각을 주관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물었다. 이 중 문항5와 문항6에 대한 설문 결과는 하기 표와 같다.

Table 6. Statistics of Question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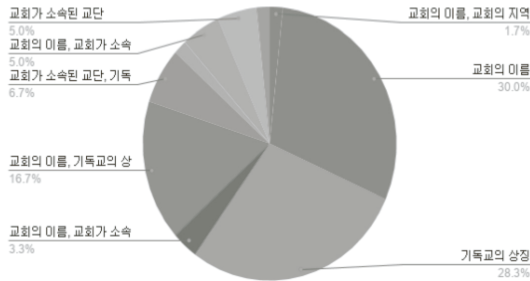
Result of Question 5		
Answer	Number	Percentage(%)
① Name of Church	35	58.3
② Location of Church	2	3.3
③ Contact Address of Church	2	3.3
④ Denomination of Church	13	21.7
⑤ Symbol of Christian	35	58.3
⑥ ETC	0	0
Total	87	145

Table 7. Statistics of Question 6

Result of Question 6		
Answer	Number	Percentage(%)
① Very much	12	20
② Yes	25	41.7
③ Normal	20	33.3
④ No	3	5
⑤ Not at all	0	0
Total	60	100



5. 교회의 CI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가능)



6. 교회의 CI디자인이 소속 교단의 CI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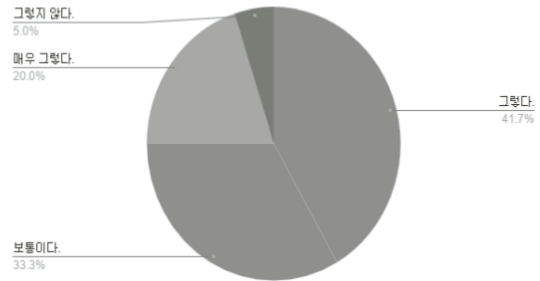


Figure 15. Statistics of Question 3, 4

문항6-1의 주관적 응답의 경우 크게 ‘이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교단의 C.I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때 미적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할 시에 교단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등으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 문항7은 ‘전문 디자이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디자인적 요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교단과의 통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독교적 상징과 특징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론

### 1. 설문결과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C.I 디자인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C.I 디자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천안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로고와 C.I 디자인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1을 통해 교회의 C.I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가 C.I 디자인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는 설문이 48.4%로 ‘필요하지 않다’ 10%와 ‘매우 필요하지 않다’ 6.7%의 합 16.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C.I 디자인을 통해 교회의 발전과 선진 기독교로의 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회의 C.I 디자인이 전도 활동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항2를 통해 현재 국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교회 로고와 C.I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교회 로고와 C.I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여부를 묻는 설문에

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1.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디자인 리뉴얼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기존의 초보적 수준의 디자인이 활용되는 교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항3을 통해서도 현재 국내 교회의 교단과 C.I 디자인의 통일성을 확인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백석)의 C.I 디자인과 소속 교회의 로고 및 C.I 디자인을 제시하고 그 통일성을 묻는 설문에서 연관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55%, 연관성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18.3%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C.I 디자인이 기타 교단과 비교하면 현대적이고 개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속 교회의 로고와 디자인을 제시한 설문에서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높은 것은 교회의 C.I 디자인 제작에서 교단과의 통일성이 고려되지 않는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항4를 통해서도 교회와 교단의 C.I 디자인의 통일성을 위하여 어떤 디자인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4의 결과는 옵션1과 옵션10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심벌 마크가 교단과 같은’ 부류로 총 150%를 기준으로 123.3%가 선택했다. 이에 비해 ‘심벌 컬러가 교단과 같은’ 부류는 옵션4와 옵션9, 옵션10으로 총 150%를 기준으로 81.6%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문항에서는 심벌 마크가 교단과 같지만, 심벌 컬러가 다른 옵션1을 통해 심벌 마크와 심벌 컬러에 따른 통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벌 컬러가 같은 부류보다 심벌 마크가 교단과 같을 때 더 높은 통일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5를 통해서도 교회 C.I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을 설문하였다. 중복선택이 가능한 설문에서 ‘교회의 명칭’과 ‘기독교의 상징’이 총 145%를 기준으로 각각 53.8%의 응답을 받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C.I 디자인의 개념이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정리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필수 요건인 단체의 명칭과 교회의 목적인 기독교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항6과 문항6-1에서는 교회의 C.I 디자인이 교단의 C.I 디자인과 통일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설문에서 교단과의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61.7%,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5%로 나타났다. 교회의 C.I 디자인이 교단과의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에 대해 주관식으로 진행한 문항6-1의 다수의견은 교단을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단 등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항7을 통해 교회 C.I 디자인의 개선 방향을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하고, 기독교의 목자로서의 가치관을 더욱 명확히 들어낼 수 있는 C.I 디자인을 강조하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 2. 연구종합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통해 교회의 Identity 디자인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설문을 통해 Church Identity 디자인에 대한 개선 방향에 관해 탐구해 보았다. 국내의 Corporate Identity 디자인은 1980 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교회의 디자인에는 활발히 적용되지 않아 Church Identity 디자인의 경우 부족한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십자가 위주의 디자인, 폰트 디자인을 이용한 로고타이프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교회의 디자인에 Identity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교단의 Identity 디자인과의 통일성에 대한 질문에서, 기존 교회의 디자인을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답변이 있었다. 이에 관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교단과의 Identity 통합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가 교회의 C.I 디자인과 교단의 Identity 디자인이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객관식 설문결과와 이 외의 주관적 설문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교단 Identity 디자인과 교회 디자인의 통일성을 갖춘 C.I 디자인이 향후 교회 디자인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주관적 설문결과에서 교회의 Identity 디자인이 교단의 Identity 디자인과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교단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는 것과 이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교단과 교회의 C.I 디자인이 통일성을 갖추었을 때 더 미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교단에서 개별 교회의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더 전문적인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 교회의 디자인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기업 못지않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소형교회들은 그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교회에서 Corporate Identity 디자인의 도입은 필수라는 의견이다. 특히 교단 Identity 디자인과의 정체성 통일은 교회라는 종교단체의 현황,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점점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디자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교회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교회 디자인의 발전 방향 설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학성 역. (2000). **현대디자인사**, 와카미야 노부하루.(1990). *History of Modern Design*. 서울 : 조형사.
- [Kim, H. S. (2000). *History of modern design*. Seoul: Johyungsa, Trans. Wakamia Nobuharu. (1990). *History of Modern Design*.]
- 송지성 (2000). CI 응용디자인 아이템 개발에 있어서 도입 기업과 디자인 개발회사의 업무 체크리스트 제안-마케팅관련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6(1), 80-97.
- [Song, J. S. (2000). Proposal Checklist between CI introducing Corporate and Design developing company On developing CI application design - focusing on marketing i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6(1), 80-97.]
- 원유홍 역. (1998). **CI디자인+타이포그래피**, Cater, Rob.(1995). *Working with Computer type*. 서울 : 안그래픽스.
- [Won, Y. H. (1998). *Working with Computer type*. Seoul: AHN GRAPHICS, Trans. Cater, Rob. (1995). *Working with Computer type*. SA: RotoVision]
- 이은주 (2006). **창의적 연상 작용을 통한 CI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Lee, E. J. (2006). *A Study on CI Design Education through Creative Association Process*. Masters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장동훈 (1996). WWW 홈페이지 디자인에 있어서 CI개념의 도입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9(2), 153-161.
- [Jang, D. H. (1996).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I Concept in WWW Homepage Design. *Archives of Design Research*, 9(2), 153-161.]
- 전은호 (1999). **교회 시각이미지 개선에 관한 연구 : 교회 CI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Jeon, E. H. (1999).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Visual Image of Church : Focused on Church Identity*.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정육선 (2014). **실무자가 알아야 할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서울: 반디모아.
- [Jung, W.S. (2014). *Brand identity design that practitioners should know*. Seoul: Bandimoa.]
- 정철중 (2011). 감성적 CI디자인 개발과정을 위한 이미지텔링의 활용-심별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디자인학연구**, 11(1), 9-18.

[Jung, C. J. (2011). Application of Imagetellingfor development process of Emotional CI design - Based on the symbol design. *Journal of Digital Design*, 11(1), 9-18.]

정한경 (2006). FC서울 이미지통합(CI)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6(2), 1-14.

[Jung, H. K.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rporated Identity for FC Seoul. *Journal of Digital Design*, 6(2), 1-14]

조무광 (2006). 교회 CI, 교회 심벌마크 분석연구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논문집*, 50, 371-398.

[Jo, M. G. (2006), CI(Church Identity), mainly about the study of church symbol mark. *Silla University Journal*, 50, 371-398.]

<https://blog.naver.com/cncad6001/10079644636>. (검색일 2020.10.30.)

<https://blog.naver.com/haede8/221029274186> (검색일 2020.10.30.)

<https://logoorange.com/> (검색일 2020.10.30.)

[https://www.pgak.net/www.contents.asp?id=sub01\\_03\\_new2](https://www.pgak.net/www.contents.asp?id=sub01_03_new2) (검색일 2020.10.30.)

# 교회 아이덴티티(C.I) 디자인에 대한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소속 교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urch Identity(C.I) Design: Focused on the Churches Belonging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Baekseok)

최영옥 (백석문화대학교)

## 논문초록

C.I 디자인은 기업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C.I 디자인은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C.I 디자인을 도입하거나 리뉴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C.I 디자인에 대한 고찰과 교회로의 도입에 관해 탐구해 보고, 설문을 통해 교회의 C.I 디자인이 개선되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장과 2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3장과 4장에서는 설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소속의 교회 C.I 디자인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을 C.I 디자인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결과 국내 교회의 C.I 디자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고, 교단과 교회의 C.I 디자인의 통일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심벌 마크의 유사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디자이너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C.I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교회 C.I 디자인, 설문 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 존 콜린스의 관점으로 본 디아코노스 예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Diakonos Jesus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N. Collins  
- Focused on the Gospel of John -**

유 용 옥 (Yong-Ouk You)\*\*

### ABSTRACT

‘Diakonia’ has been used as a representation of Christian social welfare activities, church services and relief. The reason is that the origin of the word ‘diakonos’ means ‘a person who is waiting at the table’ traditionally. However John N. Collins interpreted the original meaning of diakonia as ‘go-between’ or ‘messenger’. In the Gospel of John, the use of diakonia to refer to Jesus’ Ministry has never appeared, but the spirit of diakonia appeared in Jesus’ Ministry in the Gospel of John. Jesus has a self-consciousness that He is the Go-between in the Gospel of John. Another self-consciousness that Jesus has is the Messenger of His Father. Jesus has been the exclusive and chosen only Diakonos of God the Father, but His Ministry of Diakonia has been succeeded to his disciples and the church. The disciples and the church are commissioned by the Diakonos Jesus to perform the mission as the mediators between God and the world and as messengers of God on His behalf.

**Key words:** Diakonos, John N. Collins, go-between, messenger, mission

\* 2020년 11월 10일 접수, 12월 14일 게재확정

\*\* 원광대학교(Wonkwang University), 치과대학 교수,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gene7788@gmail.com  
전주대학교(Jeonju University) 대학원 신학과(선교학 전공) 박사과정수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암로 303



## I. 들어가는 글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통 받는 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더 나아가는 사회 속에서 불의, 불평등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향한 섬김을 대변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 왔다(김옥순, 2016: 574). 그 이유는 디아코니아란 어원의 출발이 신약시대 이전 헬라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하인들이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는 ‘식탁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드는 것이란 의미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다(최광수, 2007: 104).

그러나 존 콜린스(John N. Collins)는 성서와 헬라문헌을 연구하여 디아코니아의 원래의 의미가 전통적 해석과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해석은 용어의 오해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 원래의 그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게 된다(Collins, 1990: 96-132; Gooder, 2006: 34-49; 박성용, 2011: 45). 콜린스는 디아코노스의 본래 의미는 ‘봉사자’라는 의미보다는 ‘go-between(중재자, 위임받은 자, 대리자, 중보자)’의 의미와 ‘emissary 또는 messenger (사자, 전령)’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Collins, 1990: 77-216; Gooder, 2006: 34-49).

마가는 예수의 사역을 디아코니아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공동체 문서에서 예수의 사역을 지칭하여 디아코니아라고 사용한 용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성종현, 1996: 8-16). 그러나 콜린스가 해석하는 의미에서 디아코니아 정신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사역 속에 살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콜린스가 주장하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디아코노스 예수를 조명하고자 한다.

## II. 디아코니아의 의미

신약성서에는 여성명사인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가 총 34회 등장하며, 동사인 디아코네인(*διακονεῖν*)이 총 35회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성종현, 1997a: 17). 신약성서에서 디아코니아는 전통적으로 ‘섬김’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해 왔다. 디아코니아는 신약성서의 디아코네인으로부터 파생된 말로써, 디아코네인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왔으며, 이 말은 헬라문화권의 일상적인 세속사에서 ‘식탁에서 시중들다’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의미가 넓어져 ‘공

급하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적 견해이다(최광수, 2007: 104).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성서에 디아코니아가 사용된 용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는데, 동사형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는 마태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수종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25장 44절에는 ‘공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마태복음 27장 55절, 마가복음 15장 41절, 누가복음 8장 3절,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최광수, 2007: 105).

명사형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는 로마서 12장 7절과 15장 31절,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9장 1절에는 ‘섬기는 일’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로마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골로새서 4장 17절, 디모테전서 1장 12절에서는 ‘직분’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사도행전 21장 19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봉사’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도행전 1장 17절, 고린도후서 9장 12절, 디모테후서 4장 5절에서는 ‘직무’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는 ‘섬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최광수, 2007: 105).

명사형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는 마태복음 20장 26절, 마가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섬기는 자’로 사용되었으며,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사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2장 5절과 9절에서는 ‘하인’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수종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로마서 16장 1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일꾼’이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사역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는 ‘짓게 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테전서 3장 8절과 12절에서는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최광수, 2007: 105).

신약성경에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는 종속관계에 있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섬김 즉 ‘천한 섬김’으로부터 어원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방법이었다(최광수, 2007: 105-106). 이런 해석적 방법으로 인하여 베이어(H. W. Beyer)도 디아코니아를 *TDNT(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ited by Kittel)*에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waiting at table)이나 넓은 의미에서는 육신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provision for bodily sustenance)로 규정하고 있다(Gooder, 2006: 34-35; Beyer, 1964: 81).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를 이행하는 것(discharge of service in genuine love)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적 방법을 베이어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디아코니아 대한 이런 해석을 *TDNT*에 공식화하면서 이후 학자들에게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후 베이어의 견해는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헬-영사전(*Greek-English lexicon*)에도 수록되었고(Louw and Nida,

1989: 458), 한스 쿵(Küng H)의 교회론에 관한 저서들(Küng, 1967: 391-92)과 엘리자베스 피오렌자(Fiorenza E)의 페미니즘에 대한 저술(Fiorenza, 1988), 제임스 모레오 바넷 (Barnett JM)의 집사 직분에 대한 연구(Barnett, 1981; 4-42), 슈바이처가 *The Anchor Bible Dictionary*에 기술한 “초대교회의 사역(Ministry in the Early Church)”에도 수록되었다(Schweizer, 1992).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가 발행한 문서 *BEM(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에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는 봉사(service to which the whole people of God)로 규정하고 있다(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M7).

그러나 호주 멜버른의 가톨릭 신학자인 콜린스는 ‘디아코니아’라는 용어가 사용된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 놓게 된다(Collins, 1990: 77-216). 그는 성서와 헬라문헌에 나와 있는 ‘디아코니아’에 관련된 용어를 심도 있는 언어학적 연구를 하여 1976년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디아코니아, 고전의 재해석(*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 콜린스가 주장하는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전통적 해석과는 많은 차이를 갖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콜린스의 견해가 많은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디아코니아’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Gooder, 2006: 35). 먼저 콜린스는 신약성서가 저술되기 이전 헬라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탐구한다. 그는 플라톤의 저서와 헬라문헌 그리고 이집트 파피루스 등 탐구하면서 디아코니아의 의미가 중재자 (go-between)의 의미로 주로 쓰였음을 확인했다(Gooder, 2006: 35).

신약성서의 성문화된 가장 초기문서들은 바울 서신서들로 알려져 있다. 콜린스는 바울이 주후 55-56년경 고린도인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의미를 파악한다. 콜린스는 고린스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 6장 13절 및 11장 23절에서 디아코노스의 의미가 대변인(spokesperson)의 의미와 어떤 경우에는 ‘중재(mediation)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파악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9절에서

“둘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διάκονος)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διάκονος)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διάκονος)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διάκονος)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개역개정)

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의 공동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율법은 석판에 새겨진 문자로서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비

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였지만 그 얼굴에는 너무나 찬란한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문자의 심부름꾼(διάκονος)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성령의 심부름꾼(διάκονος)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공동번역)

사도바울은 디아코노스의 의미를 하나님의 ‘문자의 심부름꾼’ 즉 하나님의 ‘메신저(messenger)’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oder, 2006: 35). 또한 콜린스는 사도 바울이 디아코노스란 단어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사자 (emissary) 또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임무를 띤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메신저(messenger)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Benedict, 2016: 136-147). 이러한 콜린스의 해석은 디아코노스가 종속관계에 있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섬김 즉 ‘천한 섬김’으로부터 어원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전통적 해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콜린스는 저작연대가 주후 6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 디아코니아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 저술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개역개정)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NIV)

“καὶ γὰρ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οὐκ ἦλθεν διακονηθῆναι ἀλλὰ διακονῆσαι καὶ δοῦναι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λύτρον ἀντὶ πολλῶν.”(SLBGNT; Holmes, 2010)

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로써 문장을 분리함으로써 디아코니아를 단순한 섬김 또는 봉사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콜린스는 이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문장을 분리하여 해석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며, 마가복음 10:45절 헬라어 원문에서 ἀλλὰ가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며, 두 번째 등장하는 ‘καὶ’는 ‘διακονῆσαι’와 δοῦναι를 연결하는 등위접속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ooder, 2006: 41). 즉 ‘인자가 온건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려 온 것이라’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즉 디아코노스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섬기는자’ 즉 ‘중보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콜린스는 저작연대가 주후 6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추정되는 사도행전에서 6:1-4을 분석한다. 사도행전에서 6장 1-4절을 살펴보면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disciples was increasing, the Grecian Jews among them complained against the Hebraic J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διακονία). So the Twelve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διακονεῖν) on tables. Brothers, choose seven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and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διακονία) of the word.” (NIV)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개역개정)

로 NIV에 번역되어 있다. 콜린스는 이러한 번역이 그 당시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는 “in the daily ministry” 즉 ‘매일 말씀사역’이 더 적당한 번역이라고 본다. 또 “in order to wait on tables”도 “to minister at table” 즉 빵을 나누며 말씀사역을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Gooder, 2006: 44). 결국 디아코니아의 바른 해석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선택된 일곱’은 일곱 집사(deacon)로 알려져 있고, 일곱 집사의 임무가 사도들과는 달리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누가는 선택된 일곱에 대하여 집사란 용어를 쓰지 않았으며, 이 때 선택된 빌립이나 스테반의 사역이 주로 설교와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으며(Gooder, 2006: 44), 그들의 구제사역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선택된 일곱’은 예수의 생전에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사

도와는 구별되지만, 그들의 직무는 12사도들의 사역을 보좌하고 승계하여 말씀과 전도 사역의 확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Collins, 1990: 230-231),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곱 집사의 직무와는 차이가 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서 중 비교적 후기(주후 80-100년)에 성문화된 문서인데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와 관련된 용어는 총 6회 사용되었다. 요한복음 2장 5절 및 9절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2회 등장하며,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1회 등장하고, 요한복음 12장 26절의 예수의 강화에서 3회 등장한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2장 5절 및 9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διακόνοις)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2:5),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διάκονοι) 알더라”(2:9, 개역개정).

로 표현되어 있는데, διακόνοις는 개역개정에는 ‘하인들’로 번역되어 있고, NIV에는 ‘servants’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콜린스가 제시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면, διακόνοις는 단순히 천한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손님에게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대리인, 수행원) 또는 주인과 손님 사이를 중개하는 중개자의 의미로 볼 수 있다(Collins, 1990: 245).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δῆκόνει),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여 있었다.”(새번역)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Martha served(δῆκόνει), while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NIV)

로 표현되어 있는데, δῆκόνει는 새번역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로 또 개역개정에서는 ‘일을 하다’로 번역되어 있고, NIV에는 ‘served’로 번역되어 있다. Δῆκόνει를 콜린스가 제시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면 마르다의 일은 단순히 노예가 주인에게 시중드는 천한 일이 아니라, 음식을 주방에서 가져와 식탁으로 나르는 행위 (전달하는 행위)로부터 출발한 용어이며, 마르다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찬의 주관자로서 음식을 배설(排設)하는 주인의 역할을 설명한 용어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예수의 강화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διακονῇ)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διάκονος)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διακονῇ)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공동번역)

“Whoever serves(διακονῇ)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διάκονος) also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διακονῇ) me.”(NIV)

로 표현되어 있는데, διακονῇ와 διάκονος는 공동번역에서 ‘섬기다’와 ‘섬기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고, NIV에는 ‘serves’와 ‘servant’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διάκονος는 단순히 종으로서 천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διάκονος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길 만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표현하고 있다(Collins, 1990: 48). 콜린스가 제시한 의미에 따라 διακονῇ와 διάκονος를 해석한다면 ‘누구든지 나의 대리자, 메신저의 역할을 하려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대리자, 메신저도 역시 거기 있을 것이다. 나를 대리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가 승귀하신 후 제자들의 주된 사역을 예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그리고 예수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 III. 중재자로서 디아코노스 예수

마가는 예수의 사역을 디아코니아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예수의 사역을 지칭하여 디아코니아라고 사용한 용례는 없다. 그러나 콜린스가 해석하는 의미에서 디아코니아 정신은 요한복음의 예수의 사역 속에 살아 있다. 요한공동체의 문서를 살펴보면 예수의 자의식 가운데에는 중재자로서의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예수의 자의식이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잘 드러나 있다(Burge, 2010: 593).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개역개정)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만민에게 영생주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예수가 아버지의 통치와 구원의 중재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예수는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탄원한다. 요한복음 17장 9-11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개역개정)

예수는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이며,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하나 되시도록 탄원하시고 있다. 즉 요한복음 17장 9-11절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중재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자의식’은 콜린스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디아코노스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섬기는 자’ 즉 ‘중보자’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Gooder, 2006: 41).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요한도 또한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간의 중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감으로,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중재자로 표현하고 있다.

중재자로서 예수는 네레이(Jerome H. Neyrey)의 논문 「“I Am the Door” (John 10:7, 9): Jesus the Broker in the Fourth Gospel」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Neyrey, 2007: 271-291). 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개자(Broker)로 설명하였으며, 후원자-중개자-클라이언트 모델(patron-broker-client model)로 제시하였다(Neyrey, 2007: 281). 먼저 후원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이름인 아버지(Father)로 표현하였다. 아버지이신 후원자는 그의 대사(ambassador)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요 3:17). 후원자이신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중재자로 승인하셨다(요 6:27, 10:36). 후원자의 “인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를 후원자의 임무를 위해 독점적으로 선택된 중재자임을 나타낸다. 예수는 선택된 중재자로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자기목숨을 내어

놓았다(요 10:11, 14-15). 예수는 자신이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재자임을 주장한다(요 14:6). 클라이언트가 예수를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재자로 인정할 때만이 후원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요 13:20). 즉 법적 대리인인 중재자를 믿는 것은 법적 대리인을 보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법적 대리인인 중재자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 대리인을 보낸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다(요 8:46-47). 따라서 중재자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후원자인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 IV. 메신저로서 디아코노스 예수

요한공동체 문서에 나타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는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이다(Burge, 2010: 598).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도 예수의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예수는 자신의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자의식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개역개정)

예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통하여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메신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수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이시란 자의식을 갖고 있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파송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밝히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개역개정)

예수는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세상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메신저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외에도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자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26-28절에도 예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변증하는 장면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개역개정)

본문에서 예수는 자신을 파송한 존재가 아버지이며,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며 전적으로 아버지께 위임받은 말씀이라고 주장함으로 메신저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요 8:16),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요 8:18)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메신저임을 드러내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요 8:42)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 파송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파송된 메신저임을 주장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과 논쟁할 때에 예수 자신의 말씀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의 메신저임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49)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메신저임을 드러내고 있고, 또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요 12:50) 라는 표현은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는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3장 32-34절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개역개정)

세례요한 역시 예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예수의 사역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종속되어 있으며 일체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콜린스는 사도행전 6장 1-4절을 해석하면서 ‘디아코니아’의 올바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즉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자의식은 콜린스가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디아코노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Gooder, 2006: 44).

## V. 승계되는 디아코노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한 예수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디아코노스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καθὼς ἀπέσταλκέν με ὁ πατήρ, καὶ γὼ πέμπω ὑμᾶς*)”라고 말한다. 노드스트로케(Kjell Nordstokke)는 이 문장에 나오는 “As (것 같이)”가 헬라어 “*καθὼς*”로 영어로는 “in the same manner”의 의미라고 주장한다(Nordstokke, 2014: 76). 즉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로 파송 받은 것처럼, 사도들을 디아코노스로 보낸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도들을 디아코노스의 승계자(*διάδοχος*)로 임명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아코노스의 승계(*διαδοχή*) 사역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와 베드로간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7-18)”(개정개정)

이미 예수는 지상사역 기간 동안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기대에 부합하는 신앙고백을 하자, 그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예수 공동체와 그 사역의 승계를 선언한 바 있다(마 16:18-19).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 공동체의 수위권자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도와 교회위에 위임된 디아코니아 사역의 위임명령을 재확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요 21:17-18, 19, 22; 요 20:23). 요한공동체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독점적이며 선택된 유일무이한 디

아코노스였지만, 중재자로서 또 메신저로서 예수의 디아코니아 사역은 사도들과 교회 위에 승계된다고 이해하고 있다(요 20:23; 요 21:17-18). 따라서 요한공동체는 사도들과 교회가 예수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로서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디아코노스 예수의 위임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요한공동체는 사도와 교회위에 승계되는 예수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담화(요 14-16장)를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께도 돌아가야 할 것과 자신의 대리자로서 성령의 파송을 예언한다. 이후 부활한 예수는 사도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수여하신다(요 20:22). 요한복음 14장 16-17절에는 성령이 사도들안에 거할 것임을 언급한 반면 요한복음 14장 20절과 15장 4절에는 예수가 사도들 안에 거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고병찬, 2018: 72), 요한공동체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며(김문현, 2012: 355),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로서 부활한 예수에 의해 수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문현, 2012: 364). 요한공동체 안에 예수가 ‘파라클레토스 안에서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를 통하여(in and through Paraclete)’ 임재하고 또 ‘파라클레토스로서(as the Paraclete)’ 현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김문현, 2012: 349).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개역개정)와 the Counselor(NIV)로 번역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대언자(개역개정)와 an advocate(KJV)로 번역되고 있으나 고병찬과 박경미는 중보자(Mediator), 중재자(Intercessor), 돕는자(Helper)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제안하고 있다.<sup>1</sup>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예수의 사역도 파라클레토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중보자’로 해석한 고병찬의 해석방법에 따를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가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요한공동체의 성령의 이해는 카리스마(χρῖσμα)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누가 공동체나 바울의 인식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이한수, 1994: 109).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의 요청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메신저이자 중재자로 보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요 14:16). 예수께서 인간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서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예수의 요청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또 다른 중재자로서 제자들과 교회위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기자는 성령의 활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요 16:13)(송진순, 2018: 32). 예수가 지상사역 기간에 예언한 임박한 파루시아(παρουσία)가 예수의 승귀 이후에 장시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그의 임재와 활동이 부재한 교회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요한공동체는 이 위기를 성령을 통한 예수의 현존이란 관점에서 신학적 답변을 제

1) 고병찬은 BDAG를 인용하며, παράκλητος의 의미가 중보자(Mediator), 중재자(Intercessor), 돕는자(Helper)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고병찬, 2018: 70; Bauer, 2000). 박경미도 παράκλητος의 의미를 중재자, 대변자, 돕는자, 위로자로 설명한다(박경미, 2013: 360-363).

시한다. 즉 예수의 승귀 이후에도 예수의 임재와 활동이 성령을 통하여 지속된다는 것이다(이한수, 1994: 78). 예수는 승귀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이다(박경미, 2013: 383). 따라서 예수의 승귀 이후 사도들과 교회의 활동은 결국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수와 아버지의 뜻 따른 메신저로서 중재자로서의 활동인 것이다(박경미, 2013: 383). 사도시대 이후 사도들의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승된다. 그러므로 중재자로서 메신저로서 예수의 디아코니아 사역도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와 제자들 위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브리드(Gert Breed)는 예수의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디아코노스이며,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라고 주장한다(Breed, 2015: 1-8). 하나님은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열방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의 디아코니아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백성의 마음에 임하고 이 땅의 혼돈된 질서가 회복되도록 그의 자녀들의 디아코니아를 사용하신다고 주장한다.

## VI. 선교학적 적용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선교학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첫째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의 의미를 넘어 선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봉사와 섬김으로 한정될 수 없다. 디아코니아는 예수가 인류를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할 수 있었듯이(Strohm, 2016: 20-27), 지금도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를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이웃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수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섬기셨듯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메신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디아코노스는 영으로 오신 예수의 메신저로서 또 중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이다. 김은수는 디아코니아를 하나님 존재 양식의 내적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김은수, 2014: 20). 하나님은 예수의 중보를 통하여 인류와 화해하였고, 예수는 구체적인 중보의 삶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 주었으며,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교회위에 임재하시고 계시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발견한 디아코니아의 새로운 의미는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독교적



해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선교학의 진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된 강조점은 변화되어 왔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가 강조되었었다.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적인 승리의 그리스도가 강조된 것이다(김은수, 2013: 63-64). 이는 19세기 서구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에 힘입어 서구 교회가 기독교를 지리적으로 널리 포교한 것에 근거한 낙관적이고 승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 거치면서 서구 교회의 낙관적 사고는 깨어지고, 기독교가 세속주의와 타종교의 도전받음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 총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인 봉사와 섬김 그리고 희생이 강조되었었다. 선교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이다. 그 후 1938년 탐바람 국제선교협의회 총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히틀러에 의한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무솔리니에 의한 이탈리아의 독재 파시즘,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러시아의 공산혁명, 일본의 천황숭배 신도주의 등, 불의적 세력이 힘을 떨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콜린스의 관점으로 본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할까? 성종현은 요한의 기독교론이 ‘로고스기독교론’임과 동시에 아들의 ‘파송기독교론’이라고 설명하였다(성종현, 1997b: 55).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파송의 주체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이자 사랑의 메신저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의 직무는 디아코노스로서 ‘중보자이자 메신저’의 직무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한복음에서 발견한 디아코니아의 새로운 성서 번역과 해석을 통하여 선교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 성서 번역과 해석은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일로 간주될 수 없는 필수적인 사역이다. 선교지에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현지어 번역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선교지의 문화에서 번역은 언제나 복잡하고 다양한 신학적 굴절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김상근, 2005: 73-109). 따라서 성서의 번역은 매우 복잡한 선교신학적 논의가 요구된다. 전통적으로는 디아코니아의 어원은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의미의 ‘낮은 자의 섬김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더 나가서는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콜린스의 연구에 의하면 디아코노스의 본래 의미는 ‘봉사자’라는 의미보다는 ‘중재자’의 의미와 ‘메신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견은 그 동안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성서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왜곡된 굴절을 해소하고, 선교적 지평을 넓혀 가는데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디아코



니아의 의미는 단순한 봉사나 섬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의 중보자와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계승하여 섬김과 말씀, 복음전도와 사회봉사가 하나가 되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VII. 나가는 글

전통적으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라는 용어의 기원은 헬라문화권에서 하인들이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의미의 ‘낮은 자의 섬김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더 의미가 확대되어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 기독교의 사회 복지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성서연구에 있어서 디아코니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셔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겸손의 예수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헌신적 인간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디아코니아에 대한 콜린스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였다. 콜린스의 관점으로 볼 때 디아코노스의 본래 의미는 ‘섬기는 자’ 또는 ‘봉사자’라는 의미보다는 ‘중재자(또는 중보자)’의 의미와 ‘메신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콜린스의 관점에 대한 반론도 있다. 성종현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행한 세족사건(요 13:1-15)에 나타난 ‘섬김’의 행위가 예수의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적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성종현, 1997a: 20). 제임스 모레오 바넷은 디아코니아에 대한 단순한 언어학적 연구가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교회에서 집사(deacon)란 직분이 수행하는 ‘봉사자’의 기능 또는 역할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Gooder, 2006: 47; Barnett, 1981: 21). 그러나 콜린스는 디아코니아라는 용어가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었기 때문에, 교회내에서 집사의 기능 또는 역할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Gooder, 2006: 48).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콜린스가 주장하는 디아코니아의 의미에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사역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요한복음에 기술된 내용을 분석해볼 때, 예수는 중재자로서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세례요한도 예수가 중재자이며 메신저라고 인식하였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점적이며, 선택된 유일무이한 디아코노스였지만, 그의 디아코노스 사역은 제자들과 교회위에 승계되었다. 제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보자로서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디아코노스 예수의 위임명령을 받았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섬김과 봉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

제, 또는 고통받는 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 디아코니아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중보자와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계승하여 말씀과 섬김, 그리고 복음전도와 사회봉사가 하나가 되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사문 (1999). 구약에 나타난 섬김의 의미(디아코니아). **장신논단**, 15, 8-33.
- [Kang, S. M. (1999). The meaning of service in the Old Testament (diakonia).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5, 8-33.]
- 고병찬 (2018). 요한복음에 나타난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의 기능과 역할. **성경과신학**, 88, 61-83.
- [Go, B. C. (2018). The Function and Role of ‘Paraclete’ in the Gospel of John. *Bible and Theology*, 88, 61-83.]
- 김문현 (2012). 요한복음의 성령 이해. **신약연구**, 11(2), 337-367.
- [Kim, M. H. (2012). A Survey of the Johannine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Korean Evangelical New Testament Studies*, 11(2), 337-367.]
- 김상근 (2005).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의 기호학과 선교 번역이론. **선교신학**, 10, 73-109.
- [Kim, S. K. (2005). The Semiology of Roland Barthes an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s. *Theology of Mission*, 10, 73-109.]
- 김옥순 (2016). 디아코니아와 일반사회복지의 학문적 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8, 571-604.
- [Kim, O. S. (2016).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a scientific interdisciplinary Fusion(?) of Diaconia and Social Welfare. *Theology and Praxis*, 48, 571-604.]
- 김옥순 (2009). 기독교봉사개념의 기초로서 신약성서속의 διακονεῖν어군의미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0, 185-225.
- [Kim, O. S. (2009). A study of the meaning of the word group διακονεῖν in the New Testament concerning the fundamentals of διακονία. *Theology and Praxis*, 20, 185-225.]
- 김은수 (2014). **사회복지와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E. S. (2014). *Social Welfare and Miss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은수 (2013).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E. S. (2013). *Current and Theme of Contemporary Miss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박경미 (2013).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ark, K. M. (2013). *With Jesus without Jesu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박성용 (2011). 디아코니아와 평화 - 하나님의 주권성을 갈등, 폭력 그리고 지배체제 위에 세우기. **신학논단**, 65, 43-71.

[Park, S. Y. (2011). Diakonia and Peace. *Theological Forum*, 65, 43-71.]

성종현 (1997a). 예수와 디아코니아. **성서학연구원심포지움**, 15, 17-25.

[Sung, C. H. (1997a). Jesus and Diakonia. *Symposium of the Institute of Biblical Studies*, 15, 17-25.]

성종현 (1997b). 에클레시아와 디아코니아. **장신논단**, 13, 49-68.

[Sung, C. H. (1997a). Ecclesia and Diakonia.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3, 49-68.]

성종현 (1996).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본 디아코니아와 한국교회. **교육교회**, 96(6), 8-16.

[Sung, C. H. (1996). Diakonia and the Korean Church from a Biblical The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Church*, 96(6), 8-16.]

송진순 (2018). 파라클레토스의 구현체로서 요한공동체(요16:7-15). **피어선 신학 논단**, 7(1), 26-49.

[Song, J. S. (2018).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acletos of the Johannine Community based on the Gospel of John 16:7-15. *Pierson Journal of Theology*, 7(1), 26-49.]

이한수 (1994). 요한의 성령 이해. **신학지남**, 61(1), 77-109.

[Lee, H. S. (1994). John's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61(1), 77-109.]

최광수 (2007). 성경속의 디아코니아와 총체적복음사역. **총체적복음사역연구소 연구지**, 4, 104-110.

[Choi, K. S. (2007). Diakonia and Holistic Gospel Ministry in the Bible. *Holistic Gospel Ministry*, 4, 104-110.]

황순환 (2002). 구약성서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정신. **선교신학**, 5, 1-12.

[Hwang, S. H. (2002). The spirit of diakonia in the Old Testament. *Theology of Mission*, 5, 1-12.]

- Barnett, J. M. (1981). *The Diaconate - A Full and Equal Order: A Comprehensive and Critical Study of the Origin, Development, and Decline of the Diaconate in the Context of the Church's Total Ministry and a Proposal for Renewal*. New York: Seabury Press.
- Bauer, W. (2000).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In Danker, F. W., Arndt, W. F., & Gingrich, F. W. (Eds)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ed, G. (2015). Finding guidelines on social change in the two-tiered narrative and diakonia in the Gospel of John.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1(2) a2666, 1-8.
- Benedict, Hans-Jürgen. (2016). 개신교 디아코니의 요구는 고전에 대한 오역에 근거하는가: 존 콜린스 '디아코니아' 연구. 이범성 역. 폴커 헤르만, 마틴 호르스크만 편, **디아코니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enedict, Hans-Jürgen. (2016). Are Protestant Diakoni's demands based on a mistranslation of the classics ? : Study of Diakonia of John N. Collins. Trans. Lee, B. S. In Herrmann, V. & Horstmann, H. (Eds.). *Diakoni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Beyer, H. W. (1964). Diakonew, Diakonia, Diakonos. In Kittel, G., Bromiley, G. W., & Friedrich, G.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Burge, Gary M. (2010). **NIV 적용주석 시리즈-요한복음**. 김병국 역. 서울: 솔로몬.
- [Burge, Gary M. (2010).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 John*. Trans. Kim, B. K. Seoul: Solomon Publishing Co.]
- Collins, J. N. (1990). *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orenza, E. (1988). 'Waiting at Table': A Critical Feminist Theological Reflection. In Greinacher, N., Mette, N., & Gardiner, J. A. (Eds.). *Diakonia: Church for Others*. Edinburgh: T&T Glark.
- Gooder, P. (2006). Diakonia in the New Testament: A Dialogue with John N. Collins. *Ecclesiology*, 3(1), 33-56.
- Holmes, M. W. (Ed.) (2010). *The Greek New Testament: SBL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Küng, H. (1967). *The Church*. London: Burns & Oates.
- Louw, J. P. & Nida E. A. (1989).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nd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 Neyrey, J. H. (2007). 'I Am the Door' (John 10:7, 9): Jesus the Broker in the Fourth Gospel.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9, 271-291.
- Nordstokke, Kjell. (2014). Diakonia according to the Gospel of John. *Diakonia*, 5(1), 65-76.
- Schweizer, E. (1992). Ministry in the Early Church. In Freedman, D. 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 Strohm, T. (2016). 디아코니의 성서 신학적 기초와 입문: 문제의 지평. 이범성 역. 폴커 헤르만, 마틴 호르스크만 (편저). **디아코니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trohm, T. (2016). Diakoni's Biblical Theological Foundation and Initiation : The Horizon in Question. Trans. Lee, B. S. In Herrmann, V. & Horstmann, H. (Eds.). *Diakoni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M7.

# 존 콜린스의 관점으로 본 디아코노스 예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Diakonos Jesus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N. Collins  
- Focused on the Gospel of John -

유 용 옥 (원광대학교/전주대학교)

## 논문초록

‘디아코니아’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를 대변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 왔다. 그 이유는 디아코니아란 어원의 출발이 일반적으로 하인들이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는 ‘식탁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콜린스(John N. Collins)는 성서와 헬라문헌을 연구하여 전통적인 해석은 용어의 오해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 원래의 그 의미는 ‘중재자(go-between)’의 의미와 ‘메신저(messenger)’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마가는 예수의 사역을 디아코니아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의 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지칭한 용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콜린스가 해석하는 의미에서 디아코니아 정신은 요한복음 속의 예수의 사역 속에 살아 있다. 예수의 자의식 가운데는 중재자로서의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는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이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파송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밝히고 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점적이며, 선택된 유일무이한 디아코노스였지만, 그의 디아코노스로서의 사명은 제자들과 교회위에 승계된다. 제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로서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디아코노스 예수의 위임명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섬김과 봉사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디아코니아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중보자와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계승하여, 말씀과 섬김 그리고 복음전도와 사회봉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어: 디아코노스, 콜린스, 중재자, 메신저, 선교.



## 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 고찰 -기독교 대학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hristian Personality Competency  
through Novel Education : Focused on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조경덕 (Kyoung-Duk Cho)\*\*

###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hristian-related personal competency through novel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Today, Christianity is not a popular symbol among students. Nevertheless, Christian universi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teach students about the founding philosophy.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soul of Christianity is related to personality education. P University interprets Christianity as selflessness. As a liberal arts education, novel education helps students develop sympathy. If we see altruism as sympathy ability, novel education is suitable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this regard, I suggested reading Raymond Carver's *The Cathedral* (1981). This work depicts the sympathy between a blind person and a non-disabled person. It was expressed as a figure holding two hands that was drawing the Cathedral. Auguste Rodin's *The Cathedral*(1908) was represented as a hand-to-hand contact.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works leads students to reflect on the nature of Christianity and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sympathy.

**Key words : Christian university, novel education, narration, personal competency, The Cathedral, sympathy**

\* 2020년 11월 19일 접수, 12월 18일 최종수정, 12월 18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평택대학교(Pyeongtaek University) 피어선칼리지 조교수,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oldjoseph@paran.com

## I. 들어가며

이 글은 대학에 교양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학 교과목에서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종합 대학에서 ‘기독교’는 인기 있는 기표가 아니다. 대학의 설립 이념으로서 ‘기독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 풍조가 작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 대학들은 채플, ‘기독교’ 관련 필수 과목, ‘기독교’ 관련 핵심 교양 과목 등을 비롯하여 교양 과목 영역에 다양하게 ‘기독교’ 관련 과목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높다 하더라도 기독교 대학이 대학의 설립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해 교육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정신을 공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되 지상의 척도로 측량할 수 없는 ‘기독교’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기독교 대학 당국이 당면한 교육 과제 중 하나다.

평택대학교는 19세기 말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전도자이자 해외 선교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아더 피어선(Arthur Tappan Pierson, 1837-1911) 박사를 기념하여 1912년에 세운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모태로 한 종합 대학이다.(이덕주, 2010) 평택대학교의 교양 교육 과정은 기초 교양 과목으로 편성된 ‘대학 필수 교양’, 핵심 교양 과목으로서 배분 이수제로 수강하는 ‘PTU 교양’, ‘교양 선택’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대학교는 7개의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였다. 7개의 핵심역량<sup>1)</sup> 중 대학의 설립 이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역량은 ‘인성 역량’<sup>2)</sup>이다. 대학 당국은 ‘기독교’의 성경 교육이 ‘인성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평택대학교 교양 대학인 피어선칼리지는 대학 핵심역량의 ‘인성’을 ‘이타적 인성’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역량 요소에는 ‘긍정적 자아상’, ‘바람직한 대인 관계’, ‘공동체 가치’ 등을 두었다. ‘이타적’이라는 말이 ‘기독교’ 이념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는 사회에서 ‘기독교’가 강조할 수 있는 품성이라고 본 것이다.

평택대학교 교양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목인 「경건 실천」과 2학점 필수 과목인 「기독교 알기」가 있다. 「경건 실천」은 채플

1) 인성, 의사소통, 지식융복합, 협업, 글로벌, 문제해결, 개척·도전 역량이 있다.

2)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CE 대학의 핵심역량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인성 역량’은 ‘창의 융합 역량’과 ‘글로벌 역량’에 이어 세 번째로 강조하는 역량이었다(이민정, 2016).

(chapel)이며 「기독교 알기」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선택적 필수 과목으로 편성된 핵심 교양 영역인 「PTU 교양」의 「심(心)」 영역에 「인성」과 관련한 교과목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문학과 기독교」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 「기독교」와 「인성 역량」을 교수하려는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즉, 문학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삶의 문제를 살펴보며 아울러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수업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 수업에서 「기독교」라는 기표는 학생들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다. 수업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여느 기독교 대학과 마찬가지로 평택 대학교가 설립 이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세(敎勢)는 구한말에 확산되었다. 그 동력은 「기독교」 신앙이, 스러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돌이킬 수 있다는 민중들의 바람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 학원 역시 그 바람을 안고 설립되었다. 성경 학원은 당대에 「복음 전도와 성경 교육」(Biblical education for evangelism)이라는 목적과 동시에 「민족과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였다. 3·1 운동과 6·10 만세 운동 때 송창근, 유재현 등 성경 학원 재학생들이 항일 저항 운동에 참여하였고 항일 민족 의식으로 무장한 학감들의 지도를 받으며 진행되었던 1920-30년대 성경 학원 학생들의 전국 순회 전도 활동은 민족 개량을 목적으로 한 농촌 계몽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이덕주, 2010: 374-375). 그런 점에서 평택 대학교 교수자로서 「기독교」 이념은 수업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가치이다. 문제는 「기독교」를 어떻게 전하느냐다.

「기독교」가 대학의 설립 이념으로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1912년에 구현된 「기독교」의 이념을 100년이 지난 2020년에 고스란히 보존해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꼭 그래야 하는지 질문할 사항이다. 우리가 보존할 것은 당시 그 이념이 가졌던 가치이지 그 이념 자체가 아니다. 1912년의 「기독교」 이념은 민족 구원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가치를 지녔으나 2020년의 「기독교」 이념에서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만약 교실에서 그러한 의미를 호소했다가는 반감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에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수업 모델에서 착안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수업 시간에 소설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와 그 가운데 현재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 역량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이야기에서 만나는 삶

하비콕스(Harvey Cox)는 1980년대 초, 하버드 대학의 학부에 신설된 ‘윤리적 사유(Moral Reasoning)’ 분과에 예수에 관한 과목을 편성하자는 제안에 응하며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다. 하버드 대학이 ‘윤리적 사유’ 분과를 창설한 이유는 학생들이 남북 전쟁의 원인에 대해 잘 알고 훌륭한 화학 실험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윤리적 책임 아래 실행하지는 못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었다(Cox, 2010: 11-12). 그는 예수를,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촉구하는 랍비(rabbi)로 설정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이곳’에서 논의해야 할 생생한 텍스트로 만들어 냈다. ‘기독교’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며 부딪치는 문제와 유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Cox, 2010: 42).

이때 하비콕스가 주목한 것은 복음서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이야기(narration)’였다. 그는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논의에 착안하여 예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윤리적 사유를 하고 나아가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교실 안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누스바움은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문학을 가르쳤다. 로스쿨 학생과 함께 문학 작품에서 공적인 윤리를 찾으며 그들이 미래에 법정에서 논리를 보존하면서 공감의 정신을 팽개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 한 것이다. 또한 ‘문학적 상상력(literary imagination)’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누스바움에 따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해결하고자 씨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Nussbaum, 2013: 16)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도덕 감정론』을 ‘공감(共感: sympathy)’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한 다.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천성(nature)에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다.

상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타인이 처한 상황에 놓고 스스로 타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상상한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방식은 마치 우리가 타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와 동일한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써 타인의 감각에 대한 어떤 관념을 형성하며, 비록 그 정도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타인의 것과 유사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Smith, 2018: 4).

나의 고통은 오로지 나만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상상’이란 능력이 있어서 나의 고통을 타인이 어느 정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내가 근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이야기나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훈련되고 계발

된다. 텍스트 속 등장인물의 처지에 나를 이입하여 읽으며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공감’은 단지 감정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넘어선 이타적인 감정이며 우리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리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강의실에서 보편적인 언어로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으며 이야기(narration)를 담은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타인의 삶을 상상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으로서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예수를 랍비로 규정하고 복음서를 이야기로서 접근했다는 것은 ‘기독교’를 교리나 이념의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고를 추구하는 텍스트로 바라본 것이다. 하비록스의 교실에서 그 텍스트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었고 세상을 넘어서는 삶의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보편적인 언어로 가치를 전달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누스바움의 교실에서 소설 텍스트는 나를 넘어 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였다. 그렇게 열린 시야는 이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평택대학교 ‘PTU 교양’에 속한 과목인 「한국 문학과 기독교」에서는 과목 이름에 ‘한국 문학’이라고 텍스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 수업 초반에 미국 소설인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대성당(Cathedral)」을 다룬다.<sup>3</sup> 이 작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이라는 보편적 우리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기독교’가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교과와 전체 취지를 학생들에게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수업 시간에 소설 「대성당」을 읽으며 ‘기독교’를 다루면서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I. 경계를 허문 만남 -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1981)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애틀랜틱Atlantic』 1981년 9월호에 발표된 소설이며 1982년 전미 최우수 단편소설로 선정되었다(Scianicka, 2012: 702). 이 작품은 작중 화자, ‘나’가 시각 장애인 로버트(Robert)를 이해하고 그와 공감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나’의 아내는 시각 장애인에게 글을 읽어주는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로버트와 만났다. 로버트는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아내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사이여서 ‘나’는 로버트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러한 ‘나’가 로버트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며 로버트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는 것이 「대성

3) 「대성당」 읽기는 수업 2주차에 진행된다. 해당 주차의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나'가 로버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공감의 의미를 살피고 아울러 기독교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은 수업 방식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1. 학생들이 작품을 읽고 오게 한다. / 2. 수업 시간에 전반적으로 작품 내용에 대해 살피고 그 작업이 끝나면 로댕의 작품 제목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맞히게 한다. /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한다.

당」의 내용이다.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었기에 독자는 이러한 ‘나’의 변화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나’가 로버트와 공감하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로버트의 기품 있는 태도와 인격 때문이다. ‘나’는 시각 장애인을 가까이 본 적이 없었다. 영화에서 본 것이 경험의 전부이다. ‘나’가 생각한 시각 장애인 은 검은 색안경을 껴고 연기를 보지 못하기에 담배를 피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콤플렉스에 주눅이 들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만난 로버트는 그렇지 않았다. 우선 검은 색안경을 끼지 않았다. 그리고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만만했다. 담배를 피웠고 ‘나’가 권유한 마리화나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었으며 ‘나’를 격의 없는 표현인 “이 사람아”(Bob)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 즉 ‘나’가 시각 장애인에게 갖고 있던 편견과는 다르게 로버트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자세를 지닌 사내였던 것이다.

아내는 ‘나’와 재혼이었다. 전남편은 그녀의 첫사랑이었으며 군산복합체에서 근무한 공군 사관이었다. ‘나’는 전남편보다는 로버트에 신경이 더 쓰인다. 아내는 로버트를 돕던 일을 그만둔 후에도 녹음 테이프를 이용하여 로버트와 교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전 남편과 헤어진 일들, 현재 남편인 ‘나’와의 만남과 관련된 내밀한 일들을 아내는 로버트에게 녹음 테이프로 시시콜콜히 전했다. 그만큼 아내에게 로버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대성당」에서 ‘나’와 로버트의 ‘만남’은 앞서 ‘나’의 아내와 로버트의 ‘만남’의 위에서 이루어진다. 흥미롭게도 이 ‘만남’들에서 ‘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만남들, 특히 ‘나’와 로버트의 ‘만남’에 배경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대성당」은 ‘손과 손의 만남’과 ‘기독교’가 이야기의 중심 역할을 한다.

### 1. ‘손’과 ‘손’의 ‘만남’

「대성당」에서 ‘만남’은 ‘손’으로 표상된다. 먼저 시각 장애인 로버트와 작중 화자, ‘나’의 아내의 ‘만남’을 살펴보자. ‘나’의 아내는 시각 장애인에게 각종 보고서를 읽어주는 일로 로버트를 만났다. ‘나’의 아내가 일을 그만둘 때, 로버트는 아내에게 얼굴을 만져도 되는지 물었다. ‘나’의 아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로버트는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다. 아내는 일 년에 한두 편씩 시를 쓰는데 ‘나’에 따르면 그것은 대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난 후에 하는 행동이다. 아내는 로버트가 자신의 얼굴을 만진 경험을 시로 썼다.

우리가 서로 사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내게 그 시를 보여줬다. 그 시에서는 그녀는 그의 손가락들과,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자기 얼굴 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떠올렸다. 그 시에서 그녀는 그때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 맹인이 코와 입술을 만졌을 때 마음 속으로 무엇이 지나갔는지 말하고 있었다. 내가 변변찮은 시라고 생각했다는 것만은 기억난다. 물론 그걸 말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내가 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일 수도 있다. 뭘 읽으려고 할 때 내가 시집을 펼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은 인정한다.

**어쨌든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 그러니까** 사관후보생은 어린 시절부터 연인이었다 (Caver, 2014: 288-289; 강조는 인용자).

로버트가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만의 특별한 작별 의식이었다. 아내는 그 작별 의식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 의식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유대와 공감이라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아내의 경험, ‘나’는 불쾌하다. 아내의 시를 ‘변변찮은 시’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의 시 읽기 경험에 대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을 보면 그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화제를 전환하며 아내의 전남편을 수식할 때 사용한, “어쨌든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라는 표현이다. 말 그대로 공군 사관이었던 아내의 전남편은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다. 그러나 이 표현이 로버트가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 장면을, ‘나’가 상기한 다음에 나온 것을 보면 ‘나’는 아내가 로버트에게 “몸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할 것도 없이 ‘나’의 불쾌함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나’는 로버트가 이래저래 불편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 두 번째 ‘손’ 장면에서 우리는 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로버트가 오면 함께 볼링을 치러 간다고 하거나 로버트의 아내의 이름이 ‘뷰라’(Beulah)라는 것을 듣고 ‘니그로’(Negro)라며 인종차별적 용어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아내는 로버트가 ‘나’와 아내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아내 뷰라를 임파선 암으로 떠나 보내고 시작한 여행의 일환이라고 하며 로버트의 삶에 대해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준다. 로버트는 지금, 상처(喪妻)를 한 상황이라는 것이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녹인다. 그리고 ‘나’는 로버트를 이해하고자 ‘상상’을 한다.

여기까지 듣게 되자, 그 맹인이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았을 삶의 행로가 얼마나 가엾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여인을 상상해보라. …(중략)… 그러다가 죽음 속으로 빠져들던 그 순간, 그녀의 손 위엔 그의 손이, 그의 먼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테나-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상상일 뿐이지만-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랬을 테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무덤으로 직행하고 있다고(Caver, 2014: 292-293).

‘나’는 아내에게 로버트와 뷰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혼자된 로버트의 처지도 안타깝거니와 그간의 결혼 생활, 즉 서로 보지 못하고 살며, 사랑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로버트와 뷰라의 결혼 생활과 뷰라가 임종할 때의 장면을 ‘상상’한다. ‘상상’의 장면은 임종을 할 때 두 사람이 손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하필이면 손을 맞잡는 것을 떠 올린 것은 그 손 중의 하나가 아내의 얼굴을 만졌던 로버트의 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이 갖는 의미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손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시각 장애인 손의 촉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감지한다. 뷰라의 손은 맞잡은 손이 로버트의 손이기에 더 많은 것을 표현하려 했을 것이고 로버트의 손은 생의 마지막 간절함을 담은, 그 표현들을 충분히 감지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나’의 ‘상상’은 로버트를 만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나’는 시각 장애인 로버트를 만나 ‘공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세 번째 언급할 ‘손’ 장면은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등장한다. 작품의 결론을 이루는 부분이다. ‘나’와 로버트는 함께 밥을 먹고, 담배와 마리화나를 핀다. 그리고 ‘대성당’에 대해 소개하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함께 본다. ‘나’는 티브이 화면에 흐르고 있는 ‘대성당’의 모습을 매우 열심히, 성실하게 로버트에게 말로 설명한다. 그리고 결국 화면으로 보고 있는 ‘대성당’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 이때 로버트는 ‘나’에게 두꺼운 종지와 펜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두꺼운 종이가 집에 없자, 양파를 넣어 둔 쇼핑백을 가지고 올 정도로 로버트의 청을 성심성의껏 수행한다. 그리고 로버트의 요구에 따라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손을 어른이 잡고 글을 쓰는 것처럼 ‘나’는 로버트의 펜 든 손을 잡고 티브이에 나오는 ‘대성당’의 모습을 그린다.

맹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대성당을 그리고 있어. 나하고 이 사람이 함께 만들고 있어. 더 세계 누르게 나.” 그가 내게 말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는 말했다. “좋아. 이 사람, 이제 아는구먼. 진짜야. 자네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젠 순풍에 돛을 단 격이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조금만 더하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진짜 만들게 되는 거야. 팔은 아프지 않은가?” 그가 말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그려보게나. 사람들이 없는 대성당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Caver, 2014: 310)”

로버트와 ‘나’가 손을 잡는 장면은 로버트가 주도한다.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로버트의 손을 잡고 대성당을 그린다. 눈을 감으라고 하여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It’s really something”)이라고 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느낀 것이다. 추측해보자면 눈을 감았으니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살아가는 방식을 설핏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누군가와 공감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념하여 볼 것은 ‘대성당’ 건물을 그리고 나서 로버트가 ‘사람

들’을 그려야한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그는 ‘대성당’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품 말미에 로버트와 ‘나’는 공감을 이루었다. 그러나 둘의 모습을 의아해 여기는 아내처럼 독자들 역시 둘이 맺는 공감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림짐작할 따름이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도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로버트와 ‘나’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이 그다지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때 작품과 독자인 학생들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마치 ‘대성당’을 말로 설명할 때 로버트와 ‘나’가 경험한 어려움과 비슷하다. 이 장면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로버트와 ‘나’ 사이에 일어난, 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은 ‘대성당’의 또 다른 주요 요소인 ‘기독교’ 장면을 조명할 때다.

## 2. ‘만남’의 배경으로서 ‘기독교’

‘대성당’에서 ‘기독교’는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처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로버트와 뷰라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이다. 하객은 주례를 서는 목사와 그의 부인, 둘뿐이었다. 이것은 작중에서 아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요약 제시로 표현된다. 미국에서 결혼을 교회에서 하였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문화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하객 없이 목사 주례로 교회당에서 열린 결혼식은 ‘기독교’의 종교 색채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출하면서 외로운 결혼식을 교회당과 목사 내외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나’와 로버트의 ‘대성당’에 관한 티브이 시청이다. 다음은 티브이를 보면서 로버트와 ‘나’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괜찮네. 이 사람야.” 맹인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뭘 좀 물어봐도 되겠지? 예, 아니요라고만 말하면 되는 간단한 질문이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지. 따지는 건 아니야. 자네가 여기 주인이니까. 나는 그저 자네에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신앙심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물어보면 실례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가 고갯짓을 볼 수는 없었다. 맹인에게는 윈크나 고갯짓이나 마찬가지다. “뭘 믿는 건 없다고 봐야겠쥬.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Caver, 2014: 307)”

로버트의 질문은 ‘나’가 열심을 다해 ‘대성당’을 말로 설명한 다음에 나온 것이다. 즉 ‘나’는 마음 속

에 있던 로버트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었으며 로버트는 자신에게 ‘대성당’을 언어로 설명해 주려 애쓰는 ‘나’의 노력을 본 후다. 로버트는 ‘나’에게 신앙심이 있느냐고 묻는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묻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시시껄렁한 대화와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진지하면서도 현재 삶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서 삶의 본질에 다다른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대답으로 확인된다. ‘나’는 신앙이 없다고 하면서 “가끔은 힘듭니다.”고 답한다. 삶의 힘듦을 고백한 것이다.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로버트의 질문은, “지금, 행복한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좀처럼 가까운 사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무례하게 느껴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로버트의 장점은 당당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아울러 들 수 있는 장점은, 그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말을 잘 듣고 좋은 말을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혹 상대방이 꺼릴 수도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다. ‘나’는 ‘대성당’을 설명하면서 “그 옛날에는 모두의 삶에서 하느님이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대성당을 지어놓은 걸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한다. 이 말을 근거로 말하면 ‘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으며 그래서 힘들다고 로버트에게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시대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 부러움을 내심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대성당」에서 ‘기독교’는 종교성을 표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등장인물 간 의사소통을 진정성 있게 주조하는 배경 역할을 한다.

마지막 로버트와 ‘나’의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경유하여 나온 것이다. 위와 같이 ‘만남’과 ‘기독교’라는 주제어로 「대성당」을 읽었을 때 감동을 받는 학생도 있고, 심드렁한 학생도 있다. 후자의 학생들은 손을 맞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어떻게 ‘만남’을 경험하고 그것을 ‘대단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말이 작위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카버의 「대성당」이 우리 수업에 적합한 텍스트로서 좋은 점은 학생들의 작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호 텍스트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로댕의 1908년 작품 <대성당(Cathedral)>이다.

#### IV. 하늘로 향한 너와 나의 ‘손’ - 로댕의 <대성당>(1908)

로댕의 작품 <대성당>은 ‘대성당’의 건물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로댕의 조각은 “모텔의 외형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내적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박숙영, 2011:16)고 한다. 그렇다면 로댕은 ‘대성당’의 ‘내적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로댕은 타인과 타인의 손과 손이 서로 맞잡으려 하는 것을 포착하여 조각한 작품에 ‘대성당’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

손들은 고딕 양식의 ‘대성당’ 첨탑(尖塔)의 방향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다.

로댕의 ‘대성당’은 추상적인 성격을 지녔다. 조각의 추상성은 얼핏 보기에 엉뚱해 보이는 해석에 이른다.

<성당Cathédral>에서는 성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오른 손이 성당의 천장의 둥근 맞보와 같은 형태로 서로 닿지 않은 채 볼록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 형상은 이 손들의 주인공인 남녀가 서로 몸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닿고 싶어 하는 그들의 욕망과 그만큼의 주저함을 상상하게 한다. 두 개의 손의 자세가 에로티시즘의 문맥 속에서 읽어내도록 그 표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박숙영, 2011: 58).

박숙영은 로댕의 <대성당>에 성(性)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남자와 여자의 손이 서로 간절히 맞닿으려는 장면을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대성당>만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해석은 엉뚱해 보인다. 그러나 로댕의 작품 이력을 따라가며 볼 때 이러한 해석은 타당성이 있다. 로댕은 성을 암시하는 조각품을 다수 만들었으며 많은 경우 손은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매개였던 것이다. 물론 “손가락이 맞닿은 아래쪽 공간이 대성당의 천장을 연상”(Corbett, 2016: 249)시킨다, “오늘날 세계적인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대성당>에서 로댕은 두 개의 손을 조합하여 대성당의 건축 양식을 형상화하였다”(Röper, 2008: 30), “<성당(聖堂)>이 모두고 있는 손들은 기도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의 느린 동작은 정신과 마음 속으로 신(神)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위로 들려진다”(이오넬 지아누, 1985: 85) 등 제목에 비추어 조각의 형상을 설명한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

흥미롭게도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이러한 <대성당>의 해석을 아우르고 있다. 로버트가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만질 때 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자 ‘나’는 그것을 아내가 “몸을 허락한” 행위로 생각을 한 것이다. 또한 ‘나’의 상상 속에 등장한, 뷰라가 임종 시 로버트와



Figure 1. Auguste Rodin *La Cathédrale* 1908

손을 잡는 장면은 남녀 간 간절한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한 의미가 마지막, 로버트와 ‘나’가 손을 잡는 대목에서는 ‘대성당’의 건물 목적과 관련된 ‘기독교’적인 의미로 전이(轉移)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레이먼드 카버는 로댕의 조각 <대성당>이 갖는 함의를 소설로 매우 잘 표현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카버가 로댕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서사화했다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수업에서는 소설 「대성당」 읽기를 마친 후, 그림1을 제시하고 로댕의 작품이라고만 설명한 채 그 작품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묻는다. 대답은 다양하게 나온다. ‘손들’, ‘맞잡은 손’, ‘손과 손’ 등. 좀처럼 ‘대성당’이라는 답은 나오지 않는다. 한동안 나오는 이야기를 듣다, 조각의 제목이 ‘대성당’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놀람’의 탄성을 지른다. 그리고 교수자는 조각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손은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손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카버의 「대성당」의 결말이 좀처럼 와 닿지 않은 학생들은 두 작품의 유사성을 보고 작품에서 느꼈던 해석의 미진함을 견어낸다. 소설 결말의 모호함에서 눈을 돌려 두 작품의 유사성에 주목함으로써 ‘만남’의 양상과 제목의 ‘기독교’적 특성에 유념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교수자는 토론 주제를 던진다. 즉, 레이먼드 카버는 우연히, 로댕과는 상관없이 ‘대성당’을 손과 관련한 이야기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로댕의 <대성당>을 감상하고 그것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이다. 덧붙여 어떻게 보는 쪽이 두 작품의 가치를 더 높여줄까?에 대해서도 묻는다. 어느 쪽이든 두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80년 거리를 두고 ‘대성당’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혹은 사랑으로 우연히 표현했다는 것으로 로댕의 작품과 카버의 작품은 서로 빛난다. 만약 카버가 로댕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소설화하였다면 카버가 풀어낸 서사적 상상력이 빛을 우선 발하겠지만 그 빛은 곧 로댕의 <대성당>을 되비치기에 두 작품 가치의 상보적 상승 효과는 전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조각과 서사 작품의 차이 나는 성격을 돌아본다. 조각의 추상성과 서사의 구체성을 살피며 각 양식에서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대성당’이라는 ‘기독교’ 이념이 조형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둘의 관계가 우연이든 영향 관계에 있든 간에 ‘대성당’이라는 건물의 목적이 사람과 사람의 공감과 사랑으로 그것도 조각과 서사 양식의 최고 수준의 경지에서 표현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성찰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가.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이 두 작품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대성당의 화려한 이미지보다 교류를 강조함과 동시에 기도에 의미를 두지 않음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가서는 손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임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학번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유○○

나.

저는 로댕의 대성당이 함의하는 바가 “종교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기도나 거창한 십일조 없이도 온정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도 이와 같은 뜻을 글에 담기 위해 일부러 로댕의 작품과 같은 ‘대성당’으로 제목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20학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지○○

다.

로댕의 작품에선 일단 두 손 다 오른손인 걸 보아하니 두 명의 손일 거라 짐작하고, 그 두 명의 손이 마주함으로써 내적인 면에서 무언의 일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공감하는 듯한 느낌이 교회의 근본적 성질과 닮아 있어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20학번 광고홍보학과 공○○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은 ‘E-Class’에서 앞에 제기한 질문을 하고 받은 답이다.<sup>4</sup> 학생들은 A4 1/2 분량으로 답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일부를 제시하였다. 위에 인용한 학생들의 글은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가가는 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공감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서로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한 것이다. (가)와 (나) 학생은 기존 ‘기독교’를 비판하며 로댕과 카버의 작품에 새겨진 사랑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가)는 현 ‘기독교’가 화려함에 치중되어 있고 타인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는 ‘거창한 십일조’라는 표현을 쓰며 ‘기독교’가 물질에 연연한다고 비판했다. (다)는 ‘어루만짐’, ‘공감’이라는 어휘를 두드러지게 거론함으로써 ‘기독교’가 지니는 가치가 따뜻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사고 방향은 로댕과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예술가는 공히 높이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대성당’의 외양을 작파한 후에 온기(溫氣)가 담긴 ‘손’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4) "평택대학교 e-class system". [https://cyber.ptu.ac.kr/ilos/pf/course/submain\\_form.acl](https://cyber.ptu.ac.kr/ilos/pf/course/submain_form.acl) '토론' 방에 다음과 같이 '토론 주제'를 던지고 답을 받았다.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봅시다. 수업 시간에 로댕의 <대성당>과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합시다. 레이먼드 카버가 로댕의 <대성당>의 존재를 모르고 소설 <대성당>을 썼을 경우가 있고, 그 존재를 알고, 그것을 소설로 풀어 썼을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의 어느 경우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더 가치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느 경우인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든지 자유롭게 글을 써 주길 바랍니다." 2019학년 2학기 3개반과 2020학년 1학기 1개반, 2학기 1개반이 참여하여 250여 명의 학생들의 답에서 추렸다.

학생들은 ‘대성당’의 화려한 외양이 ‘기독교’의 본질은 될 수 없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의 일들’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며 내심,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독교’는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본질을 생각하며 현상을 비판하는 것인데 비판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다.

라.

좀 더 깊게 보자면 로댕은 종교적으로 접근하여 사랑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나아가 **영적 교감까지 이뤄낼 수 있는 ‘손’이라는 매개체로 대성당의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게 아닐까요. 이에 카버는 로댕의 메시지를 받고 같은 제목의 대성당이라는 문학 작품으로 보답을 합니다.

20학번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김○○

마.

레이먼드 카버 역시 한 사람의 손이 아닌 주인공인 ‘나’와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손을 맞대는 장면이 있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로댕의 작품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면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은 소통, 교감을 드러낸다. 이것은 대성당을 이해하고 그리는 것이 어려운 로버트를 위해 함께 그림을 그려주는 ‘나’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사람 이상의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대성당)를 만들 수 있음**을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 같다.

-19학번 간호학과 조○○ (강조는 인용자)

위에 인용한 학생들도 앞에 든 학생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대성당’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라)의 학생은 ‘손’을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고 나아가 ‘영적 교감’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매개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진술이다. (마)의 학생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여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자의 의견들이 ‘기독교’적으로 온당하다고 하여 수업 시간에 이 학생들의 의견이 앞의 학생들의 의견보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전자와 후자, 두 갈래 의견이 모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후자는 또 다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

‘기독교’의 가치가 외면받는 상황에 대한 강의실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사랑에 있다고 학생들이 발견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작업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독교’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달라져야 하는 방향은 어느 쪽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람과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한 대화는 카버의 「대성당」을 읽고, 로댕의 <대성당>을 감상한 것이 마중물이 되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소설 「대성당」 읽기가 로댕의 <대성당> 감상과 만나면,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타인과 타인이 서로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예배를 위한 장소인 ‘대성당’이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인식에 이른다. 조각가 로댕과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만남’에 대한 놀람은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계’를 어느 정도 무너뜨린다. 우선 수업 현장에서 ‘기독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고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한다. 또한 그 가운데 ‘나’가 시각 장애인 로버트를 만나 놀라운 ‘공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성찰한다. 그런 점에서 소설, 「대성당」은 좋은 텍스트이다.

## V. 나가며

지금까지 기독교 대학의 문학 관련 교양 과목에서 ‘인성 역량’ 함양과, ‘기독교’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택대학교 교양 대학의 핵심역량 중, ‘이타적 인성 역량’은 ‘인성 역량’을 ‘기독교’와 관련하여 해석했다. ‘기독교’ 세계관이 ‘이타적’인 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때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즉 공감 능력으로 파악하였다. 레이먼드 카버의 1981년 작품, 「대성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는 ‘만남’의 장면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암시적이고 희미하지만 「대성당」의 ‘만남’은 ‘기독교’에 감싸여 있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문학적 상상력이 “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Nussbaum, 2013: 32)이라고 말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는 비장애인 ‘나’가 시각 장애인 로버트를 이해하는 노력,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비장애인 ‘나’의 결핍을 이해하고 안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나’는 아내의 친구이자 시각 장애인인 로버트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로버트가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로버트의 쓸쓸했던 삶을 상상한다. 또한 로버트는 백인 중간 계급 사내인 ‘나’의 삶에서 공허함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준다. 그러면서 둘은 공감에 이른다. 그 공감은 두 사내가 티브이에 나오는 ‘대성당’을 손을 맞잡고 그리는 것으로 표상된다. 1908년 작품,

<대성당>에서 로댕은 ‘대성당’을 타인과 타인이 맞잡은 손이 위로 향하는 것으로 추상하였다. 로댕의 <대성당>과 카버의 ‘대성당’은 모두 ‘대성당’을 사람과 사람이 이루는 ‘사랑’, ‘공감’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은 경계를 넘은 타인과 타인의 ‘만남’이 ‘기독교’의 역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설 「대성당」에 암시적으로 나타난 ‘기독교’를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많은 경우, 로댕의 <대성당>을 보고 학생들은 ‘놀람’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두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대성당’의 가치는 외양의 아름다움과 우뚝 솟은 높이에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있다는 의견에 이르렀으며 나아가 ‘기독교’의 본질에도 같은 평가를 내렸다.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 외에도 소설, 「대성당」에서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비장애인 ‘나’의 교사 역할을 맡는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로버트의 삶은 동정 받아야 할 조건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조건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산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콤플렉스로 생각지 않으며 손님으로 와서 주인인 ‘나’를 배려한다. 그 당당한 삶의 자세와 기품이 진정한 ‘만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학생들의 자존감 부족 문제가 우리 교수자들의 걱정거리이자 화두인데 이 부분은 자존감이 부족한 학생들이 마음에 담아둘 내용이다.

텍스트 읽기와 텍스트 속 인물에 대한 이해 혹은 공감이 ‘인성 역량’의 함양으로 곧바로 직결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수렴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인성 역량’에 대한 교육 자체의 한계이지 우리가 제시한 수업의 한계는 아니다. ‘인성’ 교육은 많은 경우 가르치는 교수자의 성품이나 태도와 관련 있다. 그 성품과 태도를 보며 학생들은 ‘인성 역량’을 키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에만 맡겨 두면 교육 자체가 어려워진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성품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수업 텍스트로 삼는 것이 ‘인성 역량’ 교육에 효과적이다. 수업 현장에서 텍스트에 나타난 ‘공감’과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의 인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기독교’ 인성 함양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연수 역. (2014). **대성당**, Carver, Raymond. (1983). Cathedral. 서울: 문학동네.
- [Kim, Y. S. (2014). *Cathedral*. Seoul:MunhakDongnae. Trans. Caver, Raymond. (1983). Cathedral. Alfred A. Knopf:New York]
- 박숙영 (2011). **프랑스 인체 조각**. 서울: 학연문화사.
- [Park, S. Y. (2011). *French Human Body Sculpture*. Seoul: Hakyounmunwhasa, 16.]
- 이덕주 (2010). 피어선 기념 성경 학원 설립과 초기 역사(1911-1945년). **복음과 신학**, 12, 374-375.
- [Lee, D. J. (2010). The Early History of The Pierson Memorial Bible School. *Gospel and Theology*, 12, 374-375.]
- 이민정 (2016). **ACE 사업 참여 대학의 핵심역량 및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6, 37-38.
- [Lee, M. J. (2016). *A study on the core competencies and practical strategies of the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ACE project*. Doctorial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고영범 역. (2012). **레이먼드 카버: 어느 작가의 생**, Sklenicka, Carol. (2009). Raymond Caver: A Writer's Life. 서울:강
- [Ko, Y. B. (2012). *Raymond Caver: A Writer's Life*. Seoul: Kang Publishing Ltd. Trans. Sklenicka, Carol. (2009). Raymond Caver: Awriter's Life. Scribner:SDL.]
- 김윤수·신인영 공역. (1985). **오귀스트 로댕**. 서울: 열화당.
- [Kim, I. S. , Shin, I. Y. (1985). *Auguste Rodin*. Seoul:Yeolwhadang. Trans. 이오넬 지아누.]
- 김재성 역. (2017).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 릴케의 로댕, 그 절대성과 상실에 관하여**, Corbett, Rachel. (2016). You Must Change Your Life: The Story of Rainer Maria Rilke and Auguste Rodin. 서울:뮤진트리.
- [Kim, J. S. (2017). You Must Change Your Life: The Story of Rainer Maria Rilke and Auguste Rodin. Seoul:Mujintree. Trans. Cobett, Rachel. (2016).*You Must Change Your Life: The Story of Rainer Maria Rilke and Auguste Rodin*. W. W. Norton & Co Inc.]
- 박용준 역. (2013). **시적 정의**, Nussbaum, Martha Craven(1995). Por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서울:궁리.
- [Park, Y, J.(2013). Por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Seoul:Kungree.

Trans. Nussbaum, M. C.(1995). *Por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Boston:Beacon Press]

박세일·민경국 역. (2018). **도덕감정론**, Smith, Adam(1875).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서울:비봉사

[Park, S. I., Min, K. K. (2018).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Seoul:Bibongsa. Trans. Smith, Adam. (1875).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London: William Clowes and Sons]

오강남 역. (2010). **예수 하버드에 오다**, Cox, Harvey(2004). *When Jejus Came to Harvard: Making Moral Choices Today*. 서울: 문예출판사.

[Oh, K. N.(2010).*When Jejus Came to Harvard: Making Moral Choices Today*. Seoul: Moonye publishing Co. Trans. Cox, Harvey(2004). *When Jejus Came to Harvard: Making Moral Choices Today*. Boston: Houghton]

정연진 역. (2008). **오귀스트 로댕**, Lars Röper. (2007). *Auguste Rodin*. 서울:예경.

[Jung, Y. J.(2008). *Auguste Rodin*. Seoul:Yekyong Publishing Co. Trans. Lars Röper. (2007). *Auguste Rodin*. München-Berlin-London\_New York: Prestel Verlag.]

# 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 고찰 -기독교 대학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hristian Personality Competency  
through Novel Education : Focused on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조경덕 (평택대학교)

## 논문초록

이 논문은 기독교 대학에서 소설 교육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논의하며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학생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기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대학은 설립 이념인 ‘기독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책임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이념은 ‘인성’ 교육과 관련 있다. P 대학에서는 ‘인성’을 기독교적으로 ‘이타성’으로 해석하였다. 교양 교육으로서 소설 교육은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이타성’을 ‘공감 능력’으로 본다면 소설 교육은 ‘인성’ 교육에 적합하다. 그런 점에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1981) 읽기를 제시했다. 이 작품은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감을 그렸다. 그것을 두 인물이 손을 맞잡고 ‘대성당’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로댕의 <대성당>(1908)은 손과 손의 만남으로 표상되었다. 두 작품의 유사성은 학생들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며 공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이끈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 소설 교육, 이야기, 인성 역량, 대성당, 공감



##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 -일터 신학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Spirituality Maturity by the Types of Workplace Church - From the Standpoint of Workplace Theology -

김 동 연 (Dong-Yeon Kim)\*\*

#### ABSTRACT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identifying today's Christian Faith and Labor Relations. That the period is in full swing after the Reformation gradually, the truth began to be clarified in the field of Christian life. It's studying another aspect of work-labor of God's Calling in the tradition of theologians and Calvinism and the Reformed Church with Representing Modern Reformed Theology.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reformatory view of labor is take it as a lesson from the Bible to create a culture that enhances God and promotes the flourishing of mankind. On this basis, traditionally recognized at the field of the Korean church I accept the pastoral pattern of work-labor. I studied the issue of expansion for the pastoral ministry of the workplace church. Weekend ministries(Sat., Sun.) include weekday ministries(from Mon. to Fri). It was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Also, issues related to the basic form of church patterns such as "a gathering Church"(gathering on weekends) and "a Scattering Church"(Scattering Church on Weekdays, etc.), Currently, the cause of the decline in the Korean church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los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ver a leader. This was written as a presentation of the measures and directions, such as the reform of pastoral Transformational leadership.

**Key words :** workplace theology, workplace church, workplace mission,  
spiritual maturity of the workplace ministry, weekend church, weekday church

\* 2020년 08월 07일 접수, 12월 16일 최종수정, 12월 18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저자의 신학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잡뉴스솔로몬서치 솔로몬일터교회 대표이사/담임목사, 서울 서초구 방배로 39 미주플라자1층, ceo@jobnews.co.kr



## I. 서론

한국교회가 복음을 수용하면서 성경(성서)과 교회의 매개를 통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과 믿음을 이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안에서 교리, 사상, 신앙, 삶,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공동체를 이뤄왔으며,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세계 기독교 현장에서 이루지 못한 한국교회의 급성장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장의 풍성한 성과를 누리고 자만하다가 어느 사이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현 상황을 맞으면서 그에 대하여 반성과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서구 교회로부터 전수 받았던 복음은 완전무결함(Perfect)이었으며,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순수하게 따랐다면 오늘과 같은 참담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대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직장에서, ‘일터 사역’과 ‘일터 교회’라는 이슈가 회자(膾炙)되기 시작했으며, 그 관심과 필요가 증폭되었다. ‘일터 교회’와 ‘일터 사역’은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할 주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믿음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왔다. 그중 믿음에 속한 노동과 그에 관계된 다양한 견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과 ‘노동의 관계’(Labor Relations)를 규명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God’s Calling)이라는 일-노동의 측면을 강조해왔다. 장 칼뱅(Jean Calvin)의 개혁적인 시각에서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며 문화를 창출(創出)하는 것이다. 철학적 지식은 그동안 인류에게 보편적 진리로 인식되어온 논리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천박한 하위(下位)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절하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유대-기독교적 전통은 성경의 창조 기사에 따라 노동의 기원을 신성(神聖)하게 본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노동이 힘겨워졌으나 기독교적으로 일-노동의 관점은 고대 사상에 비해서 절대적 긍정(an Absolute Affirmation)이라 할 수 있다(김동연, 2019: 3). 이에 저자는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일-노동’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삶과 일터 속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가를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연구해 가겠다. 본 논문은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 (일터 신학의 관점에서)의 논문을 축약(縮約) 수정 보완하면서, 일터 교회의 모든 이슈를 연구할 것이다. 기독교적 일의 개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신학적 논리에 비춰보면서,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일터 교회’와 ‘일터와 관계된 각 주제가 구성원들에게 영성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지’의 설문지 분석과 함께 ‘일터 교회 공동체의 사역 방향 제시’와 ‘향후 연구 과제’까지를 제시하며 부족하나마 본 논문이 한국교회와 사회적 일터를 거룩함으로 정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기여도에서 상당한 헌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 II. 문제제기

### 1. 일터 신학과 본 연구 주제의 문제점

근래 일터 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일터사역을 실행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와 충신교회와 사랑의교회 등 대표적 대형교회들이 일터사역을 주 사역으로 운영하고 졸업을 앞둔 신대원생들도 이런 일터 사역 프로그램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일터교회의 개척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터 신학은 지금까지 사변적인 신학에 매여 있는 관계로 사역과 영성을 위한 실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오지 못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정한 ‘일-노동’의 신학적인 이슈와 함께 정당한 학문적 논리를 갖추고, 오늘의 일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성 성숙’(Spirituality Maturity)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김동연, 2019: 4). 특히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국가의 교회보다 성경(성서)적 정통성과 보수성에 강한 신학적 정서가 진하게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현장에 젖어 있던 우리에게 ‘일터 교회’라는 주제가 선뜻 우리에게 와 닿지 못하는 감(感)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교회, 특히 80년대 초반부터 미국교회 현장에서 ‘일터 교회’를 이슈화하고 그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교회도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일-노동’의 특성상 쉽사리 환경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일터 교회와 그에 대한 사역은 한국교회 현장과 일터 현장에서 워낙 거세게 요구되므로 자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터 신학’과 ‘일터 교회’의 관계성을 연구해 갈 것이다. 나아가서 세계 선교현장에서 ‘일터 교회’를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터선교사로서 직업을 가지고 입국하여 그 나라에서 일하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 이에 전통적인 선교사역 패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터 사역의 전환을 제시해 가겠다.

### 2. 목회 방법 전환요구-주말 사역에서 주중 사역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의 목회는 ‘주말’(Weekend)에 집중한 사역이었다. 실제로 주중(Weekdays) 5일(월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사역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시도조차 하기 힘든 이질적인 목회패턴이었다. 따라서 교인들의 주중 생활을 위한 일터 사역이 어찌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안적 사역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주말의 하루나 이틀 정도의 사역보다는, 주중 5일 정도의 사역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가 목회(사역)자에게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주일 사역을 외면하고 아예 주중으로 돌리자는 말은 아니다. ‘주말 사역’에서 ‘주중 사역’으로 확대(Expanding from ‘Weekend Ministry’ to ‘Weekday Ministry’)하자는 요구로서 이런 문제는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패턴’(The Pastoral Pattern)을 요구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일-노동’의 개념

(1) 하나님이 진지하게 생각 ‘하는 일-노동’개념은 거룩한 흔적

Table 1. Theorem of Concept of ‘Work-Labor’

주제Topic	정의Definition	설명Explanation	관념Concept	비고etc
하나님 God	천직 Calling	Calling-인간, 일하도록 부름 받음 자신의 일을 인간에게 위임함	암묵적 계시	인간-일의 파트너
플라톤 Plato	질료 Matter	형상-높은 차원의 이데아로 봄 일-낮은 차원의 질료로 봄	낮은 질료	일손 놓은 상태 -최고 인정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일-목적 아님 Not Work- Purpose	한가(행복) 얻기 위해 바쁜 일함, 행복은 여유를 제공함, 일과 반대	땀이 행복 조건 못됨	한가함 가치- 행복 그 자체
일반 철학 Philosophy	야만적 Barbaric	인간이 할 짓이 못됨 인간-최고 본질은 관조하는 철학	얕잡아 봄	이분법 사고- 철학, 일 분리

폴 스티븐스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일꾼들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창1:28). 일은 선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거룩하므로 피조물인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다. 우리는 인간의 조상에게 맡겼던 일을 장구한 세월을 지난 오늘날에도 위임받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2) ‘일터 교회’의 용어 및 개념

##### ① 일터 사역 공동체의 발생

기독교는 일-노동을 성경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사역으로 행해지던 ‘일’(Labor)을 ‘일터 교회’와 연결시켜 정제된 개념으로 정리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일을 일반적인 일과 믿음 안에서의 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순전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피터 와그너(Peter C. Wagner)는 그의 저서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 *The Church in the Workplace*』에서 ‘일터 안’(In the Workplace)에서의 ‘교회’를 언급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자는 그의 연구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하였다.

Table 2. The Whurch and the Whurch in the Workplace

일터 안의 교회	The Church In the Workplace
The Church of The Workplace	<b>일터의 교회</b> 혹은 <b>일터교회</b>

## ② 일터 교회의 용어 사용 동기

와그너는 이 용어를 2001년 6월 미네소타에서 진행된 일터 사역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장터'(Market-Place)와 '일터'(Workplace)라는 두 개념 속에서 직장(일터) 안에 교회로서 '일터 교회'의 용어를 정했다. '신앙과 일' 등 중요한 저술 작업을 통해 '일터'에 대한 사역을 전개한 오스 힐먼(Os Hillman)은 '일'과 '신앙'을 구별했던 기존의 종교적 통념을 깨뜨리는 자발적 운동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기업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 [포춘]지에 소개했다. 이런 운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로서 이제는 매우 타당한 이유로 밝혀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추정완(2002: 72)은 노동과 직업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Job)을 소명(Calling)과 동일한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성서)적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Avodah'(아보다)이다. 이 낱말은 예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다. 또 '서비스'(Service)라는 영어 단어는 이 뜻을 담고 있는 최적의 단어로서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Service) 것이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수단인 것을 알게 된다(김동연, 2019: 16).

Table 3. The Meaning of Work-Labor

Labor-Avodah Meaning	עבודה(Hebrew) Originating in Avodah
노동-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리스도의 <b>일터 공동체(교회)</b> 중심사역

## 2.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

### (1) 일-노동에 대한 구약의 관점

구약성경이 말하는 일-노동의 관점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것은 아주 신성하다. 구약 성경은 일에 대한 시각으로서 시종일관 일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일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순수하고 신성한 것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퇴색되었음을 말해준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

3:17-19).” 그러나 성경은 일을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가르친다(시128:1, 2). 성경은 인간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더욱 부각시키고 인간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대적인 명령에 준거하기를 바라고 있다(창1:28).

## (2) 일-노동에 대한 신약의 관점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일에 대하여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일을 ‘그리스도의 노동’ 즉 그분의 사역과 기적들과 구속 사역에 비추어 기술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 구속 사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구속을 행하기에 예수님도 함께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요6:29).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목수로 사역하신 사실을 통해 성경은 일이 인간에게 필요하고 선하다는 교훈을 전달해 준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연적으로 행해야 하는 요소이다(요9:1-5). 그러므로 일-노동은 사명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자유 가운데서 이끌어 가야(Ferguson & David F. Wright, 2001: 190-192)한다. 구구원 이전의 일은 무의미하거나 자기 중심의 육적인 삶이었지만, 구원 이후의 일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요소임을(김동연, 2019: 21)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마9:37, 38).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며(고전3:9), 그들의 우선 과제가 복음을 진척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노동을 근실하게 하는 것이 서신서에서는 단순한 의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감사하여 복음에 걸 맞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빌1:27).

## 3. 신학으로서 일에 대한 고찰

### (1)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일의 신학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일’로서의 신학(Theology)이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신앙과 논리로 파악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말한다. 그러나 신(Theos)에 관한 합리적 탐구(Logos)[네이버 지식백과-브리태니커 사전] 그 근본은 성경의 원리에 속한 것은 분명하다. 직장 안에서 일터사역 공동체 교회의 문제는 일의 신학적인 이슈와 떼어 수 없는 관계로 출발한다. ‘일터 사역’, ‘일터 교회’, 그리고 ‘일터 선교’의 주제들은 일터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에서 신학을 동시에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의 신학’은 근대적 신학 개념에서 살필 수 있다(김동연, 2019: 31). ‘일의 신학’은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장 칼뱅(Jean Calvin), 그리고 쾰빙글리(Ulrich Zwingli) 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신학에 소개된 것이다(Codsen, 2004: 4-5). 우리는 그런 계기로 일의 신학(the Theology of Work)우리는 그런 계기로 일의 신학(the Theology of Work)을 접하게 되었다. 일

의 신학 역시 성경의 원리에 속한 것이므로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16세기 초반의 개신교는 변증신학과 조직신학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그러다가 복음증거의 선교신학은 18세기 후부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이슈는 실천신학적인 이슈로 다뤄지다가 19세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일터 사역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일터 신학자 폴 스티븐스는 그의 저서를 통해 성경 인물의 삶 속에서 일의 신학을 찾아내고 있다. 일의 신학적인 문제, 일터 속의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구속사를 통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폴 스티븐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창조, 타락, 구속과 그 성취로 엮인 성경적 신학을 깨닫게 되면서 일의 신학을 통해 직업에 관한 조직신학과 개인의 성화를 위한 영성 신학을 제시하고 있다.

## (2) 노동-일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적 관념

중세 사람들은 인간의 노동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익을 얻을 일시적인 수단으로 여겼을 뿐, 세상을 떠난 후에 다가올 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필요한 요소로는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은 지엽적인 문제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하디는 그의 저서에서(Hardy, 1990: 71)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노동을 달리 보았다(Hardy, 1990:71). 인생을 향한 거룩한 뜻의 핵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장 칼뱅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서의 일-노동은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장 칼뱅은 개혁주의의 노동-일에 대한 신학적인 관념을 말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행하는 방편으로 인간이 선택 노동-일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했다(히3:21).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바로 인간이 온전하도록 자신의 삶을 위하는 일이며, 그의 가족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살후3:10-13). 즉 장 칼뱅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과 가족을 위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3) 일터 그리스도인의 구속과 일-노동

타락한 인간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며, 인간의 ‘일-노동’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노동이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일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미치듯 노동의 의미도 달라졌다. 일-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이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 신학사상이며, 개혁주의자들의 ‘일-노동’관이다. 장 칼뱅은 노동을 기독교의 구속적인 삶과 관련시켰다. 일-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참



여하는 것으로 구속을 실천하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호(2014: 178-179)의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에서 칼빈은 루터와 같이 노동-일을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나는 이웃을 위해서 이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은 제네바 시민에게 귀가 아프도록 들려준 그의 모토(Motto)였다. 장 칼뱅의 금욕적 직업윤리의 중요 특성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직업의 몰아적(沒我的) 헌신을 위한 것으로서 직업의 헌신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구속함에서 주어진 자신의 일-노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실한 정신 적 자세와 태도(Jean, Institv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p.104)라고 했다.

#### 4. ‘일터 영성’의 정의와 ‘영성 성숙’

##### (1) ‘기독교 영성’의 정의

‘영성’(Spirituality)이란 무엇인가? 김세윤(2014)은 서울영동교회에서 실시한 강의에서 일반적인 영성은 인간이 종교나 수련을 통한 정신적 삶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배수영(2002: 67-69)은 <내면세계로의 여행>에서 ‘기독교적인 영성’을 인간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규정하였다. 민경배(1991: 114)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눈을 바로 뜨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지적하였다. 퍼거슨과 라이트(Ferguson & Wright, 2001:743)는 이 거룩한 삶이 신령한 영역으로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면서 베푸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며 인간의 창조적인 본질을 되찾게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영성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아가 절대적인 그분을 찾아가는 속성을 말한다. 이 속성은 영성을 형성하는 거룩한 삶과 일을 하며, 절대적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고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일터에서 영성(靈性)의 본질을 찾게 되므로 ‘일터 영성’(Workplace Spirituality)이라고 단언하게 된다(김동연, 2019: 25-26). 퍼거슨과 라이트(Ferguson & Wright, 2001:747)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신학적 영성과 신학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추구의 속성으로서 절대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영성으로서의 신학’은 성경을 근간(Original Source)으로 하는 원리(Principle)로서 바르게 인식해야 할 가치가 있다. 바른 삶의 원리가 일반적인 법에 근거한다면 영적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 그의 말씀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김동연, 2019: 24). 그것은 곧 신학의 원리로 발전하고 조직화되어 신학적인 영성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영성은 총체적인 삶을 낳게 되므로 영성의 진정한 삶을 요구하게 된다. 신학의 원리에 입각한 삶을 행하므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하는 원리가 작용한다.

##### (2) 일터 영성 성숙



영성이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불완전한 인간이 '성숙'을 추구하는 속성으로서 '온전'을 향해 추구해 간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온전함'의 단어 의미는 "최종적 단계까지 추구함"을 의미한다. '온전함'은 헬라어 τέλειος(Blank, 1998: 143)의 번역서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의 행위를 말한다(마5:48). 성경 신학자 박윤선은 "믿음은 선을 발생시키고 선을 행하지 않고는 믿음이 식어 진다"고 말하며, 또한 "믿음과 행위는 실제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구원의 공로는 될 수 없으나 믿음의 한 방면의 성분으로 되어있다."고 역설했다. 저자는 박윤선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믿음과 행위는 공히 '영성'으로 귀결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기독교 영성은 신앙의 체험(Experience), 훈련(Discipline), 실천(Practice)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삶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합일(合一)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다." 영성은 성숙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규범은 성경이다. 성경이 명령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그 명확한 규범 안에서 영성은 시작하고 발전한다. 이를 가리켜 '구현(具現)된 신앙을 위한 말씀을 본받는 행위로서의 기독교적인 영성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Knowing), 사랑하고(Loving), 경험하는(Experiencing)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있는 원천적 동기이며 성숙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김동연, 2019: 25).

## 5. 일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요구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경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피거슨과 라이트(Ferguson & Wright, 2001: 1060)는 당연히 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롬12:2).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생각의 전환을 말한다. 진정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밖으로부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 변화의 요구에서 와그너는 말한다. "새로운 경영 혁신이 소개되면 어떤 이들은 최초의 수용그룹이 되고, 그 다음 중간 수용그룹이 따르며, 다음으로 후기 수용그룹이 형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어떤 혁신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그룹이 4개 그룹 가운데 3개 그룹이라면 대다수가 변화의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모여 있었던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일하는 교회'의 새로움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회는 '일터 교회'를 목적으로 마땅히 새로운 것을 수용할 환경이 조성된 사회 환경 속으로 그 날개를 한껏 뻗어 나갈 채비를 해야 한다(김동연, 2019: 26).

### (1) 일-노동은 하나님의 소명

일터 사역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명(천직, Calling)으로 정의한다.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제롬이 말했다. 정성구 박사는 “당신을 선교사로 불렀다면 최대의 영광으로 인정하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의 ‘일’(수고)에 대한 몫을 다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κλήσις(헬, 클레시스)의 용어에는 부르심이라는 말이다. 이 용어에는 사회적인 부르심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직업’, ‘지위’가 포함되어 있다. 한 개인의 직업이나 지위에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부가되고 있다. 일의 본질에 대하여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개인의 지위는 자유나 속박이 결말로 다가온다. 일-노동에는 자연적인 삶(Natural Life)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일에 대한 경건함을 갖는 사람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경건함으로 범사에 유익함’을 얻는다(딤후 4:8).

## (2) 패러다임 요구-주말 사역에서 주중 5일 사역

국제일터사역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Workplace Ministries) 대표인 오스 힐만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일터 영성사역에 관한 기관은 단 한 군데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후 약 8년 동안에 수백 개에 이르다가 지금은 14, 000개 정도의 기관들이 신앙과 일을 통합하여 일한다고 했다. 이에 관련하여 풀러신학교 교수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는 1980년대 미국의 기독교기업연합(Fellowship of Companies for Christ)의 단체와 국제기독교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ristian Chamber of Commerce)와 같이 중요한 일터 사역이 조직되었지만, 괄목한 만한 상승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전통(기성) 지역교회에서 주일예배 등 일주일에 하루만 집중적으로 사역하던 목회 패러다임을 한 주간의 주일에 한정되던 7일 동안의 교회사역에 한정되던 사역을 주 5일 사역으로서의 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김동연, 2019: 43).

# IX. 연구의 조사 대상자 특성

## 1. 전체 설문참여 현황-일터교회와 일터기관

본 논문 [일터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엔 약 40개 이상의 설문에 대한 통계에 관한 도표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 핵심적인 통계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몇 개 정도만 소개했다. 설문지를 모으고 통계하고 분석하면서 매우 실체적인 일터교회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수립하면서 한국교회의 일터교회에 대하여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도

록 최선을 다했다.

Table 4. Workplace Church & Workplace Company

구분 Sortation		일터사역의 교회 Workplace Ministry Church				일터교회의 기관 Workplace Church company				Percentage (%)
		사랑의 교회 SaRang Church	충신 교회 Chung Sin Church	오륜 교회 Oryun Church	성광 교회 Sung Kwang-Church	한국 교세라 Korean Kyocera	우성 염직 WooSung Dyeing	한만두 식품 Hanmandu Food	잡뉴스 솔로몬 서치 Jobnews-Solomon Search	
Survey Re-spondents	Frequency (명)	139	27	8	27	240	114	94	32	(100)
	Percentage (%)	(20.5)	(3.9)	(1.2)	(3.9)	(35.2)	(16.7)	(13.9)	(4.7)	
Total		201(29.5)				480(70.5)				681 (100)

#### (1) 통계코드 설명

① 본 논문의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681명이다. 각 교회나 기관별로 설문에 응답해준 현황은 소개한 위의 도표와 같이, ‘일터사역교회’ [사랑의교회, 충신교회, 오륜교회, 성광교회]까지 4개 교회이며, ‘일터사역기관’은 [한국교세라, 우성염직, 한만두식품, 잡뉴스솔로몬서치]까지 4개 기관이다. 전체 8개가 설문에 참여했다. 각 기관의 설문 참가자에 대한 수치와 그에 대해서는 백분율(%)로 나타났다.

② 그들은 모두 일터에 관련한 사역을 하는 교회이거나 일터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와 훈련 등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기관이다.

③ 일터사역교회는 정기적으로 일터공동체에 대한 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터사역기관은 정기적으로 직장예배로 모이고 있었다.

#### (2) 통계코드 분석

① 일터사역하는 4개 교회의 설문참가율은 [사랑의교회20.5%, /충신교회3.9%/오륜교회1.2%/성광교회3.9%]이며, 일터사역하는 4개 기관(직장)은 [한국교세라35.2%/우성염직16.7%, /한만두식품13.9%/잡뉴스솔로몬서치4.7%]로 응답해 왔다.

② 전체 설문 참가자 681명 중, 일터사역을 하는 4개 교회의 설문 참가자는 201명(29, 5%)이다. 그중 사랑의교회는 139명이며, 20.5%나 된다. 사랑의교회는 일터 사역자를 전문적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주 약 1, 000명 이상 일터에 대한 사역을 훈련하면서 일터교회로 사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미래 목

회 먹거리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

③ 회사 내에 일터교회를 세운 4개 기관(직장)의 설문 참여율은 480명(70, 5)이며, 그중 4개 기관 한 국교세라는 681명 중 240명이 참여한 율은 35.2%나 되는 것은, 매주 월요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 사원 150명 이상이 일터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설문참여율이 높았다.

④ 대부분 일터교회에서 일터사역을 하거나 기관(직장) 내 일터예배를 드리므로 이번 설문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준 비율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 공동체에서 일터사역으로 더욱 사역의 활기를 찾게 될 비전으로 보이기도 한다.

## 2. 연령대별-설문참여 현황

Table 5. Survey Participation Statistics &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구분 Sortation	내용 Content	빈도(명) Frequency			백분율(%) Percentage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연령 구분 Age Group	20, 30대 이상 Over 20s and 30s	82	22	104	11.9	3.1	15.0
	40, 50대 이상 Over 40s and 50s	162	145	307	23.7	21.8	45.5
	60, 70대 이상 Over 60s and 70s	13	58	74	1.9	8.8	10.7
	Other	98	98	196	14.4	14.4	28.8
	Total	355	326	681	51.9	48.1	100

### (1) 통계코드 설명

- ① 연령대별 설문응답자는 [20대에서 70대까지 남성 355명, 여성 326명]이다.
- ② 연령대별의 참여자수(빈도수)로서[남성은 355명, 여성은 326명 합계 681명]이 참여했다.
- ③ 각 연령별 수치는 [20대 이상 35명/30대 이상 69명/40대 이상 159명/50대 이상 148명/60대 이상 71명/70대 이상 3명/기타(무응답) 196명]이다.

### (2) 통계코드 분석

① 재치 있는 분석을 위해 각 세대(단계)별을 두 단계로 묶어서 작성한 수치는 [2, 30대 이상 15%/4, 50대 이상 45.3%/6, 70대 이상 10.9%/기타(무응답) 28.8%] 나타났다.

② 위 통계를 백분율로 나타내듯이 [4, 50대 이상이 45.3%는 2, 30대 이상의 15.0%와 6, 70대 이상 10.9%에 비하면, 약 4배 이상으로 높은 응답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일터 교회와 사역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의 일터 교회와 미래 구원사역의 왕성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③ 각 연령(세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빠짐없이 참여하므로 일터 사역이 지역교회별로, 기관 혹은

회사별로도 대체 목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3. 신앙생활기간, 교회출석기간-설문참여 현황

Table 6. by Faith Life's Times & Church Attendance's Times Statistics

구분 Sortation	내용 Content	빈도(명)Frequency			백분율(%) Frequency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신앙생활 기간 (신생기간) Faith Life's Time	10년 미만 Less than 10s	68	28	96	9.8	4.2	14.0
	10년 이상-20년 미만 More than 10 to 20s	42	21	63	6.2	3.0	9.2
	20년 이상-30년 미만 More than 20 to 30s	38	31	69	5.6	4.5	10.1
	30년 이상-40년 미만 More than 30 to 40s	37	54	91	5.4	8.0	13.4
	40년 이상-50년 미만 More than 40 to 50s	21	45	66	3.0	6.7	9.7
	50년 이상 More than 50s	9	39	48	1.3	5.7	7.0
	Others	139	109	248	20.5	16.1	36.6
Total		681			51.8	48.2	100
교회출석 기간 (교출기간) Church Atten- dance's Time	10년 미만 Less than 10s	90	55	145	13.3	8.2	21.5
	10년 이상-20년 미만 More than 10 to 20s	43	81	124	6.3	11.9	18.2
	20년 이상-30년 미만 More than 20 to 30s	25	41	66	3.6	6.1	9.7
	30년 이상-40년 미만 More than 30 to 40s	18	21	39	2.6	3.0	5.6
	40년 이상-50년 미만 More than 40 to 50s	6	9	15	0.8	1.3	2.1
	50년 이상 More than 50s	4	4	8	0.6	0.6	1.2
	Others	168	116	284	24.6	17.1	41.7
Total		681			51.8	48.2	100

#### (1) 통계코드 설명

① 위의 통계코드는 ['신앙생활기간(신, 생기간)'과 '교회출석기간(교, 출기간)'특성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했다.

② 내용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각 세대(연령)별로 시작하여 50년 이상, 그리고 기타(무응답)로 수치를 나타냈다. 빈도수(명)는 세대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③ [10년 미만]의 ‘교출기간’ 21%/ ‘신생기간’은 14%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교출기간’ 18%/ ‘신생기간’ 9%/21년 이상 30년 미만은 ‘교출기간’ 9%/ ‘신생기간’ 11%/31년 이상 40년 미만은 ‘교출기간’ 9%/ ‘신생기간’ 11%/ 41년 이상 50년 이상(미만)은 ‘교출기간’ 4%/ ‘신생기간’ 17%/ 기타(무응답)가 ‘교출기간’ 42%, ‘신생기간’ 36%로 각각 그 수치를 나타냈다.

④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본 통계코드에서 백분율(%)로 나타내 주고 있다.

⑤ 신앙생활기간과 교회출석기간과의 차이의 특징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 (2) 통계코드 분석

① 10년 미만(십대)이 교회출석기간 21%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치를 드러낸 것은 신앙의 초기로 볼 수 있으며 신앙 초기의 뜨거운 열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열기를 누구러 뜨리지 못한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②따라서 일터 교회는 십대들 구성원이 많을수록 젊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수 있음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

③ 연령대로서 중심이 되는 세대가 '21세 이상 30세 미만'이다. 이들의 수치가 교회출석기간 9%와 신앙생활기간 11%로 별 차이 없이 드러난 것은, 신앙의 훈련이나 일터 사역을 하는 교회나 일터 예배로 모이는 세대들의 중심축으로서 신앙이나 훈련이 새로운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본다.

## V. 분석결과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모두 8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4개 기관은 지역교회에서 일터사역을 진행 중인 교회로서 ‘사랑의교회’, ‘충신교회’, ‘오륜교회’, ‘성광교회’이다. 나머지 4개 기관은 일터사역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한국교세라’, ‘우성염직’, ‘한만두식품’, ‘잡뉴스솔로몬서치’이다. 여기에 작성된 도표와 그에 따른 분석은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응답항목 중 상위권을 모아서 통계코드로 작성하여 분석해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로서 설문항목의 주제별은 4개를 다음과 같이 한글 제목과 아울러 영문 제목을 함께 담아 소개한다.

첫째, [일터 영성 성숙](Workplace Spiritual Maturity)/

둘째, [일터 신앙(신학) 성숙] (Workplace Faith Maturity)/

셋째, [일터 신앙훈련 회심](Conversion of Faith Training) /

넷째, [일터 예배사역](Workplace Church Worship Ministry)/

## 1. ‘일터 영성성숙’ 설문응답 상위권

Table 7. Top Statistical Code for Survey Responses of Workplace Spiritual Maturity

일터 영성 성숙 Workplace Spiritual Maturity-WSM						
주제 이니셜 코드 Subject Initials Code	설문지 항목 주제 요약 Survey Topic Summary	설문지 평가 상위권 선택 Top-level of high of Survey			백분율 (%) Percentage	전체빈도 (명) Frequency
		③보통 Usually	④긍정 Positive	⑤매우긍정 Very positive		
W-1	일터 현장 의무 Workplace Field Duty	250(36.7)	212(31.1)	131(19.2)	87.0/100	681
W-6	공동체 의식 인식 Get Community Spirit	171(25.1)	309(45.3)	129(18.9)	89.3/100	
W-5	일, 하나님 소명 Works, God's Calling	214(31.4)	195(28.6)	123(18.0)	78.0./100	
W-2	예수까지 성장 Grow to Jesus	223(32.7)	229(33.6)	121(17.7)	84.0/100	
W-14	일터교회 참여 Attend Workplace Church	201(29.5)	286(41.9)	97(14.2)	85.6/100	
W-7	일터환경 극복 Overcome Workplace	193(28.3)	283(41.5)	94(13.8)	83.6/100	

### (1) 통계코드 설명

① 본 통계코드는 주제- ‘일터 영성 성숙’(Workplace Spiritual Maturity)이다. 이니셜은 ‘WSM’이며, 본 통계코드의 주제 이니셜 코드는 ‘W’로 사용하여, 6개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심플하게 ‘주제요약’으로 달아 놓았다(예: W-1일터현장 의무).

② 본 설문 통계코드대로 전체 설문에 참가한 수(명)는 681(전체빈도)명이다.

③ 설문항목에서 응답한 자료를 근거로 [③보통, ④긍정, ⑤매우긍정] 3개 항목의 상위권을④ ‘보통’, ‘긍정’, ‘매우 긍정’의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위의 통계코드대로 각각 수치로 작성하여 소개한 대로 한 항목 질의마다 6개의 상위권 응답자료를 통계한 것이므로, 그 수치를 확인하면서 설문 응답자의 6개 주제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2) 통계코드 분석

① 위의 설문 통계코드에서 ‘W-1 일터 현장 의무’(87.0%)가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낮은 수치인



‘긍정 항목 131(19.2%)’는 위의 통계코드에서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보여준다. 주 5일 동안 일터에서 신앙생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계기로 ‘영성 성숙’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② ‘W-6 공동체의식 인식’에서 ‘④긍정’ 부분이 309(45.3%)의 수치는 세속적인 직장생활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고 있으며 모임에서 영성 성숙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찾을 수 있다.

③ 이어서 ‘W-14 일터교회 참여’(85.6%), ‘W-2 예수까지 성장’(84.0%), ‘W-7 일터환경 극복’(83.6%)는 일터교회의 이슈를 직장 내에서 긍정적으로 극복해 가는 기반(基盤)을 가지고 있으며, ‘일터교회 참여’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슈이며, ‘일터환경 극복’ 이슈 역시, 그 관심을 더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 2. ‘일터 신앙(신학) 성숙’ 설문응답 상위권

Table 8. Top Statistical Code for Survey Responses of Workplace Faith Maturity

일터 신앙(신학) 성숙 Workplace Faith Maturity-WFM						
주제 이니셜 코드 Subject Initials Code	설문지 항목 주제 요약 Survey Topic Summary	설문지 평가 상위권 선택 Top-level of high of Survey			백분율 (%) Percentage	전체빈도 (명) Frequency
		③보통 Usually	④긍정 Positive	⑤매우긍정 Very positive		
F-4	부활 내세 신앙 Resurrection, The next world, Faith	163(23.9)	210(30.8)	166(24.3)	79.0/100	681
F-12	일터예배 믿음 Workplace worship, Faith	172(25.2)	228(33.4)	156(22.9)	81.5/100	
F-5	예수재림 신앙 Jesus Second Coming Faith	193(28.3)	194(28.4)	145(21.2)	77.9/100	
F-1	예수 구주 직업관 Jesus Savior Vocation view	201(29.5)	204( 29.9)	142(20.8)	80.2/100	
F-3	신적 섭리 인정 Recognition of God's Providence	178(26.1)	228(33.4)	128(18.7)	78.2/100	
F-11	복음증거 비전 Evangelical Evidence Vision	211(30.9)	215(31.5)	118(17.3)	79.7/100	

### (1) 통계코드 설명

- ① 두 번째 통계코드는 주제- ‘일터신앙(신학) 성숙’(Workplace Faith Maturity)이다.
- ② 이니셜은 ‘WFM’이며, 본 통계코드의 주제 이니셜 코드는 ‘F’로 사용하여, 6개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심플하게 ‘주제 요약’으로 달아 놓았다(예: F-1).
- ③ 위의 통계코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설문지 응답항목은 ‘F-12 일터예배 믿음’(81.5/100%)으로 나타났다.
- ④ 다음 높은 수치로는 ‘F-1 예수 구주 직업관’이다.

### (2) 통계코드 분석

- ① 가장 높은 수치의 응답항목 ‘F-12 일터예배 믿음’(81.5/100%)로 나타난 것은, 이 항목에서 ‘④ 긍정’의 수치, 228(33.4%)로 보여주면서 일터현장에서 예배훈련을 통해 믿음이 더 든든하게 형성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 ② 다음 높은 수치, ‘F-1 예수 구주 직업관’은 직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투철한 믿음의 직업관의 제시한다. 그리고 3가지 항목(보통/ 긍정/매우긍정)에서도 보여주지만 ‘예수 구주 직업관’이 골고루 그 수치를 드러내 준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가진 직장인이 많을수록 신앙 영성이 높고, 한국의 기업 분위기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③ 이어 뒤따라서 ‘F-11 복음증거 비전’(79.7%), F-4 부활 내세신앙 ‘(79.0%), ‘F-3 신적 섭리 신앙’(78.2%) 순으로 고르게 나타난 수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교육을 성경적, 교리적, 신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해 왔다는 증거(證據)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지금 한국사회를 심히 혼잡하게 하는 이단 등(특히 신천지)의 출현으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양육은 이제, 일터사역기관과 일터사역을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바르게 이어가야 하겠다.

## 3. ‘일터 신앙훈련 회심’ 설문응답 상위권

Table 9. Top Statistical Code for Survey Responses of Conversion of Faith Training

일터 신앙훈련 회심 Conversion of Faith Training-CFT					
주제 이니셜 코드 Subject Initials Code	설문지 항목 주제 요약 Survey Topic Summary	설문지 평가 상위권 선택 Top-level of high of Survey			전체빈도 (명) Frequency
		③보통 Usually	④긍정 Positive	⑤매우긍정 Very positive	
					백분율 (%) Percentage

C-7	신앙수정 노력 Faith-modification Efforts	206(30.2)	276(39.6)	77(11.3)	81.1/100	681
C-6	일터신앙 도움 Help from Workplace	210(20.8)	237(34.8)	70(10.2)	75.8/100	
C-5	영적 회심 성숙 Spiritual Repentance Maturity	212(31.1)	233(34.2)	69(10.1)	75.4/100	
C-2	일터 신앙 상태 State of Faith in Workplace	335(49.1)	154(22.6)	58(8.5)	80.2/100	
C-4	영적 회심 경험 Spiritual Repentance Experience	228(33.4)	173(25.4)	58(8.5)	67.3/100	
C-8	말씀 적응 노력 Word Adaptation Effort	233(34.2)	240(35.2)	54(7.9)	77.3/100	

### (1) 통계코드 설명

① 세 번째 통계코드는 주제- ‘일터 신앙훈련 회심’(Conversion Faith Maturity)이다. ② 이니셜은 ‘CFT’이며, 본 통계코드의 주제 이니셜 코드는 ‘C’로 사용하여, 6개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심플하게 ‘주제요약’으로 달아 놓았다(예: C-1).

③ 위의 통계코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설문지 응답항목은 ‘C-7 신앙수정 노력’ 백분율(81.1/100%)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터교회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쳐가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 (2) 통계코드 분석

① 더욱 이 항목에서 ‘④긍정’의 276(39.4%)의 수치는 “그렇게 하겠다”는 신호로 약 절반 정도의 동의적인 면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일터교회가 모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온전치 못한 신앙적인 문제를 자구적(自救的)으로 고쳐가겠다는 의지로서, 앞으로 일터교회의 영성의 수준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②다음 ‘C-2 일터 신앙 상태’의 항목에서, ‘③보통’ 335(49.1%)의 수치는 위의 통계코드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일터교회 현장이 보통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직장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을 복음화시켜 영성(신앙)훈련을 통해 더욱 향상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③ 그 뒤를 이어 ‘C-8 말씀적응노력’과 ‘C-6 일터신앙도움’, 그리고 ‘C-5 일터회심성숙’의 항목들은, 본 논문 연구 주제의 ‘일터교회 영성 성숙도’와 궤를 같이하므로 영성 성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조성되어있는, 긍정의 신호로 여겨진다.

#### 4. ‘일터 예배사역’ 설문응답 상위권

Table 10. Top Statistical Code for Survey Responses of Workplace Church Worship Ministry

일터 예배 사역 Workplace Church Worship Ministry-WCWM						
주제 이니셜 코드 Subject Initials Code	설문지 항목 주제 요약 Survey Topic Summary	설문지 평가 상위권 선택 Top-level of high of Survey			백분율 (%) Percentage	전체빈도 (명) Frequency
		③보통 Usually	④긍정 Positive	⑤매우긍정 Very positive		
WC-2	예배 공간 확보 Securing Space for Worship	185(27.1)	195(28.6)	93(13.6)	69.3/100	681
WC-5	정기 일터 예배 Regular Workplace Worship	181(26.5)	235(34.5)	88(12.9)	73.9/100	
WC-6	일터 주일 성수 Keeping Sunday at Workplace	188(27.6)	139(20.4)	84(12.3)	60.3/100	
WC-9	일터 예배 산 제사 Living Workplace Worship	207(30.3)	169(24.8)	82(12)	67.1/100	
WC-4	CEO 말씀 전파 CEO Preaching	178(26.1)	246(36.1)	78(11.4)	73.6/100	
WC-7	일터 예배 헌금 Offering Workplace Worship	210(30.8)	141(20.7)	78(11.4)	62.9/100	

##### (1) 통계코드 설명

① 네 번째로 제시한 통계코드는 주제- ‘일터 예배사역’이며, 영어는 ‘Workplace Church Worship Ministry’이다. 이니셜은 ‘WC’이며, 본 통계코드의 주제 이니셜 코드는 ‘WC’로 사용하여, 6개 ‘설문지 항목’에 대하여 심플하게 ‘주제요약’으로 달아 놓았다(예: WC-1).

② 위의 통계코드의 주제에 걸맞는 설문항목 중에서 ‘WC-5 정기 일터 예배’는 백분율(73.9/100%)로 나타났다. 그 안에서 ‘④긍정’에 대한 설문응답은 235(34.5%)의 수치가 나온 것처럼, 절반 정도의 긍정적인 동의가 도출되었다. 이 항목은, “직장에서 일터예배는 주 1회 드리며, 경영상황 소통과 교육훈련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다”는 의견이다.

##### (2) 통계코드 분석

① 한주 단위로 직장 속에서 예배로 모이면서 해당 회사의 경영에 관계한 이슈를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으로서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직장예배 시간에 성경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을 시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면서 일터교회 공동체의 ‘영성 성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음 보여 주었다.

② 다음 설문항목은 약간 민감한 이슈로 ‘WC-4 CEO 말씀전파’라는 주제이다. 일터교회의 “담당 목사 부재 시 일터예배에서 CEO가 대신 말씀전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물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백분율(73.6/10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응답한 8개 기관과 교회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결과를 보여준다.

③ 누구보다 직원을 잘 아는 CEO가 직원들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에 직원들이 ‘영성 성숙’으로 옮겨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였다.

## VI. 일터 교회 공동체의 14가지 사역 방향 제시

Table 11. Outline - Presenting the Direction of Workplace Church Community

Direction		Contents
A. 동일한 사역엔 아낌없이 동참하라 Join the same ministry generous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A-1 부르심에 응하도록 정화상태로 놔두라 A-2 공동체로 모였다면 선한 목표를 정하라 A-3 참여하는 행동의 표준화에 맞추라 A-4 당신 옆, 믿음의 동료와 협력하라
B.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Starting small in need of deter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B-1 알아보기 쉬운 '작은 일'을 주시하라 B-2 어부의 천직 의식, 그물 낚는 것을 보이라 B-3 일터 사역자로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라
C. '노동-일'로서 당신의 존엄성을 보이라 Show your dignity as a labor-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C-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구원을 보이라 C-2 그리스도인에게 정체감을 확인하라 C-3 '일-노동'으로 존엄을 보이는 일을 하라 C-4 일터교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확보하라
D. 같은 주제 다른 형식을 갖추라 Have the same subject and different fo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D-1 믿음이라는 같은 주제로 모이라 D-2 다른 형식으로 표출하라 D-3 속죄의 이슈를 부활 이슈로 적용하라

영성 성숙의 목적을 세운 연구자는 '일터교회 공동체 실천방향'이라는 4가지 큰 주제에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로 14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미래 한국교회의 강력한 대안으로서 일터(직장) 교회

와 사역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 1. 동일한 사역엔 아낌없이 동참하라

### A-1 부르심에 응하도록 평화상태로 놔두라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Christians become God’s People)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일터교회의 사역이면서, 한국교회의 일터 현장에서 메인 사역으로 발전하길 연구자는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A-2 공동체로 모였다면 선한 목표를 정하라

일터 교회 역시 다수로 모인 공동체로서 서로의 영적 상태의 균형(바란스)를 맞추며 동반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공동체로 모여 서로의 선한 일을 도모해 가는 사역 방안을 제시해 본다.

### A-3 참여하는 행동의 표준화에 맞추라

리더의 지휘 하에 행동이 표준화로 맞춰져 있었으며 참여하는 행동이 공동적이었다. 이로써 한국교회의 변혁적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김동연, 2019: 162).

### A-4 당신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와 협력하라

일터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아마 그 직장에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동무(member)이며 그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이뤄낼 수 있다.

## 2.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 B-1 당신이 알볼 수 있는 ‘작은 일’을 주시하라

사람이 알볼 수 있는 ‘작은 일’을 주님께서 주시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공생애 사역의 조력자이므로 우선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나중 창대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

### B-2 어부의 천직 의식-그물 낚는 것을 보이라

가장 보잘 것 없는 일에 집중하는 그 자세가 바로 베드로의 참모습이었다. 그물 낚는 모습이 언제나 깨끗하고 비워진 그릇 이듯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아낌없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

### B-3 일터 사역자로서 자기에게 치열하라

일터사역의 사역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힘은 ‘영성’(Spirituality)에 있다. 또 그에 대한 영성의 성숙한 덕목이 준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일터 교회의 사역을 새롭게 추진해 갈 수 없다.(김동연, 2019: 164). 그러므로 항상 자기에게 관대하지 말고 치열하여 위대한 일에 동참해야 하겠다.

### 3. ‘일-노동’으로서 당신의 존엄성을 보이라

#### C-1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으로 구원을 보이라

저자는 ‘영성 성숙’을 향한 존재감을 확인하는 고백이라고 본다(김동연, 2019: 166). 이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높은 자존감에서 얻어지는 ‘영성 성숙’으로 일터 교회의 구원사역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C-2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일터 그리스도인

구원을 자신도 완성해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과 더불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 공동체에 바라고 계신다. 이 바람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일터 그리스도인은 ‘영성 성숙’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 C-3 ‘일-노동’으로 존엄을 보이는 일을 하라

일-노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더욱 존엄을 보이는 위대한 일에 이르게 된다. 이런 덕목을 추진해 가기 위해 ‘일터 영성 성숙’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터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영성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C-4 일터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엄성을 보이는 일

영성의 강한 힘으로 성숙하고 그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 일터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으로 영성의 정체감을 보이면서 노동-일을 통해서 일터 교회 공동체를 완성해 가야 한다.

### 4. 같은 주제 다른 형식

#### D-1 믿음이라는 같은 주제로 모이라

믿음의 한 주제로 한 분의 믿음의 대상 앞에 부름 받고 모인 일터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목적, 하나의 행동 등으로 모였다. 그 ‘하나’라는 객관적 단어가 앞의 주제로, 주관적 단어인 정신, 목적, 행동이 전제되어 공동체(모임)가 되었다. 즉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영성의 목적에 걸 맞는 거룩한 모임으로서 일터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이 ‘영성으로 성숙’하여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한 천국 백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 D-2 다른 형식으로 표출하라

일터 교회는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이방 세계현장과 상황, 대상은 제 각각이지만 그들의 요구와 형편에 맞춰 생명의 복음을 적용하면서 증거 해야 하겠다.

#### D-3 속죄의 이슈를 부활의 이슈로 적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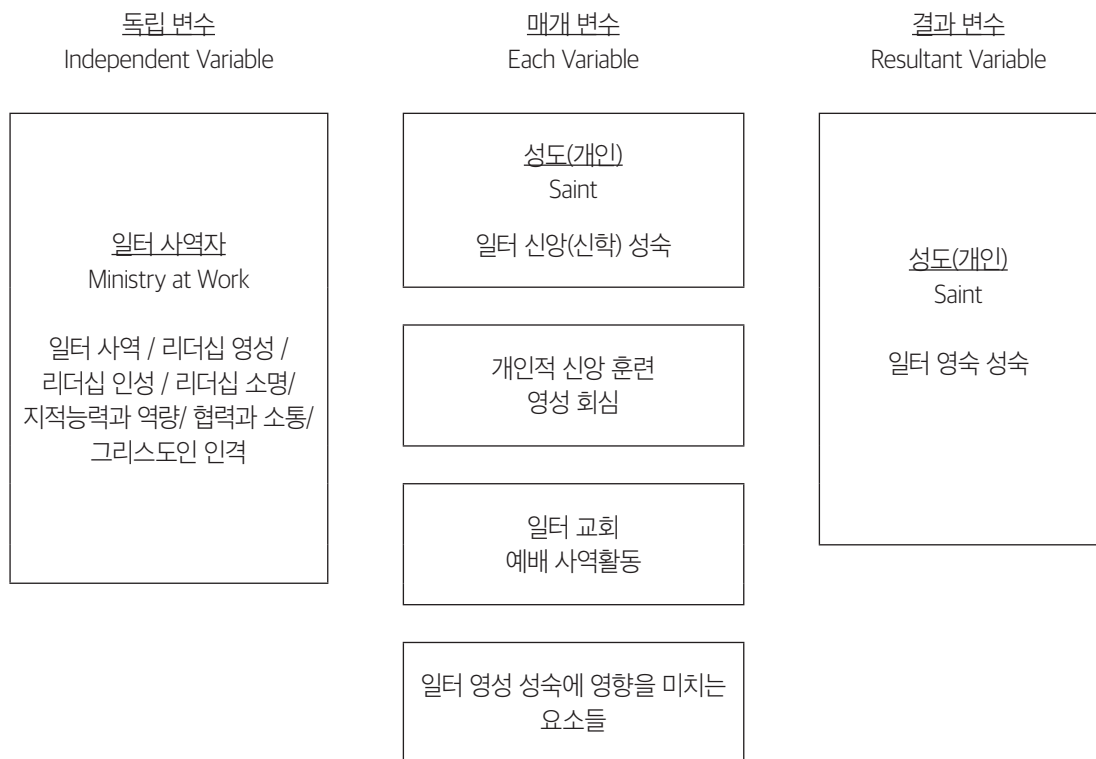
일터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자각심(Self-Awareness)을 가져본다. 속죄의 구원의 이슈를 부활의 이슈로 영성을 강하게 성숙하게 하여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적용하면서 일터 공동체를 확장해 가길 바란다.



## Ⅶ. 본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의 향후 연구 주제는 일터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와 ‘성도(개인)’이다. 이 두 그룹의 ‘독립 변수’는 ‘일터 사역자’로서 ‘매개 변수’인 ‘성도(개인)’으로서 어떤 역할로 인하여 그 ‘결과 변수’인 그리스도인(성도)이 ‘일터의 영성 성숙’을 나타내는 상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에 대한 사역과 역할에 대하여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로서 ‘일터 교회 공동체’의 중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하여 사려 깊은 밑그림을 그려보고 계속적인 일터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기여하여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되는 기적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하락세의 원인을 교회 지도자(목회자)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지도력의 상실을 다시 회복시켜서 현장감에 잘 적응하는 영력(靈力) 있는 지도력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그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를(김동연, 2019: 171). 제시하는 데 있다.

Table 12. Workplace Minister, Variable of Saint



## 1. 독립 변수: 일터 사역자

다음과 같이 일터 사역자와 일터 교회 성도와의 관계성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먼저, ‘독립 변수’이다. 독립 변수로서 일터 사역자를 핵심 주제로 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 변수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립변수는 비교되어지고 있는 다른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를 말한다. 주변에 관계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원인(原因)으로서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에 있어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기초로 이론구축, 수량적 조사(數量的調査)、질적 조사방법론(質的 調査方法論)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별개가 아니고 근저(根底)에 있는 방법론은 똑같다.

### (1) ‘일터 사역’의 리더로서의 사역을 말할 수 있다

‘일터 사역’, 이것은 전통적 교회의 지도력이 아니고 변형적인 지도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좀 더 나은 지도력도 아니며, 새로운 틀(패러다임)의 교회 지도력에서 발출되는 그런 지도력이어야 한다. 일터 사역 자체가 새로운 정서와 문화, 그리고 환경에서 발휘돼야 한다. 더욱 리더십의 대상인 성도(개인)가 전통적인 교회 성도(개인)과 전혀 다르므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사역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저촉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일터 사역을 추진하는 주체의 ‘독립 변수’의 진가를 나타내야 하므로 일터 사역의 본질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 (2)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의 영성(Spirituality)을 들 수 있다

일터 사역자는 모든 환경이 일터 사역만 추진할 수 있도록 상황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돌발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일터(직장)는 해당 기업이 흑자 속에서 발전해 갈 때 모든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일터 사역자로서의 이중 고통이 주어지게 된다. 전통적 교회처럼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건이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에서는 누구나 영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도록 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터 교회는 이와 반대로 예배를 비롯하여 영적인 역할을 하면서 ‘일-노동’을 추진해 가는데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매우 강한 영성으로 쉽 없이 훈련하여 영성 성숙(성장)을 이루고 그 조건으로 일터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 (3) 지도자에게 팔로워를 이끌어 가는 데 ‘인성’(Personality)을 간과할 수 없다

믿음 이전에 인간됨의 근본적인 요소는 ‘인성’(Personality)이다. 각박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 환경에서 인성에 좌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성(인격)은 전통적인 교회 지도력 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다양한, 그리고 각박한 현실에 스트레스로 가득 찬 회중(성도)들이 교회와 각종 프로

그램 중에 위로와 권면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지도자의 인성은 그 어떤 요인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독립적인 변수로서 작용해야 한다. 역시 일터 교회의 지도자 인성은 성도(개인)와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므로 일터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요소이다. 모름지기 일터 교회 지도자 인성(성품)은 영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영향력에 의하여 그룹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4) 지도자의 소명감(召命感)으로 응답해야 한다

미국 사회의 존경받는 교육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는 소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소명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고 했다. 구약의 지도자나 백성, 그리고 신약의 12제자와 초대 교회 성도 등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그 일에 충실한 것만이 일터 교회 지도자의 바른 자세이다. 일터 교회 지도자에게도 이런 소명감(召命感)이 확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터 교회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부르심에 맞춰서 일하므로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폴 스티븐스의 말대로 “깊은 영성, 단순한 삶, 현실적인 경건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찾길 바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영적 여정이다.” 세상이 지식, 주의, 사상, 힘, 재물, 등에 춤을 추더라도 소명을 받은 일터 교회 지도자는 소개되는 말씀처럼 요동하지 않고 실천하는 삶으로서 소명을 이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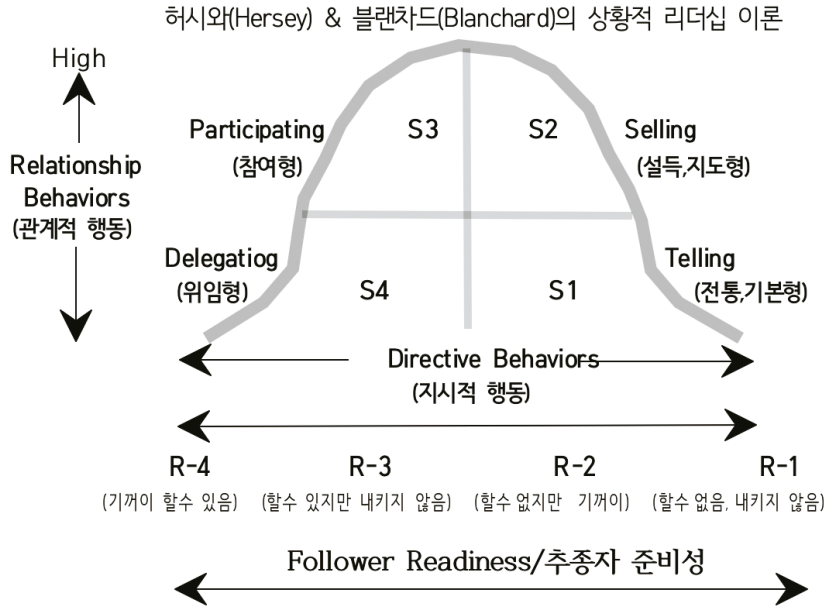
#### (5) ‘협력’과 ‘소통’은 리더십에서 평행을 이루는 덕목이다

현대적인 지도력은 수직성이 아니라 수평(평행)성이다. 이 이론 중 4가지 형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위임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룹의 리더십의 성경적 목표는 ‘S-4 위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S-1, S-2, 그리고 S-3의 세 과정은 S-4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정확하게 거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생략하거나 건너뛰면 마지막 과정에 이르더라도 불완전한 리더십 상태가 된다. 결국, ‘S-4 위임형’은 위의 <Table 13>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평행을 의미하고 있다. 성공적인 일터 교회 리더십으로서 ‘협력’과 ‘소통’의 덕목은 어떠한 변수에서도 변질되거나 흔들림 없으며 오직 독립 변수로서 다른 특성과 혼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평행성의 리더십은 일터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 (6) ‘그리스도인 인격’은 일터 교회 지도자에게 매우 포괄적인 이슈이다

신약은 “신적인 성품에 참여자들”(벧후 1:4)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처음 부르신 그 자리는 자연인 상태였으나 이런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 상태로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치고 다듬어서 종래에는 ‘신적인 참여자’로서의 자격의 기준을 인격(성품)에 기준을 두겠다는 것이다. 바로 인격의 온전함을

Table 13. Leader Behaviors(지도자 행동 유형)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목표로 정해 본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섭리해 가시며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러한 과정으로서 일터 교회 지도자의 인격은 이에 합당한 인격의 훈련과정을 거쳐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독립 변수로서 주변의 시험 등의 고통을 극복해 가야 한다.

## 2. 매개 변수 : 일터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는 일터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본’(Our Example)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시다(Finisher of Our Faith, 히12:2). 성도는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차원에서 대상과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으나, 그에 쫓리지 않고 성령의 깨달음 대로 순종해야 한다. 성령께서 끊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개인)에게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일터 교회 현장에서 성도(개인)로서 그분께 다가가는 삶을 살므로 일터 교회의 성도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매개 ‘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줌 ‘이라는 뜻을 가진다. <Table 12>의 일터 사역자, 성도(개인)의 변수에서 독립 변수는 ‘일터 사역자 ‘이며, 이 속성은 고정적으로 변하거나 주변의 것에 영향 받지 않는 특성이 있다. ‘성도(개인)’는 은 ‘매개 변수’로서 독립 변수의 작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반면, 일터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성도(개인)의 결과가 변한다고 한다. 일터

교회 성도(개인)는 자신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지도력에 순종하고 협력하면 초대 교회 같은 다이나믹(Dynamic)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 3. 결과 변수 : 일터 교회 성도

#### (1)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구라도 사랑하기’(To love anyone)

저자는 ‘본 논문의 향후 연구 과제’의 ‘결과 변수’로서 일터 교회 성도(개인)에 대하여 제시한다. 일터 교회 성도(개인)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처럼 사랑할 수 없다. 일터 교회 성도(개인)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려운 숙제를 학생이 매일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듯 살아가므로 그를 닮는 노력과 동시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일터 교회 성도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중생(Justification)의 단계에서 다음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에 돌입하며 그 증거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어렵던 모든 것까지 할 수 있다(Hwai S. Rhee,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of Report, Study Analysis of on Character Transformation Changes for Modern Contemporary Christians: Focusing on the Field Ministry of The Ebenezer Church, L.A: The School of Theology Shepherd University, 2017: pp.64-67). 이제 일터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라도 사랑하기’를 꺼리지 않는 인성으로 변화하여 ‘누구라도 사랑하기’(To Love Anyone)의 삶을 추구하면서 영성 성숙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바라보기’(To look at excellence)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약점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일반인(이방인)에게도 나타나는 ‘상대적 빈곤증’(Relative Poverty)이다. 어떤 경우, 심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른 상대와 비교하며 ‘자기 비하’(Self-Deprecation)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손경구는 기질과 영적 성숙에서 성도는 각박한 세속사회나 일터(직장) 속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심한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일터 교회 성도(개인)는 경건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시켜 매일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변화를 체험하며 일터 교회 성도로 거듭나게 된다.

#### (3)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기’(To Submit to Sovereignty)

일터 교회 성도(개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Sovereignty of Jesus Christ)에 대한 온전한 복종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나온다. Hwai S. Rhee(2017)는 강의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은 일터 교회 성도(개인)

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도덕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숙련된 토기장이므로 질그릇과 같은 일터 교회 성도(개인)를 영광스런 모습으로 빚어주신다(롬9:21).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일터 교회 성도로서 자신을 굴복시켜야 자신과 교회, 사회와 민족 그리고 세계가 함께 생존하게 된다. 결국, 일터 교회 성도(개인)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가야한다.

#### (4) 영적 모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Follow Jesus Christ)

일터 교회 성도(개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만(엡5:1), 성도는 경건의 본이 되는 신앙의 조상이나 선배 되는 믿음의 지도자들도 조명해야 한다(히13:7). Hwai S. Rhee(2017)는 강의안에서 사람들은 기록된 진리에 대한 본(a Model)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일터 교회 성도(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인성을 일터 교회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닮아가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터 교회 성도(개인)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본을 발견하고 그를 다가가는 영적인 ‘모방자’(Imitator)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Ⅷ. 결론(논의 및 제언)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성숙’을 주제로 한 본 논문은 일터신학의 관점에서 솔로몬일터교회를 비롯하여 3개 기업의 일터(직장)와 4개의 지역교회의 일터에 관한 목회현장연구를 분석한 자료이다. 본 연구물에 대한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오늘의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과 ‘노동의 관계(Labor Relations)’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의 영성 성숙의 실체를 규명해 놓았다. 솔로몬일터교회 공동체의 실천방안을 기반으로 교육계획에 의해 훈련된 결과를 토대로 조사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설문자료를 총 8개 기관(4개 일터교회를 운영하는 법인기업과 4개의 지역교회 일터사역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의 성도(그리스도인)인 직원들과 지역교회 성도를 포함 총 681명에게 1인당 74개 항목으로 설문을 수집한 자료를 ‘통계코드’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터 교회의 사역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와 대안을 큰 4가지 주제(14가지)를 제시했다. ‘일터 교회’는 생소한 이름 같지만, ‘일터 따로’, ‘교회 따로’, 라는 양분(이분)법적 논리를 깨고, “일터는 곧 교회이며, 지역교회는 일터를 향해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성경이 말하는 교훈들과 개혁자들의 ‘일의 신학’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Righteousness)라는 가치를 심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일과 소명’을 연결할 수 있는 혜안으로 일터는 우리의 ‘주중 사역지’이며,

‘주중 교회’이고, 일하는 손끝의 움직임은 예배 행위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맨’은 ‘일터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소수의 한 사람을 복음의 전임 사역자로 사용하시며, 대부분 사람을 주중 교회의 사역자로 불러 일터로 파송한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일터의 증인으로 일터도 알고, 교회도 알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 진정한 깨달음을 성경과 개혁자들의 일터 신학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이 연구로 일터에 대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어 이 땅에 모든 일터 사역자가 한국을 거룩한 일터 사역지로 만들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지역교회의 예배문화변화와 세계선교의 변화에 새롭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한국교회의 미래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일터 신학’에 기초한 ‘일터(직장) 교회’, ‘일터 선교’, ‘일터 사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물은 기독교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으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는 매우 중요한 삶의 현장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 비록 많은 교회가 일터의 삶과 사역에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으로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터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고찰로 일터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는 일터 신학을 제시함으로써 확고한 ‘일-노동’에 대한 대안으로서 ‘영성 성숙의 실제’를 규명하고 한국교회의 침체된 목회현실에 새로운 대안과 세계선교의 이정표이자 미래 구원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 고 문 헌

- 김세윤, (2014). 강의안: **한국교회의 위기-왜곡된 칭의론** 탓, 서울: 서울영동교회.
- [Kim, Se-Yoon, “*Lecture: Korean Church’s Crisis to blame be Distorted Justification*”, Invitational seminar, Seoul: The Seoul Yeongdong Church, ]
- 김지호, (2004).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용인: 칼빈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 [Kim, Ji-Ho, *What is Calvinism?*, Yongin: University of Calvin Publishing Company, ]
- 민경배, (1991). **한국교회에 있어서 사회선교-역사적 고찰**,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회 총회출판국.
- [Min, Kyung Bae, *Social mission in Korean church-Historical review*, Seoul:Presbyterian Church of Korea General Assembly Publication, ]
- 박윤선, (1978). **성경 신학**, 서울: 도서출판 영음사.
- [Park, Yune Sun, *Biblical Theology*, Seoul: Yung Eum Sa, ]
- 박형룡, (1977). **박형룡 저작전집 3: 교의신학 인간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Park, Hyung-Ryong, *Dr. Park’s series 3, Dogmatics Anthropology*, Seoul: Korea Institute of Christian Education, ]
- 배수영, (2002). **어거스틴의 내면세계로의 여행**, 서울: 예루살렘출판사.
- [Pae, Soo-Young, *Travel into St. Augustine’s inner world*, Seoul: Jerusalem Press, ]
- ., (2002). **21세기 리더십 에세이**, 서울: 베드로서원.
- 손경구, (2003). **기질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서원.
- 정성구, (2018). **나의 스승 박윤선 박사**, 분당: 킹덤북스.
- [Chung, S. K., *My Mentor, Dr. Yune Sun Park*, Yongin: Kingdom Books, ]
- 추정완, (2002). **노동과 직업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Choo, Jung-wan, *A Study of work and profession’s ethical meaning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 퍼거슨, 싱글레어 외 다수, (2001). **아가페 신학사전**, 이길상 역 외 3인, 서울: 아가페출판사.
- [Ferguson, Sinclair B. & Wright, David F. *IVP New Dictionary of Theology*. Trans. Lee Gil-

sang and three others, Seoul, Agape Publishing Co., ]

칼먼, 오스. (2007). The 9 To 5 Window, **일터 사역: 믿음으로 일터를 변화시키는 일**,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칼뱅, 장. (2018). Institv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칼뱅 총서 1. 기독교 강요 1541**

**(2판 프랑스어)**, 박건택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Calvin, Jea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Trans. Gun Taek Park, Seoul: Revival and Reformed, ]

칼빈, 존.(1990). Commentary on the Genesis of Moses, 칼빈성경주석 번역위원회 역, **창세기 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Genesis of Moses*. Trans. Commentary of Calvin, Biblical, Seoul: Textbook Press, ]

와그너, 피터 C. (2014). The Church in the Workplace, **일터 교회가 오고 있다**, 이건호 역, WLI KOREA.

[Wgner, Peter, *The Church in the Workplace*. Trans. Geon-ho Lee, Gwacheon: WLI KOREA, ]

스티븐스, 폴 R. (2018). Work Matters: Lesson from Scripture, **일의 신학**, 주성현 역, 서울: CUP.

[Stevens, R. Paul, *Work Matters: Lessons from Scripture*, Trans. Sung Hyun Joo, Seoul: CUP, ]

켈러, 팀. (2012). Every Good Endeavor: Connecting Your Work to God's Work **일과 영성**,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서원.

[Keller, Timothy, *Every Good Endeavor: Connecting Your Work to God's Work*. Trans. Jong Hoon Choi, Seoul: Duranno Press, ]

리델보스, 헤르만. (1991).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바울 신학**, 박영희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Young Hee Park, Seoul: The Society for Reformed Faith & Action, ].

**강대국의 비밀**. EBS 방영, (2014. 4. 9).

“The Secret of the Great Powers.” EBS Broadcast, (April 9, 2014).

허시 &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리더십 이론 작성자 011011011/

<https://lupinafwind.blog.me/120108079046>.

Codsen, Darrell. (2004). *PTM: Theology of Work, a Work and the New Creation*, Carlisle, U.K: Patemoster Press.

Hwai S. Rhee.(2017).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of Report, Study Analysis of on Character Transformation Changes for Modern Contemporary Christians: Focusing on the field ministry of The Ebenezer Church, L.A: The School of Theology Shepherd University.

Blank, Les. (1998). "*Handout for Lecture: Transitions in Ministry*", LA: Azusa Campus.

Hardy, Lee. (1990). *The Fabric of this world : Inquiries into Calling Career Choice, and the Design of Human Work*, Grand Rapids Michigan, Wm: Eerdmans Publishing Co.

The United Bible Societies, (1983). *The Greek New Testament Third Edition(corrected)-Πέτρος* *ou β*, German Bible Society,

# 일터 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 -일터 신학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Spirituality Maturity by the Types of Workplace Church - From the Standpoint of Workplace Theology -

김동연 (잡뉴스솔로몬서치 솔로몬일터교회)

### 논문초록

논문의 주제는 ‘일터교회 사역 유형별 영성 성숙도 연구’이며, 부주제는 ‘일터 신학의 관점에서’이다. 이에 대한 이슈로서, 오늘의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과 ‘노동의 관계’(Labor Relations)를 규명하는데 많은 관심을 집중하였다. 현대 기독교의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God’s Calling)이라는 ‘일-노동’의 또 다른 측면을 연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개혁주의 시각에서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創出)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성경에서 명하는 교훈으로 본 연구는 받아들이고 있다. ‘주말 사역’(weekend ministry/토, 일요일)을 ‘주중 사역’(weekday ministry/월부터 금요일)까지 포함하여, 일터 교회의 목회에 대한 확장의 이슈를 연구했다. 또 기본적인 형태의 교회 패턴이 ‘모이는 교회’(a gathering church/주말에 모이는)에서 ‘흩어지는 교회’(a scattering church/주중에 직장 등으로 흩어지는)와 관계된 이슈를 본 논문의 목적대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교회의 심각한 감소현상의 원인을 대체적으로 지도자(목회자)에 대한 지도력 상실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목회변혁적리더십 혁신 등 그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터 신학, 일터 교회, 일터 선교, 일터 사역의 영성성숙, 주말교회, 주중교회



## 포스트 시대 교회의 역할

-지넷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the Church in the Era of Postism -Centering o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김철수 (Cheol-Soo Kim)\*\*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to identify some features of 'postmodern novels'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oday's churches depicted in it, seeking the future roles for the church to play in the era of 'Postism.'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Christian criticism and response to postmodernism, this study consults the thesis of Vauddie Baucham Jr., who advocated "The Supremacy of Christ." The novel, which features the theme of lesbianism, is divided into eight parts in total, each titled as the first eight volumes of the Old Testament respectively. The contents parody the Old Testament to the trajectory of Winterson's own life, ridiculing an exclusive Christian society deeply rooted in a small community. In addition, the novel implements the narrative technique of "the postmodern novel" to maximize the connotation and symbolism by inserting legends and fairy tales in it. The main speaker keeps her postmodern life in her community, criticizing the church, the minister and her mother, who is faithful to the principles of the church. Later, the narrator tries to persuade the readers to understand her identity as a lesbian girl on the basis of her mother's changes in expression. However, Jeanette's mother, who is sincerely dedicated to worship, missionary work, and service activities identifies with a "church-like mother, " who has endured and overcome the age of chaos, and, in whom the image of a "mother-like church", full of grace, truth and love, being able to preserve its members and save the world is well-embodied.

**Key words :** Jeanet Winterson,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lesbian novel, postmodernism, the supremacy of Christ, the role of the church

\* 2020년 11월 19일 접수, 12월 21일 최종수정, 12월 21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Chosun University) 교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charles@chosun.ac.kr

## I. 들어가는 말

문학과 문화예술의 역사에서 ‘포스트(Post-)’라는 접두사는 권력과 조직 및 구조 등의 모든 기득권에 의해 억눌리고 감추어져 있던 세력들의 자의식적인 발현과 관련이 있다.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 등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포스트주의(postism)는 기존 세력의 경직성과 억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났던 균형의 파괴를 조롱하고 전복하여 새로운 변증법적 혹은 대화적 균형을 추구하는 프로세스로 여겨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인해 온 인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협해 오고 있는 COVID-19 역시, 한 편으로, 그동안 인류에게 끼쳐 온 엄청난 충격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새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 제압되어 오곤 했던 바이러스(virus)가 또 그 인류에게 조롱과 전복으로 도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류는 이를 통해 생활의 전반에 걸친 재고와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COVID-19의 창궐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조직이 기독교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14세기에 유행했던 흑사병(pest)이 중세의 기독교 신앙을 와해시키고 그 결과로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이름의 인본주의를 촉발했듯이, 오늘날의 모든 포스트주의들에 의해서 그 권위를 도전받고 있던 기독교는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큰 위기 또는 기회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대에 예술과 문화 및 시사 등의 다양한 매체들은 교회를 단지 ‘축자적 원리에 근거한 아집에 사로잡혀 몽니를 부리는 지극히 배타적인 존재’로 치부하며 갖가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적대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위축되어 가는 교회의 위상을 재고하고,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자극과 세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지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적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영국의 여류 작가인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의 첫 소설『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위 포스트모던 소설의 특징과 그 속에 묘사된 오늘날 교회의 좌표를 확인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선 이 작품이 1985년 출판 직후 가장 우수한 신간 소설에 수여하는 휘트브레드 베스트 첫 소설상(Whitbread Best First Novel Award)을 수상하였고, 1990년에는 윈터슨 자신이 쓴 대본을 통해 TV의 3부작 드라마로 각색되면서 BBC의 황금 시간대를 장식했



데, 그 작품 역시 뜨거운 호응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둘 만큼 뛰어난 문학성과 대중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 여덟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소설은 각 장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의 첫 여덟 권의 제목을 붙이고 있으며, 각 부의 내용은 해당 구약성경의 내용을 윈터슨 자신의 삶의 궤적에 맞추어 패러디하면서, 작은 지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폐쇄적인 기독교 사회의 억압적인 한 면모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간접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성경을 패러디한 표면적인 구조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독백적 내러티브의 중간중간에 ‘아서 왕’(King Arthur)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기사 ‘퍼시벌 경’(Sir Perceval)의 이야기나 마법사 ‘위넷’(Winnet)에 관한 동화 등을 삽입하여 작품의 함축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소설’의 서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자전 소설, 성장 소설, 여성 소설, 레즈비언 소설, 그리고 포스트모던 소설 등 복합적인 정체성을 띠고 있는 이 작품은 민감한 사회 문제들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윈터슨은 ‘21세기의 버지니아 울프’라는 별명과 더불어 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단일한 중심’이나 ‘거대담론’에 도전하며, 모든 진지한 논리들을 가벼운 유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의 한 중심에서, 같은 정신과 기법으로 쓰여진 소설 작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복음 전파의 베이스캠프로서 포스트 시대를 아우르며 선도할 교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 혹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 도전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응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존 파이프(John Piper)와 저스틴 테일러(Justin Taylor)가 함께 펴낸『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 II. 포스트 시대와 그리스도의 탁월성

진 에드워드 베이스 2세(Jean Edward Veith, Jr.)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학자와 문화예술가들이 기독교적 가정(Christian assumption)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과 전공이나 관련 영역이 충돌하게 될 때 발생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다. 그 첫째가 “세속주의 학계의 권

력과 위세에 놀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현대의 유행과 가치관에 따라” 기독교의 교리를 재해석하여 타협함으로써 “신학적 자유주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Veith 11-12) 따라서 그는 기독교인들도 “지성을 사용하고 계발(use and develop their minds)”(Veith 11)하여 현재의 풍조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현대적 사고의 윤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몇 가지 도전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 진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모든 지식을 포용하고 호기심, 창조성, 그리고 배움의 모든 에너지의 기초를 제공하는 틀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알아야 한다.(Veith 12)

데이빗 웰즈(David Wells) 역시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과 더불어 오늘날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풍조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경험의 공허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구원론(soteriology)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이 세상의 의미의 구조나 도덕성, 보편적인 실행 가능한 세계관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기도록 부추기고, 모든 현실을 자아 속으로 붕괴시킨다. 그것은 사람들이 파악한 의미의 모든 흔적을 먹어 치운다. ‘세상’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서양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이자 그분의 분노의 현재 결과물인 인간 경험의 공허함, 따라서 구원의 문제에 무게를 더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현실감을 더한다.”(Wells 42)

그런가 하면 보디 보참 2세(Voddie Baucham Jr.)는 “우리 문화에서 경쟁하는 두 가지 주요한 세계관”을 각각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과 “세속적 휴머니즘의 포스트모던 버전(a postmodern version of secular humanism)”으로 명명하고, 그 두 세계의 신관, 인간관, 진리관, 지식관, 그리고 윤리관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요약한 바와 같다.

Table 1. Differences in the Worldview between the Christian Theism and Postmodern Secular Humanism (Arranged from Vaucham Jr. 52-54)

세계관	기독교 유신론 (Christian Theism)	포스트모던 휴머니즘 (Postmodern Secular Humanism)
하나님	필수불가결, 전지전능한 존재	근본적인 무신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창 1: 26-28; 9:6)	단세포에서 출발한 유기체, 털 없는 유인원, 아무런 이유나 까닭이 없는 우연의 존재(a cosmic accident with no real rhyme or reason)
진실	진리는 절대적이다.	철학적 다원주의와 경험주의를 선호함.
지식	하나님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리라면 모든 장소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것.	물질을 선호하여 추상적 진리를 거부(고전적 휴머니즘) 경험을 선호하며 초월적 진리 거부(포스트모더니즘)
윤리	인간의 도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옳고 그름의 문제인 윤리를 절대적으로 봄.	모든 윤리는 문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상대적이고 협상 가능한 가치 체계로 봄.

다음으로 보웬은 인생의 네 가지의 궁극적인 질문들, 즉 1) 나는 누구인가? 2)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3) 세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4)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그 질문들이 위의 두 집단의 삶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리한 후, 골로새서 1장 12절-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파한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돈함에 있어서, 불완전한 ‘포스트모던 휴머니즘’의 답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완전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 유신론’을 그 다음 순서로 배치한다.

Table 2. Differences in the Fundamental View of Life between the Christian Theism and Postmodern Secular Humanism (Arranged from Vaucham Jr. 54-66)

질문들	포스트모던 휴머니즘(Postmodern Secular Humanism) (Vaucham 54-57)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 (Vaucham 57-66)
나는 누구인가?	우연의 결과, 실수, 미화된 유인원, 임의의 진화 과정의 결과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골 1:15-16)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심 (시 8:5)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만드심(시 139:13) -고유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p>소비하고 즐기기 위해 이 땅에 왔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향유해야 한다.</p> <p>*룩펠러가 받은 질문: “얼마면 되겠어?”</p> <p>룩펠러의 대답: “조금만 더...”</p> <p>** 결과: 물질주의 우주에 쾌락과 소비를 결합하면 ‘나’의 만족을 위해 ‘너’를 착취한다.</p> <p>-나치의 인종 말살</p> <p>-현대인의 낙태와 유산 등</p>	<p>골 1:16b-18</p> <p>만물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p> <p>그러므로 나의 존재 이유는 소비와 즐거움을 훨씬 능가한다.</p>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	<p>사람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관리와 통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p>	<p>골 1:19-21</p> <p>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p> <p>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기를 원한다.</p>
잘못된 것을 수정할 방법은 무엇인가?	<p>더 많은 정보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거나, 더 강력한 관리와 통제를 해야 한다.</p> <p>*결과: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른 인간을 데려다가 교육 시키면 파괴의 능력이 더 정교해질 뿐이다. 또한 통제권자들의 부정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p>	<p>골 1:22 그러나.../ 23 만일...</p> <p>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만일 우리가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우선 순위와 주권과 탁월성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p> <p>-다른 이로는 구원이 없음(행 4:12)</p> <p>-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으로 구원 완성(벧전 3:18)</p>

이상과 같은 흥미로운 비교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보챌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전자[포스트모던 세속적 인본주의]와 함께라면, 그대는 공허하고 절망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대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기독교 유신론]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소중하고, 목적이 있고,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이 진실로 포스트모던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67)

요컨대, 오늘날 세상의 모든 학문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책임하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위 ‘실존주의적 세계관’은 이미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러한 세계관을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직접적인 관계성이나 그 관계의 필요성은 부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처럼 인간 중심의 철학과 문학과 문화가 구성해 가는 세계관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땅 위에 견고히 그 터를 닦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스트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학자들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고 설파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기반한 더 치밀하고 더 구체적인 연구들을 통해 각종 문화와 문학 및 예술의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을 가능하게 하고, 더불어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재강화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II.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소설 속의 포스트 시대와 교회

#### 1. 지넷 윈터슨: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포스트모던 작가

1959년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에서 태어난 지넷 윈터슨은 오순절 복음주의 교회(the Pentecostal Evangelical church)의 성도였던 콘스탄스(Constance)와 존 윈터슨(John Winterson)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녀를 선교사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양부모의 계획을 따라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오순절 교회에 다녔고 8살 때 첫 설교문을 쓰고, 직접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15세가 되던 해에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파문을 겪게 된다.

그 사건 이후 집을 떠나게 된 윈터슨은 애크링턴 평생교육원(Accrington Further Education College)을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장례식장과 정신병원 등에서 일하면서, 영국의 대입시험인 A 레벨 시험(A Levels)을 치른 후, 옥스퍼드 대학의 세인트 캐서린 칼리지(St. Catherin's College)에 진학했다. 1981년에 영문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녀는 런던으로 이주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5년에 판도라 출판사(Pandora Press)에서 첫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를 출판했다. 현재 이 작품은 “윈터슨의 소설 중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the most popular and most written-on of Winterson's novels) 작품”(Makinen 1)으로 인정되고 있다. 윈터슨은 엘리너 와크텔(Elener Wachtel)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언어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재능과 감각이 성경에서 비롯되었음을 피력한다.

저는 성경 안에서 길러졌습니다. 전 감히 누구보다도, 대부분의 현대인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정말 잘 쓴 책입니다. 말하는 방식, 우화와 이야기, 소설이 모두 담겨 있고, 무척 강력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다가가죠. 저에게 언어는 자유입니다.(250-251)

성장기 어린 시절에 그녀가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책과 토머스 말로리 경(Sir Thomas Malory)의 『아서왕의 죽음』(*Le Morte d'Arthur*),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Jane Eyre*), 그리고 성경 해설집 등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권에 불과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 외에 그녀의 글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아서왕의 죽음』이었다고 한다.(배만호 87) 그녀는 첫 소설을 출간한 그 이듬해 노아의 홍수를 배경으로 하여 성경을 상호텍스트적으로 다시 쓴 코믹 소설인 『초보자를 위한 배타기』(*Boating for Beginners*)를 출간했고, 1987년에 『열정』(*The Passion*)을 출간하여 존 류엘린 리스 문학상(John Llewellyn Rhys Literary Prize)을 수상하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성경 뿐 아니라 물리학과 의학, 더 나아가서 컴퓨터 기술과 가상 공간과 관련된 내용까지 작품 속에서 상호텍스트적 실험에 사용해 오면서, “소설의 유형과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실험하는 작가”(와크텔 254)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는 윈터슨은 가톨릭의 사제직을 거부하고 “영원한 상상력의 사제(a priest of eternal imagination)”(Joyce 221)의 길을 갈 것을 결심했던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주인공인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기억을 거부하고 종교를 초월한 예술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나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은 물론 아주 유용한 훈련이었습니다. 설득의 기술, 구식 수사학이죠. 저는 언어를, 말과 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웠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사가 하는 일입니다. 전도사의 정체죠. 성공한 전도사란 청중에게 그들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가들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정말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만 예술가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 자체를 위해서, 예술 자체로 그렇게 합니다.(와크텔 250)

선교사가 되기 위한 양육과정을 거쳤던 어린 시절의 철저했던 종교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에 대한 반발과 모든 제약과 구분을 거부하며 초월하는 그녀의 자유로운 성격으로 말미암아 윈터슨의 매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현대의 대표적인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게 되었고, 20세기 후반의 영국 문학을 다루는 비평서들은 변함없이 그녀에 대한 다각적

인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윈터슨의 소설을 수식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레즈비언’과 ‘포스트모던’이다. 윈터슨 자신은 1991년에 쓴 이 작품의 저작 과정과 그 의미와 특징을 기록한 서문(“Introduction”)에서 이 소설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이 작품은 “나선형 서술 구조(a spiral narrative)”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것으로 위장한 복잡한 서술 구조를 제공하며,” 둘째로 가족과 교회 생활의 신성함의 이면을 드러낸 “위협적인 소설”이며, 셋째로는 “위안이 되는 소설”인데,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자전적 소설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sup>

레즈비언 텍스트로서 그녀의 소설들에 대한 비평적 반응 역시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메르자 매किन(Merja Makinen)은 『지넷 윈터슨의 소설들』(*The Novels of Jeanette Winterson*)이라는 저서에서 윈터슨의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범위는 우선 그녀의 작품들이 성 정체성의 문제를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해체하고 젠더 수행의 유동성을 가시화했다거나, 이성애자 세계 내에서 레즈비언 여성들에게 가해진 억압과 피해를 밝혀냄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 또는 레즈비언주의의 보편화 또는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지난 30년 동안 레즈비언 문학 비평이 변화한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한다. (2-3)

매किन은 계속해서 그녀의 작품들의 인물이나 구성 및 주제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모더니스트들의 영향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윈터슨이 “사실과 허구, 실재와 환상,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구분을 해체하고 성경에서 동화에 이르는 상호텍스트적인 레퍼런스를 다시 쓰는 식의 메타-내러티브와 자기 반영적 텍스트의 특성 등을 작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비평가들이 그녀를 포스트모던 작가로 보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문화의 정통성과 그 역사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관련된 사조이며,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철학자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일단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이나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원리들에 대한 의심 등을 포스트모던의 조건으로 정의한 바 있다.(xxiv) 덧붙여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적 상대주의와 유동적인 정체성 등의 개념들을 포함하는데, 유동적이고 임의적인 정체성의 개념은 소위 젠더의 본질을 구성된 것으로 보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Low 27)

윈터슨의 소설의 근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다양한 문학적 실험정신, 개인의 내면 의식과 그 흐름에 대한 천착, 그리고 소위 성이나 젠더와 같은 ‘생물학적 욕망’과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 등의

1) Jeanette Winterson,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London: Vintage, 1990), pp. xi-xv 참조. 이후 텍스트 인용은 본서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O 라고 표기하고 면 수를 기록한다. 번역문은 지넷 윈터슨/ 김은정 옮김(2009),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서울: 민음사)를 참조함.



구성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모더니즘의 실험을 다시 시작”(와크텔 255)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자유를 강조하는 레즈비언 작가로 볼 수도 있고, 또 “역사와 문화와 성별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Pearce 148)을 추구한 인본주의 작가로 볼 수도 있다. 요컨대 그녀는 사실상 자신의 내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구분과 구별과 차별을 초월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소설 속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교회

### (1) 거대 담론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도전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아낌없는 찬사 속에 “비평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Low 86) 윈터슨의 첫 소설『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는 현재 “중등학교의 교과 과정에 편성”(Makinen 5) 될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애초 이 작품은 1980년대 중반에 정치적 우파들이 1960년대의 좌익 급진파와 성적 혁명에 대하여 현대 사회의 병증, 즉 가족 가치의 파괴와 전통적 도덕 규범의 파괴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시대에 쓰여져, 공개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일련의 관련된 담론에 대한 인습타파적 도전을 감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Bently 109).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작품은 소위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사회의 질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윈터슨이 소설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패러디를 통한 조롱과 전복을 시도한 대상은 서구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가정제도, 그리고 이성애 중심의 젠더 구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패러디적 등가물이 지넷의 성장의 단계들과 성경적 설명 사이에 세워진다(Onega 21). 즉 이 소설을 구성하는 여덟 개의 챕터들은 구약성경의 첫 여덟 권인 「창세기」(Genesis), 「출애굽기」(Exodus), 「레위기」(Leviticus), 「민수기」(Numbers), 「신명기」(Deuteronomy), 「여호수아」(Joshua), 「사사기」(Judges), 그리고 「룻기」(Ruth)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상 만물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의 여정을 다룬 성경 각 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섭리 대신 주인공 지넷의 삶의 여정에 맞추어 기록된다.

예컨대, 「창세기」는 지넷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그녀를 입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O 10), 윈터슨의 「창세기」에서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며, “철저하게 구약성서적”(O 4)이었던 그 어머니는 스스로 신약성경의 ‘동방 박사’가 되어 자신만의 동정녀 출산으로 마리아를 패러디하고 있다. 「창세기」의 말미에서 “사육장(Breeding Ground)”(O 17)이라고 불리는 학교의 취학통지서를 받게 된 어머니는 지넷에게 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네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야

하니까”(O 21)라고 알려준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해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 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Canaan)으로 가는 40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는 이 작품에서 지넷이 집이라는 환경을 떠나 학교로 가는 여정 속에서 교회와 병원 등 여러 사회적 환경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하면서 성경 속의 내용들을 왜곡시키고 전복하고 있다. 예컨대 「신명기」를 읽은 소감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할례의식을 오해하고 있는 듯한 어린 지넷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신명기」에는 결점이 있었다. 이 복음서에는 혐오스러운 것과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사생아나 고환이 망가진 사람에 대해 읽게 될 때마다 어머니는 페이지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주님께 말기자꾸나.”

그러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면 나는 그 부분을 몰래 훑쳐보곤 했다. 내게 고환이 없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고환은 몸 바깥에 붙었을 뿐 창자와 다른데는 같았고 성서 속의 남자들은 항상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 없었다. 끔찍해라. (O 41)

그런가 하면,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의 어둡고 추운 밤길을 밝혀주던 불기둥과 대낮의 무더위로부터 지켜주던 구름 기둥 이야기를 하면서 “구름 기둥은 안개다. 혼란케 하고 견디기 어려운 안개. 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O 47)라고 표현함으로써 성경 내용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제사의 방식을 다룬 성경의 「레위기」는 “흠이 없는”(O 58) 완전을 설파하는 목사님의 설교 장면에 균형과 조화에 관한 동화를 삽입하여, 자신이 해석한 완전성으로서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며,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 두 차례에 걸친 인구 조사 뿐 아니라,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광야의 불뱀과 뱀 사건 등을 통해 유대 민족의 불순종과 불평, 징벌과 회개,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민수기」는 결혼이 불가능한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는 꿈 이야기로 변용된다.

여하튼 나는 제단까지 갔다. 신부는 상당히 뚱뚱한 데다 풍선껌처럼 계속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에 이르렀다.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신랑이 나에게로 몸을 돌린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때로 신랑은 장님이었고, 때로는 돼지였으며, 때로는 어머니였다. 어느 때는 우체국 아저씨였던 적도 있고 한번은, 안에 아무도 들어 있지 않은 그냥 옷 한 벌인 적도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꿈 얘기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저녁때 정어리를 먹어서

그런거라고 했다.(O 69)

더 나아가「민수기」에는 주인공 지넷의 성 정체성에 대한 반응이 구체화 된다. 찢어진 우비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사준 분홍색 우비(Mackintosh)를 매우 못마땅해 하는데, 이것은 크기와 색깔이 맞지 않는 옷을 입힘으로써, 어머니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강제로 재단하려는 시도”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성(femininity)”과 “소녀다움(girliness)”을 의미하는 분홍빛에 대한 지넷의 거부 반응일 수 있다.(배만호 90) 타고난 성별에 대한 주인공 지넷의 거부감은 시장의 생선 가게에서 만난 “옆집 고양이처럼 사랑스러운 회색”(O 78) 눈동자를 가진 멜라니(Melanie)에 대한 연정과 그녀와의 성적 체험으로 연결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선교사를 꿈꾸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성적 접촉이 성경공부와 더불어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대로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게 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다고 서로에게 말했다. 멜라니가 한참 동안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러다 우리는 포옹했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나는 덜컥 놀랐으나 멈출 수 없었다. 나의 배 안에서 뭔가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내 안에 문어가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다시 아침이 밝았다.(O 86)

지넷의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이 처음으로 구체화된「민수기」장은 종교적 규율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부지불식간의 위반에서 오는 두려움이 기성 사회의 고정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반동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발전할 것을 암시하는 그녀의 의식의 흐름과 관련된 서술로 마무리된다.

나이 들고, 죽고, 다시 시작하고, 부지불식간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항상 이런 식이었다.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바깥에서는, 반역자들이 이 겨울 궁전으로 밀어닥치고 있다.(O 87)

이처럼 엄청난 국면의 전환을 예측하게 하는 「민수기」의 뒤를 이어, 모세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가 “역사 혹은 중심을 해체하려는 작가의 의도”(배만호 90)가 다분히 응결된 짧지만 강력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윈스턴 자신의 메시지로 가득 찬 또 다른 「신명

기」로 치환된다.

똑같은 이야기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다르게 본다는 것을 상기시킬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들을 믿지 않는다. 확실한 단 한 가지는, 매듭으로 가득한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모두 거기에 있으나 시작 부분을 찾기가 힘들고 끝을 가늠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실뜨기에 감탄하는 것, 어쩌면 매듭을 더 많이 만드는 일일 것이다. 역사는 흔들기 위한 해먹이고 놀기 위한 게임인 것이다. 고양이들이 노는 것처럼 실타래를 발로 잡고, 물고, 다시 풀고, 잠들 때, 실은 여전히 매듭으로 가득한 타래다. 아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런 역사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다. 출판사들이 곧잘 그랬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총명하다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역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은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비 오는 날의 오락 거리다. (O 91)

결국 다섯 번째 장인 「신명기」는 “한결같은 기적을 믿느니 내가 직접 만든 겨자소스를 샌드위치에 뿌려 먹을 것”(O 93)이라고 스스로 결심하며, 독자들에게도 “당신의 치아를 보존하고 싶다면,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도록”(O 93) 권고하는 작가의 목소리로 마무리된다. 특히 이 장의 제목에는 “율법서의 마지막 권(the last book of the law)”(O 89)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이후 주인공 지넷의 삶의 양상이 좀 더 개인적이고 탈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세오경(The Pentateuch)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따라야 할 율법 제정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윈터슨 소설의 첫 다섯 장은 지넷이 마침내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주류 문화권과 지극히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정립해 가는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

모든 포스트주의의 문화적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토대로 기획되고 저술된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는 총 66권의 친구약 성경 중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형태로 서술되고 전달되고 교육되는, 외견상 단성적이고 권위적인 구약성경, 그것도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진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진 처음 다섯 권과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두 권,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가장 파격적인 혼종성을 주제로 다루는 「룻기」까지를 그 서술의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 국가와 역사 그리고 종교와 율법의 권위 노골적으로 전복하고 혼종성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 (2) 본능을 향한 여정

유대인들의 가난한 정착기를 다룬 「여호수아」는 지넷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동성에 성향이 밝혀진 뒤에 교회의 담임 목사와 어머니로부터 ‘구마의식’(exorcism) 등을 비롯한 엄청난 갈등을 겪고 결국 교

회와 가정을 떠나는 이야기로 각색된다. 이 장에서 지넷은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던 어머니라는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답장은 보호하고 동시에 제한한다. 무너지는 것도 답장의 본질인 것이다. 답장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트럼펫을 불 줄 알게 된 결과다”(O 110)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유대인들의 승리를 이성애 중심의 억압적 환경이 무너지게 되고, 자신이 독립을 쟁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로 끝나는 「사사기/판관기」의 이야기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와 어머니에 대한 지넷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결국 둘 사이의 화해가 무위로 돌아가며, 지넷은 교회와 가정을 떠난다.

처음에는, 나에게도 단지 우발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하게 될 기회가 되었다. 그 퇴마 의식 이후 나는 나의 세상을 그와 아주 유사한 다른 세상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신을 사랑했고 교회 또한 사랑했지만, 난 이를 더욱 더 복잡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O 126)

「민수기」에서 멜라니와 가졌던 첫 동성애의 경험 이후, 지넷이 그들의 이러한 욕망이 “그릇된 정욕”인지를 묻자 멜라니는 자신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목사님이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그건 끔찍한 것이라고 대답하고 지넷 자신 역시 멜라니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O 86)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창 5:2)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안에서 솟아난 본능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수아」에서 어머니와 교회 앞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고 난 뒤, 교회를 뛰쳐나온 지넷은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또 한 사람의 숨은 레즈비언인 주스버리(Jewsbury) 양을 만나 다시 한번 갑작스런 성적 접촉을 경험하게 된다. 충격을 받은 지넷을 위로하느라 다독이던 그녀의 손길이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 후 지넷은 자신들의 행위를 증오하게 된다.

주스버리 양은 내 머리와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등을 더 잘 두드릴 수 있도록 나는 옆드렸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녀가 갑자기 내 위로 옆드렸다. 내 목에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불쑥 나는 몸을 돌려 그녀에게 키스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고 나는 그것을 증오하고 또 증오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O 104)

이처럼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는 감정의 결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O 126)들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에게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감정과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이 생각과 경험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관계로서의 참된 사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감상적인 의지의 흐름에 복종하게 되는 ‘감각적인 사랑’이고, ‘본능에 따른 사랑’이며, 더 나아가서 무분별한 감정의 남발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금지하고 경고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

결국 회개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한 지넷에게 어머니는 “네가 가야겠다. 난 내 집안에 마귀를 들일 수 없어.”(O 133)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집을 떠나는 지넷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아침이었다”(O 134)고 소회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을 암시한다.

볼링거(Laurel Bollinger)는 윈터슨이 지넷의 이야기에 성서 텍스트를 혼합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과 성서 텍스트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과 허구 사이의 구별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65). 그 결과로 그녀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위상을 끌어내려 전설이나 동화 등과 같은 세속의 허구적 이야기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그녀는 자신의 소설의 마지막을 「룻기」로 장식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여자이자 가난한 과부, 그리고 주류 세력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이라는 세 겹의 주변화”(Onega 21-22)를 신의로 견디며 시어머니를 섬기며 순종하다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룻의 이야기가 천애 고아 입양아에 레즈비언이라는 주변인 신분의 소녀 지넷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저녁에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로 변형된다.

윈터슨은 소설의 마지막 장인 「룻기」의 초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변화시키고 싶은 물질을 이해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물론 사람들은 잘라내고 수정하지만, 그것은 타락한 힘이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악의 본질이다.(O 138)



이것은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을 했던 당시 자신의 어머니와 교회가 보여준 지극히 배타적인 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자, 또한 오늘을 사는 독자들에게 경고, 또는 권고하는 자신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다수자와 소수자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과 같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전제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지넷은 학교를 졸업하고 정신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식 이후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아 어머니에게로 돌아온다. 엄청난 눈과 추위 속으로 돌아온 지넷은 마치 성경 속의 ‘돌아온 탕자’(눅 15:11-32)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녀는 “장갑을 가져오지 않은 데다 내 좌석 위의 짐 신는 선반은 망가져 있”고 게다가 지나가던 검표원은 “통로에 짐 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O 157)

이 장면은 교회에서의 커밍아웃 이후, 큰 소동을 겪은 뒤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O 162)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공 지넷의 지극히 정상적인 홈커밍(homecoming)의 순간에 대한 묘사이지만, 집과 어머니를 만나기 직전 그녀의 모습은 공교롭게도 장갑이 없어 추위 속에 짐을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짐칸이 부서졌는데도, 통로에 마저 짐을 놓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하고 있는 딜레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즉 연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정확한 전환점에 서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인 윈터슨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이루고 있는 남성성, 남성에게만 세력을 허용하고,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정하며, 교리에 어긋나는 그 어떤 의견이나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철저히 등을 돌리는 기독교, 남성 중심 문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거대담론’으로서의 역사 등에 대하여, 스스로 그 모든 상황과 정반대의 배경 속에서 성장해 온 작가 자신의 삶의 궤적을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에 엮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고, 전복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장에서 지넷이 커밍아웃(coming out)을 하고 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로부터 “사탄의 주문에 걸렸”(O 102)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은 이후 끝까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수했던 지넷과는 달리 그녀의 연인이었던 멜라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곧바로 회개하고, 그녀와의 생활을 정리하게 되며,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건 이후 그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레즈비언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주스버리 양, 케이트, 아이스크림 가게 여인들 등), 심지어 지넷의 어머니 본인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앨범 중에 “옛 애인들(Old Flames)”(O 35)이라고 기록된 섹션에서 과거에 자신이 좋아했거나 자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딸과 함께 보던 어머니가 에디라는 남성의 여동생의 사진을 발견하고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나는 궁금했다. 순한 아버지가 영화에 나오는 남자들 같았던 모습을 애써 상상해 보았다.

“아빠는 나랑 결혼하고 주님을 만났거든.”

그러고서 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쉬고 옛 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픈카를 몰고 다녔던 미치광이 퍼시는 어머니에게 브라이언에서 함께 살자고 한 사람이었다. 거북 껍질 안경을 쓴 양봉업자 에디는... 이때 그 페이지 맨 밑에 고양이를 안고 있는 한 예쁜 여자의 바랜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가리켰다.

“이 사람? 아, 그냥 에디의 여동생이야. 내가 왜 이 사진을 여기에 뒀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에 사진첩을 다시 펼쳐 봤을 때 그 사진은 없었다.(O 36)

여기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태도에 대하여 닉 벤틀리(Nick Bentley)는 지넷의 어머니가 이 여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억압해왔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10) 또한 지넷의 커밍아웃으로 교회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을 때, 혼자 남은 그녀에게 다가온 주스버리 양이 던진 의미심장한 말 속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엄마는 세속적인 여자야. 너는 절대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만, 네 엄마는 감정, 특히 여자들의 감정을 잘 알아.”(O 104) 윈터슨이 그녀의 작품을 “위협적인 소설”(xiii)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작가인 윈터슨은 자신과 동명인 주인공의 커밍아웃의 경험을 통해 소위 레즈비언의 성적 지향성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본능 속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마 7: 3) 현대 교회의 위선을 폭로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핀(Gabrielle Griffin)은 작품 속 주인공인 지넷이 레즈비언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 중 하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남성이 전혀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지넷이 레즈비언의 성향으로 발전했다는 “사회구성주의적 견해(social constructionist views)”와 지넷 자신이 결코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본질주의적 견해(essentialist views)”가 그것이다.(96-7)

실제로 주인공 지넷이 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뭐든 잘하는 것이 없”는 무능한 아버지(O 10)와 어린 주일 학생의 상상력을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과 권위로 억압하는 교회 목사(O 12-3), 그리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어린 지넷을 힘들게 했던 우체국 아저씨(O 70) 등 온통 부정적인 남성관이 팽배하고, 주요한 생활 공간 중 하나인 교회에서는 강한 성격의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종의 모계사회를 방불케 하는 성장환경이었다. 덧붙여서 그 커뮤니티는 양성 간의 균형 잡힌 사랑에 대하여 “아무도 말해 주지 않음”(O 71) 왜곡된 교육 환경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인공 지넷의 성장환경은 주변을 통한

그녀의 성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지넷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여성성의 지배적인 규범을 거부해 왔다. 예컨대, 자신을 귀여운 “아가(poppet)”(O 70)라고 부르던 우체국 아저씨가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하트 모양 사탕을”(O 70)이라고 인사하며 사탕을 주자 그녀는 심한 분노를 느낀다.

그날 나는 신경질이 나서 내 강아지를 질식시킬 뻔 했고, 당황한 어머니가 나를 집 밖으로 끌어냈다. 사랑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러나 나는 어린 소녀이고, 그러므로 나는 사랑스러웠으며, 여기 그걸 입증하는 사탕이 있었다.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노란색과 분홍색과 하늘색과 오렌지색, 그리고 전부 하트 모양인 데다 죄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다.

켄을 위해 모린이

책과 질, 변함 없이. (O 70)

요컨대 그녀의 환경 속에 이미 부재하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만연해 있는 남성의 이미지와 이 문단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성애 사회에서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주인공 지넷의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사회 구성적’ 혹은 ‘본질적(선천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여기까지가 작품 속에서 현대의 기독교 또는 교회가 만나고 있는 포스트모던의 세계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보웬의 주장대로 “동성에 결혼이 일어나고 있고, 부분 출산 낙태가 흔해졌으며, 정치 후보들은 그들의 조력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의 종교적 소속감의 강도를 정기적으로 낮추고 있다.”(51)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내는 성도는 소설 속 지넷의 어머니처럼 ‘근본주의자’나 ‘광신도’로 매도되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기교의 치밀함과 문체의 유연함과 대담함, 그리고 그 주제의 당돌함으로 인하여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같은 소설이나 영화 등과 같은 각종 문학과 문화 및 예술의 작품들은 다양한 기법과 장치를 이용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전복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질서와 권위 속에서 억압받고 무시되던 세력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모든 강자들은 그동안 약자들에게 취해 온 억압의 태도를 반성하고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현대 사회는 정반대로 역차별의 결과가 예측될 가능성이 다분한 각종 규칙과 법령들을 예고하며 그러한 요구들이 수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다각적으로 도출해 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대의 교회가 직면해야 할 딜레마이다.

### (3) 변화를 건디는 힘: 교회 같은 어머니, 어머니 같은 교회

이 책의 마지막 장인 「룻기」의 중반부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열 블록, 가로등 스무개”(O 158)를 지나 자신이 떠나왔던 집을 다시 찾아간 지넷은 재회한 어머니를 통해 ‘변화’와 ‘불변’을 동시에 경험한다. 우선 집의 위치와 어머니의 존재는 변함이 없었다. 사람은 배신하고 조직은 무너졌지만, 어머니의 기다림과 그녀의 봉사과 선교 활동은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건재하였다.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유연함이었다.

응접실에는 좋게 말하면 기발한 장치라고 해 줄 만한 것이 있고 그 앞에 어머니가 앉아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가 그걸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가방을 내려놓고 나는 기다렸다. 어머니는 회전 의자에 앉은 채 방향을 돌렸다. 악보 한 장을 흔들면서. 악보 겉장에 “기쁜 소식들”이라고 쓰여 있다.

“와서 이것 좀 봐라, 전자오르간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회전해서 자리로 돌아가 건반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피아노는 어떻게 하고요?”

“아. 요즘은 모두 전자 쪽으로 바꾸는 추세다. 난 시류를 따르는 것이 좋아.”(O 159)

어머니는 지넷의 커밍아웃 사건 초기에 딸의 성적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가끔씩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결국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니까”(O 167)라고 말하면서 열린 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탄절 기간에 보여진 이와 같은 어머니의 변화는 엄격한 규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훈육과 처벌을 역설하는 ‘구약의 논리’에서 사랑과 관용을 더 중시하는 ‘신약의 논리’로의 전이로 해석되기도 한다. (Bently 113)

사실 작가 윈터슨의 어머니를 연상하게 하는 주인공 지넷의 어머니는 예배와 봉사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충실한 성도였다. 물론 세상과 교회라는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신앙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녀는 “위풍당당한 마호가니로 만든 라디오 겸용 전축”(O 4)으로 설교 말씀이나 선교 소식을 즐겨 듣고 참여하고 있다. 학교는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사육장”(O 16)이라고 주장하는 그녀는 딸이 취학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신앙관에 기반하여 집에서 지넷을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집안에서의 영향력이나 생활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화장실을 만들고(O 16), 라디오 통신을 통한 선교 활동에 몰두하고, 딸의 일반적인 분야의 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한편 내 공부는 계속됐다. 원예학, 민달팽이로 인한 정원의 해충 문제, 그리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씨앗 목록에 대해 배웠고, 역사가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대로 흐른다는 것과 어머니가 주마다 받아보는《명백한 진리》라는 잡지의 내용을 이해해 갔다.

“우리 시대에 다시 엘리야가 나올 거다.”

어머니가 선언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징표와 기적들을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네가 나중에 선교하러 나가게 될 때 필요할 거다.”

어머니가 나를 일깨웠다. (O 15-6)

근본주의 신앙관을 연상하게 하는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사실 딸을 선교사로 키우고자 했던 그녀의 신앙적 소망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녀의 교육 방식을 상징하는 ‘객관 상관물’로 사용된 도구가 바로 ‘오렌지’이며, 이 작품의 제목도 그와 관련이 있다. 「출애굽기」장에서 지넷이 귀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잠자리로 돌아와”(O 24)야 했을 때 처음 등장한 오렌지는 신앙생활로 바뀐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녀의 곁을 지켜준 위안의 존재였고, 어머니에게는 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입에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내주던 세상에서 “유일한 과일”(O 29)이었다.

빅토리아 병원은 크고 무서웠다. 게다가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라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다. 치과 공지사향과 엑스레이 기계 사용자 외에는 읽을 것이라곤 없었다. 오렌지 껍질로 이글루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계속해서 무너졌고, 간신히 세운 뒤에는 안에 넣을 에스키모가 없는 탓에 ‘에스키모는 어떻게 잡아먹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했고, 그래서 내 기분은 더욱 더 비참해졌다. 기분 전환거리란 늘 이렇다. 결국엔 진지해져서는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들어 버린다. (O 27)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넷에게 오렌지는 이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을 위로할 유일한 무기인 상상력”(Onega 20)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녀의 환상 속에 “오렌지 악마(the orange demon)”(O 106)로 등장하여 그녀를 유혹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의 말미에서, 오렌지만이 유일한 과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 그 위상이 변화되는 오렌지는 레즈비언 소설가로서 윈터슨이 제거하고 파괴해야 할 “이분법”이며, 포스트모던 레즈비언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최초의 “시험적 장치”로 해석되기도 한다(Doan 147-48).

이처럼 주인공 지넷의 어머니는 어린 딸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했으나, 교회가 자신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하느라 딸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는 남편이나 다른 친지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모집한 물품이 필요 이상으로 모였을 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O 105) 주거나 “성탄극 각본”(O 117)을 직접 쓰는 등, 교회 안팎의 봉사활동과 선교 및 교육의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또한 열정적으로 수행해 온 성도였다.

그러나 딸이 비성경적인 연애 행위에 대한 고백을 들은 후에는 교회를 통해 치리를 결정하고(O 102), 집안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끄덕이고, 끄덕이고,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가두었다. 어머니는 내게 담요 한 장만 던져주고 전구마저 가져가 버렸다. 그다음 서른 여섯 시간 동안 나는 악마와 다른 것들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나는 악마가 약점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 악마가 들렀다면 나의 약점은 멜라니다. 그러나 멜라니는 아름답고 착하고 나를 사랑했다.

진정 사랑이 악마라는 말인가?

어떤 종류의 악마지? 귀에다 덜거덕 소리를 내는 갈색 악마? 나무 피리에 맞추어 춤추는 붉은 악마? 병을 일으키는 물의 악마? 변장을 하는 오렌지 악마? 고양이에게 베풀어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에는 악마가 있다.  
(O 105-6)

어머니는 가정과 교회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딸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녀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와 교단의 “심의회”(O 130)의 결정, 즉 말씀 선포의 권한을 남성도에게 제한하는 등, 여성도의 교회 내에서의 위상 축소 결정에 순종하고, 또한 지넷의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그녀의 선교사 지명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사실상 교회 내에서 여성도들의 위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녀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지넷은 “목사들에게 엄마는 너무 약했다”거나, 심지어 “만약 영적 간통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는 창녀였다”(O 131)라고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결정을 비난하게 된다.

담임 목사는 지넷의 회개를 위한 수련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참가할 것을 설득하고, 어머니 역시 끝까지 딸의 회개를 위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넷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지넷은 “어머니 혼자 가세요. 전 교회를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잊어버리세요”(O 133)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심을 굳히고, 마침내는 회개할 것인가를 묻는 담임 목사의 질문에 “아니요”(O 133)라고 답한다. 끝내 회개를 거부하는 자신의 딸에게 집을 나가도록 명령한 어머니는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는 딸에게 “악마도 자기 자식들은 돌본다”(O 134)라고 단호하게 되받아친다.

결국 지넷의 어머니는 포스트모던적 주체인 작가의 글과 작품 속 자신의 딸의 말을 통해, 종교활동

에 심취하여 자신의 딸도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적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 딸을 집 밖의 낯설고 두려운 환경으로 내쫓는 사악한 ‘광신자’로 묘사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그 어머니는 천에 고아인 주인공을 입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딸로 키웠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 밖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제와 봉사 및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온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교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하여 회개를 거부하는 딸을 위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도해 온 ‘흔들림 없는 교회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유족 회관이 해산되었고, 모레캄베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부패 사건이 있었으며, 본 목사님은 파산했다고 했다. 어부들을 선교하기 위해 따로 모아 두었던 성금 대부분이 목사의 노름빚으로 쓰인 듯했다. 어머니가 걷어 들인 회비와 종교 장식품 매출에서 생긴 이익은 목사의 아내가 생활비로 썼다. 그와 사이가 나빴던 아내가 말이다. 목사하고 함께 살던 여자는 부인이 아니라 애인이었다. (O 159)

성탄절 휴가를 맞아 집으로 돌아온 지넷을 맞아들이는 어머니의 상황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봉사와 선교를 위한 사역의 내용이나 역할 또는 그 열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충성해 온 어머니는 ‘광신자’이거나 ‘원리주의자’ 또는 ‘근본주의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신뢰나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진정한 믿음의 결실은 어찌 보면 바로 지넷의 어머니와 같은 열정적인 성도들에 의해서 거두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모레캄베 게스트 하우스에서 또다시 사고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부랴부랴 현장으로 떠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넷의 의식은 충격을 받았을 어머니에 대한 상상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채워진다.

어머니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라. 유족 회관은 씹쓸한 타격을 입었고, 모레캄베 게스트 하우스는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는야말로 결정타였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가족들, 진짜 가족들은 의자와 탁자, 그리고 딱 맞는 수의 컵이다. 그런데 내게는 가족이 될 방법도 내 가족을 버릴 방법도 없었다. 어머니는 내 단추에 실을 묶어 놓았고 원할 때 잡아당긴다. 나는 다른 곳에 있는 한 여자를 안다. 아마도 그녀가 나를 구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잠들어 있다면 어찌지? 그녀가 몽유병에 걸려 내 옆을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전혀 모른다면? (O 171)



그러나 사실상 지넷이 불안한 마음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단추에 묶어 놓은 실은 그녀가 동화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자신을 옹아매기 위한 기성세대의 계략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쉽게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지넷이 또다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을 예측하면서 탈출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을 때, 교회를 닮은 어머니는 “큰바람을 일으키며 성큼성큼 들어와”(O 171) “맨체스터에게 전하는 성령의 빛”(O 171) 방송을 시작한다. 그 사이에 주인공 지넷은 비록 “남자를 위해서는” “전부를 주는 사랑”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 그림다.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림다”(O 165)라고 독백함으로써, 영육 간 변화의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고 있다.

#### IV. 나가는 말

이 작품에 대한 거의 모든 비평과 분석은 특정 종교를 무조건 비난하거나 자신의 성적 지향을 전투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진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우수한 문학적성과 거침없는 개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어머니의 영향력과 교회 성도들의 집요한 관심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출을 하지만 결국 “친구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지넷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작가인 윈터슨이 이 작품을 통해 추구했던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체성을 뒤흔들며, 결국 신앙마저 버리게 만드는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덧붙여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는”(O 138) 어머니의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작가인 윈터슨은 이와 같은 어머니의 변화를 기반으로 현대의 독자들이나 교회를 설득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어머니처럼 엄격한 원리주의 기독교인도 마침내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니까”(O 167)라고 되뇌면서 자신의 레즈비언 성향을 인정해 주었으니, 교회와 세상도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가 포스트모던적 비평인 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기반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이 작품 전반을 재검토해 본 결과,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항변해 온 한 포스트모던 소설가의 작품 속에서, 그들과 역사적 시대와 장소를 공유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와 역할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첫 번째 태도 혹은 역할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기반하여 역사의 흐



름을 읽어내며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일 것이다. 소위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과 하나님 중심의 ‘헤브라이즘’으로 시작된 문예사조의 흐름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심과 규범을 중시했던 고전주의의 사조와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했던 낭만주의의 사조 사이의 끊임없는 변증법의 흐름을 통해 변화와 진보를 거듭해 왔다. 예컨대 중세의 기독교 중심의 문화가 페스트를 겪은 후에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를 형성시켰고, 그것은 다시 16-7세기의 신고전주의라는 규범과 형식 중심의 사조로 변천했으며, 그에 대한 반동으로 18세기의 낭만주의가 발흥하게 되었다. 낭만주의의 넘치는 감성과 상상력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거쳐 1차 세계대전 이후 모더니즘이라는 형식 중심의 새로운 사조로 발전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의 식민지들이 해방되면서 억눌린 세력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소위 ‘포스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때 복음 전파에 기반한 봉사와 교육을 통해 어두운 오지에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문화와 문명의 선구자였고, 마을마다 우뚝 솟은 십자가 탑을 통해 그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좋은 소식과 축복과 교제의 마당이었던 교회는 오늘날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는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교회의 보수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적 사조의 자연스러운 변천의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심이 와해되고, 권위가 부정되며, 개인의 자유가, 그중에서도 특히 억눌렸던 개인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대가 되어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사조와 두려움 없이 직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 사조의 피라미드 위에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와 교회가 오늘날 이 모든 급격하고도 치명적인 사회적 변화를 대하는 자세는, 베이스가 경고한 것처럼 세상 사조에 휩쓸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조에 맞추어 변형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더욱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의 비성경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적대시하거나 반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포스트주의의 다양한 전략에 대한 좀 더 진지하고 철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들을 아우르며 초월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적, 영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오늘날의 교회는 ‘말’이 아닌 ‘행위’를 통한 지속적인 섬김의 자세로 세상과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이 와해되고, 억눌려왔던 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허용되고 있는 ‘포스트’ 시대에 교회는 그 말들에 대하여 같은 말로 대항하며 뒤섞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전 4: 20)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웃 사랑을 행위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대를 대하는 교회는 칼빈(John Calvin)의 주장대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

장할 때까지 양육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우리의 어머니”(843) 같은 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촉구하셨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스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마 24:18)를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바탕을 둔 유연합을 극대화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행 1:8)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의 위상을 견지하는 ‘교회같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태도와 위상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포스트모던의 중심을 앞장서서 살아가는 딸을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인 ‘예배’와 ‘구제’와 ‘봉사,’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온몸을 던져 성실히 감당하는 이 소설 속의 ‘교회 같은 어머니’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고문헌

- Baucham, Voddie Jr.(2007). Truth and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in Piper, John and Justin Taylor(Eds.)(2007)*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51-68.
- Bently, Nick (2008). *Contemporary British Fi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Bollinger, Laurel (1994). Models for Female Loyalty: The Biblical Ruth i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13(2), 363-80.
- Calvin, J.(1536).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ge. Retrieved from <https://www.ccel.org/ccel/c/calvin/institutes/cache/institutes.pdf> (2020. 11.03)
- Doan, Laura (Ed.)(1994). *The Lesbian Postmoder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iffin, Gabrielle(1994). Acts of Defiance: Celebrating Lesbians. *It's My Party: Reading Twentieth-Century Women's Writing*. Ed. Gina Wisker. London: Pluto, 1994, 80-103.
- Joyce, James (1968).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 Low, Gail (2015). Publishing and Prizes, *The History of British Women's Writing, 1970-Present*. Eds. Mary Eagleton and Emma Parker. 81-95.
- Liotard, Jean-Françoi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umi.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Onega, Susan (2006). *Jeanette Winterson*. Manchester: Manchester UP.
- Piper, John and Justin Taylor (Eds.)(2007).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 Pykett, Lyn (1988). A New Way with Words? Jeanette Winterson's Post-Modernism. *I'm Telling You Stories: Jeanette Winterson and the Politics of Reading*, Ed. Helena Grice and Tim Woods, Amsterdam: Rodopi, pp. 53-60.
- Rait, Susan (Ed.)(1994). *Volcanoes and Pearl Divers: Essays in Lesbian Feminist Studies*. London: Onlywomen Press.
- Veith, Gene Edward Jr.(1987). *Loving God with All Your Min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Wachtel, Eleanor. (1996) *More Writers & Company*. Vintage Canada.

Wells, David (2007).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in Piper, John and Justin Taylor(Eds.)(2007)*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1-49.

와크텔, 엘레너 지음/ 허 진 옮김 (2017). **작가라는 사람 1**. 서울: 엑스플렉스.

[Wachtel, Eleanor(1996). *More Writers & Company*. Trans. Huh Jin. Seoul: Explex.]

성서원 편집부 (2012). **관주 메모성경**. 개역개정. 서울: 성서원.

[Seonseowon Editing Dept. (2012). *The Memo Bible, New Revision*. Seoul: Seongseowon]

배만호 (2006). 지넷 윈터슨의『오렌지만이 유일한 과일은 아니다』(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서사기법. **새한영어영문학**. 53(4), 85-105.

[Bae, Man-ho (2006). Postmodern Narrative Technique i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Foreign Literature Studies*, 53(4), 85-105.]

# 포스트 시대 교회의 역할 -지넷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the Church in the Era of Postism -Centering on Jeanette Winterson's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김철수 (조선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영국 소설가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의 첫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속의 포스트모던 소설의 주요 특징과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고, 포스트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의 비판과 대응의 근거로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을 주창한 보디 보챔(Vauddie Baucham)의 논지를 활용한다. 구약성경의 첫 여덟 권의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작품에는 성경의 내용이 작가의 삶의 궤적에 따라 패러디되면서 폐쇄적인 기독교 사회의 억압적인 면모를 조롱하고 있다. 또한, 전설이나 동화 등이 삽입되어 작품의 함축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소설’의 서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한다. 화자는 교회와 목사, 그리고 열성 신자인 자기 어머니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광신자’로 매도하며 조롱하고, 작품의 말미에서는 그 어머니의 표현의 변화를 근거로 레즈비언인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진리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과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예배와 선교와 그리고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녀의 신앙과 봉사의 정신 속에서 ‘교회 같은 어머니’가 확인되었고, 포스트 시대에 신앙과 성도를 지켜 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바로 그 어머니 속에 구현되어 있다.

주제어: 지넷 윈터슨,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레즈비언 소설, 포스트모더니즘, 그리스도의 탁월성, 교회의 역할

##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손끝세션교회’를 중심으로-\*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Self-help Group for the Deaf-Blind: Focusing on the Case of 'Sonkkeutse' Missionary Society

고 경 희 (Kounghee Koh)\*\*

백 은 령 (Eun Ryoung Pai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a self-help group for deaf-blind people managed by 'Sonkkeutse' Missionary Society. The study covers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lf-help group', and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its attendees'. Thus, various data such as observation data, document data, and audiovisual data were collected and those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lf-help group' consisted of 7 different phases including 'beginning of the Sonkkeutse Deaf-Blind Ministry', 'making the foundation', 'incompatibility', 'independence', 'new beginning', 'going hand in hand', and 'still incomplete'. Concerning 'Participations experiences of its attendees', 7 categories such as 'meeting', 'growth pain', 'worship felt at the Sonkkeutse Deaf-Blind Ministry', 'becoming a second family', 'tactile time together', 'experiencing overseas culture', and 'serving others over me' and 14 subcategories were drawn. 53 concept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 the paper discussed the operation of self-help groups for the Deaf-Blind.

**Key words :** Deaf-Blind, self-help group, qualitative case study

\* 2020년 12월 3일 접수, 12월 18일 최종수정, 12월 22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kiewie@hanmail.net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erpaik@chongshin.ac.kr

## 1. 서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물론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사회로부터 떨어져 은둔생활을 하거나 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원한다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고립되게 된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수어를 모르는 청인<sup>1)</sup>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청인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농사회(Deaf community)를 이루고 농문화(Deaf culture)를 형성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농사회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존재한다. 듣지 못하는 농인인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게 됨으로써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농기반 농맹인<sup>2)</sup>이 그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농맹인 추정 인구는 10,815명이며, 이중 농인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농기반 농맹인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서해정 외, 2018: 102).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에 거주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기반 농맹인은 200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농기반 농맹인 전수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시청각장애로 인해 고립된 농기반 농맹인을 찾아내기 위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한국농아인협회, 2020.6.30. 기준 조사자료).

농기반 농맹인은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시각장애를 추가적으로 갖게 됨으로써 수어도 보지 못하게 된다.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볼 수도 없게 된 농기반 농맹인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외로움이다. 시각과 청각이 모두 닫혀버린 세상에서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기 전에는 철저하게 혼자가 된다(고경희·백은령, 2019: 40-49).

2007년도 ‘한국시청각장애인자립지원회’ 발족을 계기로 농맹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대되고 정보공유를 위한 당사자 중심의 자조집단이 결성되었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농기반 농맹인과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맹기반 농맹인 사이에서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2016년 농기반 농맹인을 중심으로 ‘손끝으로여는세상(이하, 손끝세)’ 자조집단이 결성되면서 농기반 농맹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었고 이듬해인 2017년에 ‘시청각장애인 권익 옹호단체 손잡다

1) 청인: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농기반 농맹인: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농맹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이라고 칭하는데 농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농맹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며,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시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농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농기반 농맹인’,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맹기반 농맹인’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단, 고유명사나 단체이름에 ‘시청각장애인’이 나오면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하, 손잡다)'가 설립되면서 손끝세와 손잡다에 의해 농맹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실 중 하나로 농맹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10월31일에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이 통과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sup>3)</sup>이 법 조항에 명시되었으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sup>4)</sup>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위 조항에 명시된 자조모임은 농기반 농맹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 지지할 수 있는 대상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보행 및 이동훈련, 심리상담, 직업,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자조집단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어 사회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적 역량도 강화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김성천 외, 2020: 82).

농맹인 자조집단의 경우도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던 농맹인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신의 역량강화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농맹인을 참여하도록 하면서 농맹인 사회의 지지체계가 점차 확대되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맹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농맹인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적 연구로는 농맹인의 교육과 재활 동향 분석(박순희, 2007),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분석(박중휘·정지훈, 2008), 국제 학술지 분석을 통한 맹농인 관련 연구 동향 분석(주혜선 외, 2015),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서해정외, 2017), 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지원 실태 분석(박경란, 2020)등이 있고 질적 연구로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적 삶 지원 기반에 대한 연구(조원석·김경미, 2018), 농인의 맹 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고경희·백은령, 2019)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농맹인에 대한 연구는 기초연구 단계라고 할 수 있어 농맹인 중에서도 농기반 농맹이라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기반 농맹인이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하며 자조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손끝세선교회'에 주목하여 형성과 발달과정, 그 모임의 의미와 가치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함의를 찾고 농기반 농맹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3) 이 법에 의하면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었다(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5항).

4) 법적 용어로는 '자조모임'으로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self help group'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직역하여 '자조집단'으로 사용하므로 문맥에 따라 '자조모임'과 '자조집단'을 병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인 손끝세는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

둘째, 손끝세 구성원과 관련자들의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 II. 문헌고찰

### 1. 농기반 농맹인의 고립감

농맹인은 청각장애에 더하여 시각장애까지 갖게 되면서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벽과 사회의 부적절한 지원으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Marion Hersh. 2013: 446),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후쿠시마 사토시, 2007: 13).

농맹인은 실명 후 고립되어 가면서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농맹인을 찾고 싶어 한다(최숙희·최인옥, 2019: 28). 그러한 농맹인에게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 농맹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후쿠시마 사토시, 2007: 13).

농인인 상태에서 시각장애까지 갖게 된 농기반 농맹인의 가장 큰 어려움 또한 고립감으로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람은 없고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며 누군가 옆에 왔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경희·백은령, 2019: 40).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간 방에서 한참을 이야기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그제야 방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나가 버린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조성재 역, 2017: 300).

농기반 농맹인은 보행, 의사소통, 정보습득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농맹인이 되기 전 손바닥 글씨로, 몸짓으로라도 소통하던 가족과도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후에는 그마저도 어렵게 되고 수어로 소통하던 농인 친구들과의 대화도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고경희·백은령, 2019: 40-41). 농기반 농맹인이 수어사용자와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손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수어 모양을 하나하나 만져가며 이해하는 촉수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일반 수어를 사용할 때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어를 사용하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소통이 줄며 관계도 소원해지게 된다. 특

히 여럿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임에서는 대화를 누군가가 전달해서 축수어로 통역을 해주어야 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담당해줄 지인이나 통역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농기반 농맹인이 겪는 보행의 어려움도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이 있다. 농기반 농맹인은 시각과 청각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음성언어로 길을 물어볼 수도 없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유로운 외출도 어렵게 된다.

정보습득에 있어서도 농기반 농맹인은 상당한 제약이 있다. 농기반 농맹인은 수어를 손으로 만져 소통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점자로 정보를 얻고자 하면 점자를 배워야하는데 촉각으로 점자를 읽는 기술을 습득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보습득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농기반 농맹인은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수어가 의사소통 수단인 농기반 농맹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 수어로 소통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이며(최숙희·최인옥 역, 2019: 28),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임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조성재 역, 2017: 267), 농기반 농맹인을 위한 자조집단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안한 공간이 된다.

## 2. 농기반 농맹인과 자조집단

자조집단은 개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모여 상호지원하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집단이었다(정영선, 1979: 11). 또한 서로에게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지지해줌으로써 당면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 이타심을 갖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강현숙 외, 2004: 1351). 또한 자조집단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상황과 삶을 공유하면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터득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준다.

시청각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서해정·임수경, 2018: 122) 농맹인이 향후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41.7%가 자조집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농맹인 자조집단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통역 및 안내 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농맹인을 위한 자조집단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NCADB(North California Association of the Deaf-Blind)와 SCADB(South California Association of the Deaf-Blind)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북부, 남부로 나뉘어 자조집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NCADB의 경우 공식적인 기관이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당사자가 리더가 되어 53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세 달에 한 번씩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한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sup>5</sup>.

일본의 경우 ‘도쿄시맹농인친우회’와 ‘오사카맹농인친우회’가 농맹인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지역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하여 ‘전국맹농인단체연락협회의’가 2006년 8월에 발족되기도 했다(후쿠시마 사토시, 2007: 15).

한국의 경우, 2006년 8월 ‘설리번의 손 헬렌켈러의 꿈 (이하, 손꿈)’이 시작되면서 농맹인 회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2007년 개최된 ‘시청각중복장애인 교육과 재활 국제세미나’를 기점으로 농맹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한국시청각장애인자립지원회’가 발족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손꿈 카페 운영진 내 갈등으로 기존 카페를 폐쇄하고 2007년 3월 현재의 손꿈 카페로 온라인 주소와 자료를 이전했다. 손꿈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온라인 카페 운영과 함께 한 달에 한번 오프라인 정모를 진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오프라인 모임을 연 1~2회밖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자조집단으로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6</sup>.

2016년 6월에 손꿈 주최로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시청각 중복장애인 제주체험나들이’를 계기로 손꿈에서 농기반 농맹인 만 독립하여 자조집단 ‘손끝세’가 설립되었다. 손끝세에 참여하는 농기반 농맹인은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혼자가 아닌 동지가 생겼으며 자조집단에서 정보를 얻고, 사는 이야기, 고민 등을 나누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한편 2017년 4월에는 20~30대 10명이 ‘손잡다’를 결성하고, 일본 전국맹농인협회의 전신인 ‘후쿠시마 사토시와 함께 걷는 회’가 맹농인 협회로 발전한 과정을 모델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농맹인 복지 마련 및 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서해정 외, 2017: 30).

이처럼 국내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의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농맹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동료상담, 정보공유, 서로 간의 격려, 지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농기반 농맹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체 및 기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 손끝세 사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형성과 발전 과정, 그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5) 에이블뉴스, 2016, "미국시청각중복장애인협회 'NCADB'", <https://www.ablenews.co.kr>

6) 설리번의 손 헬렌켈러의 꿈, 2007, "우리 카페는요", <http://cafe.daum.net/kdbu>.

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나 경계를 가진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며, 다양한 정보원 즉, 면접, 관찰, 시청각자료, 문서와 보고서등을 포함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에 대한 기술 또는 주제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사례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례, 상세히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조흥식 외 역, 2017: 126-127).

## 2. 연구사례선정

손끝세는 농기반 농맹인 중심으로 농맹인 선교, 자조, 사회 참여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이다. 2011년 장애인 선교단체 미문선교회의 송호일 목사가 맹기반 농맹인 두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농맹인 예배의 첫 출발이며, 현재 손끝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배모임이 발전하여 훗날 '손꿈'이라는 자조모임이 되었고 농학교 퇴직 교사인 최인옥 선생이 손꿈에 합류하면서 맹기반 농맹인이 주류였던 손꿈에 농기반 농맹인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농맹인이라는 공통점은 있었으나 의사소통의 수단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소통과 교류가 그리 원활하지는 않았다.

실례로 2016년 손꿈 주최로 한 '시청각 중복장애인 제주체험나들이'때 맹기반 농맹인과 농기반 농맹인이 함께한 2박3일 동안, 의사소통방법과 문화의 차이로 소통이 어긋나고 갈등과 어색함이 생겨났고, 농기반 농맹인들은 축수어 통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회의에서 농기반 농맹인들은 자신들만의 모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계기로 농기반 농맹인 모임이 출발하게 되었다. 서로의 단합을 위해 참여한 '시청각 중복장애인 제주체험나들이'가 손꿈에서 농기반 농맹인이 분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손끝세의 출발되었다.

2016년 10월25일 5명의 농맹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소재 영락농인교회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2020년 현재까지 손끝세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농맹인 회원 17명, 자원봉사자 32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과 4년여의 시간 동안 손끝세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농맹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농맹인의 고립감 해소와 상호 지지에 기여하는 자조집단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모임이라고 판단되어 사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손끝세가 시작되었던 2016년 제주도 여행에서부터 현재까지 손끝세 회원으로 참여하여 모임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사례연구를 위해 회원, 자원봉사자, 운영위원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청취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농기반 농맹인의 자조집단의 형성과 발전과정, 구성원과 관련자들의 참여 경험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례탐구를 위해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시하는데(조흥식 외 역, 2017: 126),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서 및 시청각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은 일대일의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회원 참여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하여 집으로 방문하거나 참여 모임 장소에 찾아가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일대일 축수어로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참여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한 시간 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개방형의 비구조화 된 질문으로 진행하였고, 연구 취지를 사전에 설명하여 심층면접 진행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다.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은 손끝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위원들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손끝세 농기반 농맹인 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위원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1~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자 FGI는 토의 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영락농인교회 휴게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운영위원회 FGI는 1박2일 운영위원 수련회 때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4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2016년 10월 손끝세가 설립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손끝세 모임과 농맹인부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회원이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농맹인 회원의 해외일정에 손세우미<sup>7)</sup>로 전 일정을 함께 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손끝세 내에 자조적으로 생겨나는 소모임과 스터디에도 참여하여 회원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문서자료는 손끝세 운영위원회와 담당 간사의 동의를 얻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자료 전반을 검토하였고, 기관의 페이스북과, 온라인 카페에 보관된 자료들을 검색해서 수집하였다.

### 4. 연구(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손끝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기반 농맹인 회원 3명, 자원봉사자 4명, 운영위원 4명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의

7) 손세우미: 손끝세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부르는 말

사를 확인 한 후 총 11명을 선정하였다. 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4명을 계획하였으나 한 명이 포기하여 최종적으로는 세 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면접형태		연령	성별	자조집단참여기간
일대일 심층면접	농기반 농맹인 1	50대	남	4년
	농기반 농맹인 2	50대	여	3년
	농기반 농맹인 3	30대	여	4년
면접형태		연령	성별	자조집단참여기간
FGI 1	운영위원 1	70대	여	4년
	운영위원 2	50대	남	4년
	운영위원 3	50대	여	4년
	운영위원 4	40대	여	4년
FGI 2	손세우미 1	50대	여	4년
	손세우미 2	60대	여	4년
	손세우미 3	50대	여	4년
	손세우미 4	40대	여	4년

연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면접 영상 전사를 마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면접내용 그대로 전사되었는지 확인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짧은 만남이나 문자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시 수정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한 날짜를 포함한 파일명으로 저장하였으며, 자조집단의 설립 준비과정 및 설립 이후 지금까지의 기록과 문서자료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질적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동연구자에게 확인받아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연구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와 녹화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중단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특별히 농기반 농맹인 연구 참여자를 위해서는 점자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프린트 하여 제시하고 연구자가 촉수어로 설명하였다. 연



구 참여자 중 손끝세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송호일 목사와 최인옥 선생에게는 실명사용에 대한 의사 확인과 동의과정을 거쳤다.

면접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메일로 보내어 검토 받았다.

## IV. 연구 결과

### 1. 형성 및 발전 과정

#### (1) 손끝세의 태동 : 농맹인 예배의 시작

손끝세 농기반 농맹인 예배의 전신인 미문장애인선교회는 농맹인 이외의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농맹인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맹기반 농맹인 이었던 두 명의 농맹인은 송 목사에게 별도의 예배를 요청하였고 송 목사가 이들의 거처로 찾아가 각자의 귀에 큰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맹인 예배가 시작되었다.

송 목사의 사역지 변경으로 농맹인 예배는 중단되었으나, 두 농맹인 중 한 사람인 J씨가 2007년에 농맹인 자조모임 ‘손꿈’을 조직하였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손꿈 오프라인 모임에서 농맹인 예배를 유지해나갔다.

손꿈에 농기반 농맹인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최 선생과 J씨, 송 목사의 만남에서였다. 2006년 가을, 춘천계성학교(농학교) 교사이며 저시력 농맹인이었던 최 선생은 퇴직 후를 고민하며 농맹인 봉사의 길을 찾고 있었다. 최 선생은 농맹인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신문 기사를 통해 손꿈 J씨를 알게 되었고, 춘천과 천안을 오가며 손꿈 모임에 합류하였다.

2008년, 퇴직한 최 선생과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던 J씨 부부가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농맹인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방치되어 있는 농맹인을 찾아내고, 이들이 재활하여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연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2011년 재합류 하게 된 송 목사가 손꿈의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고, 손꿈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를 보고 가족과 함께 찾아온 농기반 농맹인들이 합류하면서 농기반 농맹인도 손꿈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농맹인 당사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인 부모와 농맹인의 재활과 교육에 대하여 상담하기도 하였다.

## (2) 기초다지기: 흩어져 있던 농기반 농맹인 찾기

고립되어 살던 농기반 농맹인이 손꿈에 합류하게 되면서 손꿈은 농기반과 맹기반이 함께 하는 자조 모임이 되었다. 농기반 농맹인 A씨의 여동생이 A씨와 함께 손꿈으로 찾아왔는데, 당시에 A씨는 터널 시야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수어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촉각으로 수어를 읽는 방법을 몰라서 관계 자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최 선생은 A씨에게 발견 되지 않은 다른 농맹인들을 함께 찾아보자고 하고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갔다. 그 후 A씨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져 현재는 전맹 상태가 되었다.

두 번째로 손꿈에 연락을 해 온 사람은 농기반 농맹인 D씨의 딸이었는데, 엄마와 이혼 후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손꿈에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D씨는 전농 전맹인으로 생활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수어도, 친구도 없고 고립되어 살고 있었다. D씨의 80세 아버지는 수어를 전혀 몰랐고, D씨의 곁에는 촉각으로 수어를 해줄 사람이 전혀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D씨는 소통다운 소통을 하지 못하며 지냈다. D씨와 아버지의 소통방법은 몇 마디의 손바닥 필담과 몸짓이 전부였다.

최 선생과 J씨를 만난 아버지는 농맹인 아들과 함께 사는 애로점을 끝도 없이 토로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 자기 입에 안 맞는 음식을 차리면 밥상을 엮어버리고, 밤과 낮을 착각하여 한 밤중에 뭔가를 만든다고 망치로 나무판을 두들겨 이웃들의 항의를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최 선생은 그 아버지에게 손꿈 대표인 J씨 또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맹인이라고 말해주었고, D씨의 아버지는 D씨의 눈에 커다란 가위표, 귀에 커다란 가위표를 그리며 '너와 똑같은 사람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D씨는 어리둥절해하며 안 보이는 눈만 끔벅거리면서 손을 휘젓고 있었다. 혹시나 하고 수어로 소통을 시도해 보았으나 오랫동안 수어를 사용하지 않던 때라서 서로 잡은 손이 어긋나고 소통이 어려웠다.

J씨와 D씨가 같은 농맹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번 눈과 귀를 막는 표현을 한 후에 '같다'는 수어를 반복하자 D씨는 그제야 그 뜻을 이해하고 J씨의 손을 덥석 움켜쥐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최 선생은 그 후 여러 번 D씨의 집을 오가며 시내에 있는 농인교회로 인도하여 촉수어로 예배를 드리게 도왔고, D씨에게 필요한 시각장애 진단, 활동 지원사 연결, 기초수급 연결, 장애인 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한 안내를 해 주었다.

농기반 농맹인 B씨는 최 선생이 선교사 친구에게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농인 교회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B씨는 바둑 천재로 이름을 날렸으나 터널시야가 진행되면서부터 바둑을 둘 수 없게 되고 전맹이 되자 다니던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

B씨가 천안 손꿈 모임에 초대받았을 무렵 B씨는 시야가 거의 닫히던 시점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 선생은 B씨에게 촉각수어나 점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채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고 전농 전맹인이 된 후 손꿈과 연락이 끊어졌고, 다니던 교회도 그

만두었다는 소식을 듣다가 손꿈에서 주최한 제주도여행에서 최 선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농기반 농맹인 F씨는 어머니가 손꿈을 통해서 연락이 되어 대전 모임에 참석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최 선생은 아들에 대해 걱정이 많은 엄마에게 앞으로 아들과 같은 농맹인을 많이 만날 테니 연락을 끊지 말고 지내자고 당부해두었다. 그 후 손꿈과 연락이 끊겼다가 제주도 행사 때 F씨를 다시 만나게 된 후 손끝세가 시작된 2016년까지 꾸준한 관계를 이어갔다.

보는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던 농인이 실명하여 농맹인이 되는 순간, 눈앞에서 수어가 사라진다. 당시에는 농기반 농맹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어를 만져서 촉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농맹인 당사자나 가족 친구들도 몰랐다. 눈으로 보는 수어를 사용하다가 시력을 상실하면 농인은 친구, 교회, 사회로부터 자취도 없이 사라지거나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투명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 3) 어우러지지 못함: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인해 모임에 적응하지 못함

농기반 농맹인과 맹기반 농맹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문화 또한 차이가 크다. 농기반 농맹인은 농문화에 익숙하고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수신은 촉수어로 하고 발신은 일반 수어로 한다. 맹기반 농맹인은 시각장애인 문화에 익숙하며, 청력이 남아있다면 귀에 대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다. 청력 손실이 크다면 점화, 점자, 촉수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자신의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경희·백은령, 2019). 또한 청력과 시력의 손실 정도가 적은 경우 농기반, 맹기반에 속하지 않고 정안인,<sup>8</sup> 청인 문화에 가까우며 손바닥필답, 근접수어<sup>9</sup>, 점자 등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농기반 농맹인의 경우 제1언어가 수어이기 때문에 청인이 사용하는 음성언어와 한글 문자는 농인들에게도 농기반 농맹인에게도 제2외국어나 다름없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글자가 빠곡히 씌어있는 문서를 점자로 읽는 것보다 촉수어로 설명하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농기반 농맹인이 누군가와 소통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화자가 수어사용자라면 촉수어로 소통이 가능하나 수어사용자가 아니라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손꿈은 농기반 농맹인을 통역할 수 있는 봉사자를 찾기가 어려워 통역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촉수어로 소통해야 하는 농기반 농맹인 회원들은 손꿈 모임에 나와도 다른 농맹인 회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기반 농맹인은 세상에 농맹인이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살다가 동지들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뿐 소통의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됨으로써 점차 손꿈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

8) 정안인: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

9) 근접수어: 저시력 또는 약시 농맹인을 위해 농맹인이 보이는 거리만큼 위치를 옮겨 수어하는 것.

#### (4) 독립하기: 농기반 농맹인만의 모임으로 독립

1년에 한두 번 모이던 모임조차 어렵게 되다가 다시 모이게 된 계기가 제주도 여행이었다. 손꿈에서 는 2016년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에서 있었던 '시청각 중복장애인 제주체험나들이'에 농기반 농맹인 5명의 통역을 위해 5명의 자원봉사 수어통역사들을 섭외하였으며 연구자도 5명의 통역사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2박3일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날, 몇 년간 모이지 못했던 자조모임 회복을 위해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서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도 농기반 농맹인의 농문화는 고려되지 않고 맹기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농기반 농맹인들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였다. 그동안 손꿈 모임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참고 지냈었는데, 수어통역사들이 농기반 농맹인 회원들의 수어를 음성으로 통역해 주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을 꺼내놓았고 이제는 농기반 농맹인들이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모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주 여행을 다녀온 후 수어를 사용하는 농기반 농맹인 중심의 모임이 하고 싶다는 농기반 농맹인의 요청을 기억한 수어통역사 두 명이 송 목사에게 농기반 농맹인만을 위한 모임에 예배사역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여 농기반 농맹인을 위한 모임이 시작되었다. 송 목사는 '농맹인은 날짜를 자주 바꾸면 힘들어 한다'는 조언을 해 주었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농기반 농맹인 모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고정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에 시작된 농기반 농맹인 모임은 농맹인 5명으로 첫 모임을 시작하여 4년간 교회 행사가 많은 7월, 12월 방학을 제외하고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30분 영락농인교회'라는 모임 날짜를 지켜 꾸준한 모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농맹인 회원 17명과 자원봉사자 32명이 함께 하고 있다.

#### (5) 새로운 시작: 농기반 농맹인 모임의 시작

##### ① 새 출발

2016년 10월25일 손끝세 첫 모임이 시작되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송호일, 최인옥 외 3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2016년 11월20일 페이스북을 개설을 계기로 이를 통해 모임을 알게 된 지인들이 농맹인의 존재를 알려오면서 모임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자조 모임을 가진 지 7개월 만에 모임의 공식 이름도 갖게 되었다. 2017년 4월 첫 소풍을 가게 되었고 그때 '촉수어로 소통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손끝으로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열어준다는 의미의 '손끝으로여는세상(약칭: 손끝세)'으로 명명하였다.

2018년에는 함께하는 자원봉사들을 부르는 이름을 '손세우미'로 짓게 되었는데 손세우미는 '손을

세워주는 친구'라는 의미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주님처럼 대화가 멈춰진 삶에 찾아 온 '친구가 세워 준 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손끝으로 여는 세상에서는 농맹인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손세우미가 함께하고 있다.

## ② 같은 문화, 같은 언어로 예배함

손끝세를 시작하면서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한 것이 예배이며 농맹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로마서 10장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구절이 있는데 농기반 농맹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어나 농인이 실명까지 하면서 수어를 볼 수도 입 모양을 읽을 수도 없었으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다.

농기반 농맹인이 점자를 익히고 점자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누군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교회를 가도 저시력 농맹인에겐 근접수어로, 전농전맹 농맹인에게는 촉수어로 통역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손끝세의 예배는 농맹인이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농맹인의 시력 상실 정도와 수어능력에 따라 다양한 통역을 제공한다. 저시력 농맹인을 위해서는 근접수어통역이 배치되거나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경우 모니터 가까이 앉게 하고, 전농 전맹인의 경우 1대1로 촉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예배 순서 중 특송과 기도는 대부분 농맹인 회원이 담당하는데 손끝세 예배를 위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수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농맹인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농맹인을 사랑하시는지를 느낀 손끝세의 농맹인들은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의 간증과 기쁨의 찬양이 있다.

농맹인 연구 참여자들은 손끝세에 오기 전 홀로 고립되어 지냈을 때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손끝세에 함께 하면서부터 믿음이 회복되었고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농맹인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비전으로 갖게 되었다.

손끝세 예배로 인해 믿음을 회복한 것은 농맹인 뿐만 아니라 손세우미도 마찬가지이다. 매주 습관처럼 다니던 청인 교회에서의 예배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으나 농맹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태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농맹인의 예배는 촉각으로 만져야만 소통이 되므로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손세우미 자신은 그런 제약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감사 없이 참여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

손끝세에서 촉수어와 근접수어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체험한 농맹인들은 주일 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랐다. 영락농인교회는 이들을 위해 자리를 배치하고,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는 등 농맹인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교회 신도들 중 촉수어 봉사자를 키워 통역할 수 있도록 농맹인 부서를 새롭게 조직하였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간절히 찾으신 예수께서 무리로 돌아온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농맹인을 손끝세 예배를 통해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만나주고 계신다.

손끝세에 참여하는 농기반 농맹인과 손세우미는 같은 언어로 소통하며, 같은 문화로 공감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복음을 사회로 나오지 못한 농맹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 ③ 농기반 농맹인과 함께 촉각으로 느끼는 만남

손끝세의 공식적인 모임 시간은 10시30분이며 11시에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하기 전에 손끝세에서 꼭 가지는 시간은 '인사하기'이다. 정안인은 모임 장소에 오면 누가 왔는지 보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인사할 수 있지만 농맹인은 손잡게 해주지 않으면 2박3일을 함께해도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2016년 제주도에서 2박3일을 함께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농맹인 K씨가 연구자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2박3일 기간 동안 아무도 자신을 농맹인 F씨에게 데려다 주지 않아서 한 마디도 대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급히 자리를 바꿔 K씨와 F씨를 옆에 앉게 했고, 2박3일간 여행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누었어야 했다.

손끝세는 이런 이유로 10시30분이 되면 동그랗게 둘러서서 처음 인사하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꼬리 물기처럼 인사 마친 사람은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으로 인사하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와 인사 나눌 수 있으며, 누가 참석하였는지 알게 된 농맹인은 하루 동안 모임 장소에 있으면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안내해 줄 것을 손세우미에게 부탁하면 된다.

손끝세는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모여면서 1부 예배, 2부 친교시간을 통해서 농맹인 회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부 예배에는 농맹인의 시력 상실 정도와 수어 능력에 따라 손세우미를 배치하여 맞춤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손끝세 모임 공지 때부터 참여할 농맹인과 손세우미를 매칭하여 저시력 농맹인에게는 근접수어 통역을, 전농전맹 농맹인에게는 촉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손끝세의 2부 순서인 친교시간은 농맹인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을 시에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부 순서는 시각장애인용 윗놀이, 농맹인 보행방법 훈련, 외국 농맹인 전문가를 초대하여 진행하는 글로벌 토크쇼, 햅틱시그널<sup>10</sup> 배우기, 국제수화 배우기, 시각장애인용 카드놀이, 레크리에이션, 성탄절 선물교환, 요리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손끝세는 4월과 10월엔 당일치기 또는 1박2일로 사회체험활동을 진행하여 어린이대공원, 전주, 부산, 천안아산, 목포 등을 여행하였는데, 여행 때마다 놀이기구타기, 바다 체험, 수영, 짚라인 타기 등 농맹인이 되면서 도전해 보지 못했던 체험을 하게 하여 농맹인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10) 햅틱시그널(Haptic signal):백사인(Back sign)이라고도 하는데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맹인이 주변 환경과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등이나 팔에 신호를 주는 것을 말한다.

#### ④ 시행착오를 겪음

손끝세 모임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농맹인 회원이 정식으로 촉수어통역 지원을 받은 것이 제주도 여행이 처음이었고, 손세우미도 농맹인을 만나 촉수어를 해본 것이 난생 처음이어서 서로 모든 것이 서툴렀다. 농맹인을 안내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농맹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만난 모임이기에 농맹인도 손세우미도 시간을 가지며 기다려야 했다.

손끝세는 농맹인 회원과 손세우미가 여러 사람과 교체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에 손세우미를 교체한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끔 농맹인 회원이 혼자되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담당하던 손세우미와 교대하게 될 손세우미의 사인이 안 맞아 먼저 담당하던 손세우미는 새로 지정된 농맹인 회원에게 가고, 교대해야 할 손세우미가 오지 않은 농맹인 회원은 하염없이 그 손세우미가 오길 기다려야 했다. 이와 같은 실수는 실내에서 이루어졌던 모임에서 뿐 아니라 외부로 여행할 때도 발생하였다. 교대 시 착오가 생겨 농맹인 회원이 주차장에 홀로 남겨져 당시 여행에 참여했던 손끝세 회원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다. 홀로 남겨졌던 농맹인 회원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어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에 그 이후로 손세우미 교체는 ‘맞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세우미를 교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손세우미의 촉수어 통역 실력 때문이었다. 통역에 능한 손세우미를 만난 농맹인의 하루는 즐거운 반면 서툰 손세우미를 만난 농맹인은 상황과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만족스럽지 않은 통역이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었다.

#### ⑤ 농맹 전문가에게 기초부터 다시 배운 후 농맹에 대해 눈을 뜨게 됨

미국에서 농맹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C씨가 마침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손끝세는 C씨를 모임에 초대했다. C씨는 농맹인인 남편과 미국에서 살면서 농맹인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 손끝세 회원들을 미국으로 초청한 사람이다. C씨는 농맹인을 안내하는 법, 촉수어로 소통하는 법, 근접수어로 소통하는 법, 농맹인을 위한 에티켓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교육을 통해 손끝세 회원들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다.

손끝세가 SNS에 활동 모습들을 올리고 홍보한 덕분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농맹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손끝세를 찾아오기도 한다. 연구자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만난 일본 농맹인 G씨도 한국에 왔을 때 연구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손끝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해서 손끝세에 초대하게 되었다. G씨는 일본의 농맹인 지원 상황과 농맹인으로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회원들에게 들려주었고, 손끝세의 농맹인 당사자 회원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덴마크에 입양되어 간 한국인 N씨는 덴마크에서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되었다. SNS를 통해 손끝세를 알게 되어 모임에 오게 되었고 손끝세와 함께 하면서 한국 수어도 배우고 덴마크의 농맹문화도 전해주었다.

N씨는 덴마크의 농맹인들이 사용하는 햅틱시그널에 대해 손끝세에 소개하였고, 손끝세는 이를 계기로 하여 한국형 햅틱시그널인 '촉신호'개발을 위해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서툴렀던 손끝세에 해외의 전문가들은 단비 같은 존재였고, 손끝세는 그들을 통해 더 나은 통역과 지원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손끝세 회원들은 어느덧 제2의 가족이 되어 안 만나면 허전하고, 보고 싶은 사이가 되었다.

### ⑥ 농기반 농맹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조 모임

손끝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농기반 농맹인 당사자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조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손끝세에 먼저 참여한 농맹인 회원이 나중에 참여한 회원에게 농맹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동료 상담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공부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조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다. 손끝세는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도 회원의 필요에 의해 삼삼오오 모임을 갖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모임이 수어스터디, 성경통독모임, 여행 모임이다.

2017년, 미국 라이트하우스에서 농맹인 전문가로 일하는 C씨의 지원을 받아 그해 8월, 농맹인 회원 4명과 손세우미 3명이 미국 나파에서 개최되는 농맹인 캠프에 참여하였다. 그것을 계기로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농맹인대회, 2019년 호주에서 개최된 DBI(Deafblind International) 세계농맹인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견문을 넓혔고, 농맹인 당사자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다. 2017년 미국 방문 시 외국 농맹인과 대화할 때 농맹인 당사자가 직접 소통하려면 그 나라의 수어를 배워야 함을 깨달은 회원들은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농맹인대회 때부터는 사전 스터디모임을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일본 대회에 참석하기로 한 농맹인회원과 손세우미가 만나 일본 수어를 공부하였고 2019년 호주 컨퍼런스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3개월 동안 국제수화를 익혀 참석하였다.

성경통독 모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들은 1년 동안 성경 1독을 목표로 하듯이 손끝세 회원도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싶은 회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매일 자신이 읽을 분량을 완료하면 '완료'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은혜 받은 성경구절이나 말씀 묵상 등을 나누며 온라인 성경통독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의 농맹인 회원이 모여 따로 여행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해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며 함께 교류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주어지는 모임을 기다

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기획하고 모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손끝세의 기초다지기가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손끝세의 큰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 (6) 손잡고 함께 가기: 외부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

손끝세에서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오면서 손끝세 뿐만 아니라 농맹인과 함께 하고 싶은 다른 단체에서도 손끝세를 찾아오게 되었다. 농맹인 회원은 손끝세에 찾아온 다른 기관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기관이 주최하는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

손끝세가 플랫폼이 되어 각 단체와 연계하고 협력하며 손끝세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농맹인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기관이 헬렌켈러센터,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 제주도농아복지관, 손잡다 이다.

#### ① 헬렌켈러센터: 농맹인 당사자 교육 및 후원

헬렌켈러센터는 2019년 4월 밀알복지재단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농맹인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다. 헬렌켈러센터의 담당자는 손끝세의 손세우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농기반 농맹인 회원 A씨를 헬렌켈러위원회 농맹인 당사자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호주 DBI 컨퍼런스 때도 손끝세 참가자들을 위해 적지 않은 후원금을 지원해 주었고, 최근 헬렌켈러센터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 농맹인, 수어통역사, 농맹인 전문가 등 50여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를 개최하였는데, 손끝세 회원도 그 캠프에 참여하여 농맹인 법안 마련에 농맹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돌아왔다. 2020년 21대 국회에 제출할 헬렌켈러법안 제정 지원을 위한 당사자 토론회모임이 9월, 10월에 걸쳐 5회차로 진행되었다. 헬렌켈러센터는 손끝세와 콜라보를 이루면서 농맹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며 당사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②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 농맹인 전문 수어통역사와 당사자 강사 양성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손끝세와 함께 2018년 8월27일-28일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 과정 1기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농맹인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뿐 아니라 당사자 강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손끝세에서는 2018년 일본 아시아농맹인대회를 위해 참가자인 농맹인들과 함께 할 통역사를 모집하였다. 일주일간 농맹인을 안내하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농맹인 안내법, 소통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임을 고려하여 손끝세의 운영진과 농맹인 리더의 도움을 받아 제1회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을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와 함께 진행하였고, 그 양성과정을 통해 수료한 수강생중 5명의 지원을 받아 일본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농맹인 당사자를 강사로 양성하여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에서 농맹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2020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진행하는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에 농맹인 당사자를 강사로 보내고 있다.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양성된 농맹인 전문 수어통역사들은 기본 1박2일 과정에 참여한 인원만 46명이며, 3시간 기초교육에 참여한 수어통역사는 전국에 걸쳐 250명이 넘는다. 이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농맹인에게 곧바로 의사소통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농맹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손끝세의 농맹인 당사자 강사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자신이 쓰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손끝세와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진행했던 제1회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에 강사로 초대받은 순간 너무 떨렸어요. 헬렌켈러센터가 2017년 세워지고 내가 강의 했을 때도 너무 떨렸는데 사람들이 감동 받았다고 하고 좋았다고 하니깐 저도 좋았고 제주도에 강사로 초대 받았을 때는 느낌이 달랐어요(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농맹인 당사자 강사로서)어둠속에서 방황하는 농맹인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수어통역사들은 농맹인 당사자가 해당지역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지원 해주고 있다.

### ③ 손잡다: 농맹인 권익 옹호 활동

손끝세는 농기반 농맹인 모임이다 보니 농문화, 수어 등에는 강점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농맹이 알아야 할 정보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손잡다가 채워주었다.

손잡다는 매주 금요일 자조모임을 통해 농맹인 당사자들이 서로 지원하고 상담하면서 점자배우기, 보행, 사회체험활동을 통해 농맹인 당사자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손끝세의 회원들도 손잡다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자를 배우고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내 사용법을 배워 카톡, 페이스북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손잡다에 오는 맹기반 농맹인들에게 수어를 가르쳐 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잡다에서 점자를 배우고 점자정보단말기 사용법을 배운 손끝세 회원들은 손잡다 에서 대여한 점자 정보단말기로 카톡을 연결하여 손끝세 회원 카톡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 카톡으로 인사를 하게

된 날을 손끝세 회원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손잡다는 시청각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시청각장애인대회, 동료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농맹인 당사자와 함께 하고 있다.

#### ④ 함께 하는 작업, 함께 하는 공간

손끝세는 2020년 1월, 한국형 햅틱시그널인 ‘촉신호<sup>1)</sup>’개발을 위한 연구 모임을 구성하였다. 연구 모임에는 농맹인 당사자 4명과 손끝세선교회 운영위원, 3년 이상 농기반 농맹인의 수어통역사로 활동해 온 수어통역사 8명,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 헬렌켈러센터 담당, 제주도농아복지관 농맹인서비스 담당 2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손끝세는 농맹인과 관련된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콜라보레이션<sup>2)</sup>을 이루어간다. 최근에 송 목사가 만난 한 조각예술 전문가는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어 그 작품의 형상보다 그림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조각가로 유명하다. 조각예술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그림자의 형상이 어둠 속에서 더 의미 있는 농맹인의 삶과 같다고 고백한다. 그 조각예술 전문가는 ‘미술작가들을 위한 코로나 긴급지원’서울시 사업에 지원하여 손끝세의 모임공간인 영락농인교회에 농맹인들과 작품을 만들어 설치하는 기획을 제안하였고 3차 까지 통과되었다. 지원사업이 통과되면 농맹인들이 이정표 작품을 만들어 교회 곳곳에 설치하여 손으로 만지며 길을 찾을 수 있게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2020년 10월, 농맹인 캠핑장이 세워졌는데, 송 목사가 전 재산을 털고 빚을 내어 지은 한옥식 구조의 집 4채이다. 그 집을 지은 목적은 농맹인들의 모임 공간을 만들고,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농맹인 캠핑장은 ‘손을 쥌다’는 뜻에서 ‘손쥌’이란 이름으로 정했으며 농맹인 뿐만 아니라 농맹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손끝세는 이제 혼자서 고립된 삶을 떨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쉼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최근 농맹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면서 손끝세 모임 이외에도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손끝세는 농맹인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지원하지만 손끝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 (7)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

손끝세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이루어 냈으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드러나지 않은 농맹인을 찾는 것과 농맹인의

1) 촉신호: 한국형 햅틱시그널 연구모임에서 햅틱시그널을 한국어 명칭으로 지은 이름이다.

당사자성을 더욱 세워주는 일이다.

국내 농기반 농맹인이 200명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손끝세 회원은 17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농기반 농맹인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농기반 농맹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연구가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회원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농기반 농맹인까지 포함한다면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2016년 손끝세에서 처음 만난 농맹인 회원의 모습과 현재 농맹인 리더로서, 당사자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모습은 천지차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던 버려진 돌맹이 같은 삶에서 벗어나 당당히 농맹인 당사자로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 손끝세는 아직도 집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농기반 농맹인을 찾아내는 '보물찾기'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 현재의 손끝세 회원처럼 자신의 삶을 나누고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려한다.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성'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손끝세는 2018년 10월, 농맹인 당사자 부장단을 구성하였는데 손끝세에 꾸준히 참석했던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부장, 친교부장, 회계부장, 국제교류부장, 교육부장, 예배부장이 그러하다. 이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던 것을 부장단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당사자 중심'구조로 변경하였다.

손끝세에서 농맹인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반드시 농맹인 리더인 부장단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며 손끝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사회를 본다거나 특송, 대표기도, 레크리에이션 진행 등도 농맹인 당사자가 맡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손세우미나 운영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농맹인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농맹인 회원을 그곳으로 안내해주고 촉수어 통역으로 지원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농맹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국회에 '헬렌켈러법'이 발의 되는 등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농맹인 사자의 목소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헬렌켈러법 법안에 농맹인 당사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전국 농맹인 실태조사 사전 작업인 농맹인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에 농맹인 당사자가 초대되어 의견을 내기도 했다.

손끝세는 숨어 있는 보석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농맹인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다.

## 2. 연구 참여자의 참여 경험

연구 참여자의 참여 경험으로 아래 <Table 2>에 제시한대로 '만남', '성장통',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제2의 가족', '촉각으로 함께 하는 시간', '해외 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하게 됨',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등 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Table 2. Experience of Research Participants

범주	하위범주	개념
만남	동병상련, 고립에서 벗어나 동지를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에서 만났던 농맹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그리웠는데 농기반 농맹인모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함</li> <li>-손끝세에서 다른 농맹인을 만나기 전에 농맹인은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음</li> <li>-농맹인이 된 후 자신감도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우울증도 왔음</li> <li>-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농맹인을 만나니까 반갑고 좋았음</li> <li>-농맹인 친구들 만나고부터 농인친구들과의 만남이 좋고 농맹인친구와의 만남이 더 많이 늘었음.</li> </ul>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맹인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에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음</li> <li>-첫 만남에서 '저는 청각 시각 언어 중복장애자입니다' 라고 인조가족에 쓰인 것을 앞뒤에 메고 왔을 때 가슴이 아파 울었음</li> <li>-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음</li> <li>-그동안 농맹인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게 미안한 마음</li> </ul>
성장통	시행착오를 통해 더 배우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포로 여행 갔을 때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이 주차장에 혼자 남겨진 적이 있음</li> <li>-촉수어로 인사하는 방법을 몰라 근접수어통역으로 시작했음</li> <li>-농맹인과 촉수어로 소통하는게 어색했으나 교제하다보니 마음에 변화가 있었음</li> <li>-처음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촉수어도 잘하게 되었음</li> <li>-통역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 전달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름</li> </ul>
	갈등을 통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맹인 동료와 문자로 인해 오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아팠음</li> <li>-손끝세는 마음공부 하는곳 이라는 생각이 들</li> <li>-저시력인 나도 관심 받고 싶었는데 관심 가져주지 않아 실망하고 좀 외로웠음</li> <li>-갈등이 있어 독립하게 되었지만 맹기반 농맹인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li> </ul>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이 농맹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따뜻한 느낌임</li> <li>-손끝세에 함께 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었음</li> <li>-촉각으로 느껴야 하는 농맹인의 예배를 통해 내 신앙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됨</li> <li>-농맹인들의 대표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감동이 있음</li> </ul>



제2의 가족	못만나도 외롭지 않은 신세계, SNS	-점자정보단말기를 연결해서 카톡을 설치 한 후부터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음 -점자정보단말기로 행사소식도 듣고 시간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재미있음
	사랑을 만나다	-손끝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더 힘내서 손끝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외로움 대신 그리움, 또하나의 가족	-손끝세 모임이 있는 마지막 주를 기대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 -아기 키우느라 손끝세 모임에 가지 못해 속상함 -익숙하지만 특별하게 내 삶의 일부가 된 농맹인과 함께하는 시간 -처음에는 다 눈물 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친구로 보임 -또하나의 가족, 손끝세
촉각으로 함께하는 시간		-손끝세와 여행하면서 불안과 속상함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어서 좋았음 -요리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하니 좋았음 -예배 마치고 윗놀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함. -손끝세 모임에서 농맹인 사회에 대한 궁금증도 서로 물어보고 정보를 나눔
해외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하게 됨	제 2 외국어를 배움	-외국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국제수화를 열심히 배웠으나 배운 것을 까먹어서 아쉽고 당황했음 -국제수화 열심히 배워서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음 -처음 외국에 갔을 때 서툴렀지만 일본을 방문 했을때 소통이 잘되었음. -외국 친구들과 통역사 없이 직접 대화할 수 있어 좋았고 손의 느낌이 신기했음 -일본 농맹인과 한국 농맹인을 소개만 시켜주면 알아서 대화 하는 모습을 보고 외국에 동행하는 것에 걱정이 없어짐
	해외컨퍼런스에 참여하기	-미국에 갔을 때 너무 좋았어서 다른 나라에 또 도전하고 싶음 -외국은 농맹인 생활에 대해 배울것이 많아 다양한 경험을 하였음 -외국에 갔던 추억은 넓은 세상을 경험한 느낌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온 농맹인과 손세우미들의 변화	-외국에서 배운것들을 나누면서 손끝세도 그 이후 더욱 발전되었음 -통역해주는 내용을 기억해서 다른 외국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사명감을 가지고 통역해야겠다고 느낌. -마음가짐이 많이 변화되었고 농맹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다짐함 -외국 농맹인들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원 해야겠다고 다짐함
나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	만나 나누기	-최 선생이 산파역할을 했다면, 나는 산파가 잘 낳을 수 있게 구조물 역할을 했음 -외국에 손세우미로 가야할 때 자비로 가는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부족하면 내가 내며 농맹인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보람을 느낌 -돈쓰는게 아깝지 않음, 빈손으로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함
	헬렌켈러에서 설리번을 꿈꾸다	-농맹인으로서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교류하고 싶음 -미지 않는 농맹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음 -전국에 숨어있는 농맹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 (1) 만남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던 농기반 농맹인은 손끝세를 통해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손세우미를 만나게 되었다. 농인으로 살다가 농맹인이 된 후에는 농사회에서조차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제 동지가 생겨 그 만남이 반갑고 애뜻하다. 손끝세의 농맹인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지와의 만남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소통다운 소통을 한다.

### ① 동병상련: 고립에서 벗어나 동지를 만남

농기반 농맹인 모임을 애타게 기다려온 A씨는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때를 그리워했다. 자신과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농맹인의 모임은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더욱 간절해졌으며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다.

“제주도에 다녀온 후 다시 모이고 싶고 그림고 그랬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 또 만나고 싶다 생각했죠. 언 제쯤 다시 모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월에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요. 한국 최초 농기반 농맹인 모임이잖아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농기반 농맹인 연구 참여자들은 농맹인 모임에서 농맹인을 만나기 전엔 세상에 농맹인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다. 농인으로 살다가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농인 친구와의 만남은 더 이상 ‘동병상련’이 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각과 청각, 언어장애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기반 농맹인의 삶을 당사자가 아니면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맹인이 된 후에도 농인 친구들이 찾아와 놀아주었지만, 항상 함께 있지는 못하고 잠깐 놀고 헤어져 또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점자책을 빌려 읽고 반납하고를 반복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우울증까지 왔다. 그러던 중 손끝세에서 자신과 같은 농기반 농맹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농인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이고 농맹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렸다. 농맹인 친구들을 만나면 통하는 게 많아 서로 소통이 잘되고 반가웠으며 애뜻했다.

“농맹인 친구 만나고 부터 농인 친구들 만나는 걸 줄이고 농맹인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요. 농인 친구 만나면 내가 농맹인 이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지만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농맹인 인데 친구는 농인이라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화를 해도 별로인 느낌이 들고요. 농맹인 친구 만나면 나와 상황이 같아서 더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만남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 ②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

손세우미들은 손끝세에 참여하기 전까지 농맹인의 존재를 몰랐다. 손세우미들은 20년 이상 오래 수어를 해왔지만 농인으로 살다가 농맹인이 되어 농사회에서 사라진 농맹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에 충격을 받았으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농맹인을 처음 만났을 때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수어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농맹인에 대해 몰랐을까”(손세우미 참여자 4)

“헬렌켈러가 농맹인 인건 알았지만 나와 같이 사는 세상에 농맹인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지금까지 농맹인을 모르고 살았던 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손세우미 참여자 2)

손세우미들은 손끝세 첫 만남 때 한 농맹인이 자신이 시청각장애가 있음을 알리는 인조가족으로 된 표지를 앞뒤로 붙인 배낭을 메고 왔을 때 가슴이 아파 울었으며, 손끝세 4년을 지나면서 농맹인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 B씨가 손끝세 올 때 노란 레자에 '저는 청각 시각 언어 중복 장애자입니다'라고 쓰고 앞뒤로 매고 왔어요. 그때 완전 눈물바다였어요”(손세우미 참여자 3).

“농맹인 분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전엔 어떻게 살았을까. 다 보셨던 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 부터가 아니고 점점 안보일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싶은 거죠.”(손세우미 참여자 2)

농맹인 자신도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손세우미들도 태어나서 처음 만나본 농맹인이었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다.

## (2) 성장통

손끝세 회원들은 서로에 대해 너무 아는 게 없었던 상태에서 모임을 시작하다보니 만나면 반가웠으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모든 게 서툴렀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방법을 배우고 익숙해져 갔다.

사람이 모여 있는 모임이라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

도 했다. 그런 과정 또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갈등이 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맵기반 농맹인과 따로 모임을 갖게 되었으나 이제 손끝세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겼다.

### ① 시행착오를 통해 더 배우게 됨

손끝세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농기반 농맹인 모임이어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손끝세 회원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원받아야 하는지 알아가야 했고 농맹인 회원들도 그 시간을 이해하며 참아주었다.

손끝세에서는 통역을 배치 할 때 농맹인 회원 한 명에 손세우미 한 명을 배치하나, 통역사마다 전달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농맹인 회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오전, 오후 또는 일정별로 통역사를 교대해서 배치한다.

어느 날, 지방 여행 때 통역사 배치를 전체 카톡으로 주고받은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식사장소로 이동하였다. 차에서 내려 각자 교체된 농맹인 회원을 안내하여 식당으로 갔으나 한 농맹인을 담당한 손세우미가 교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래 담당했던 농맹인과 함께 했고, 교대된 손세우미는 교대된 대로 담당하게 되었다. 한 명의 농맹인 회원에게 두 명의 손세우미가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 자신과 동행하는 농맹인 회원 외에도 두루두루 서로 도와주고 지원해주던 터라 그 상황이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 지역 목사님들의 섬김으로 진수성찬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에 모두 정신을 놓고 있었다.

농맹인과 함께 식당에 가면 눈앞에 있는 반찬들의 위치를 다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손세우미는 몸도 마음도 바쁘다. 한참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손세우미가 ‘A씨 어디 갔지요?’라고 했고, 모두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어 일부는 농맹인 회원을 찾으러 혼비백산 하며 뛰어나가고 일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낸 끝에 혼자 방치된 농맹인한테서 걸려온 전화, 어렵사리 찍은 티가 역력한 메시지로 ‘주차장 어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아찔한 상황,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농맹인 회원 혼자 남겨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A씨는 주차한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차 옆에 딱 붙어 서 있었기에 안전한 장소였지만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손끝세 회원들과 운영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때를 회상하며 A씨는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작년에 목포 갔을 때 횃집에서 모두 가고 저를 안내해 주는 사람 없이 제가 혼자 주차장에 남겨진 적이 있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었고 혼자 방황(망연자실)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경험 삼아 다음에 주의하겠지 생각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그날 이후 손세우미를 교대할 때는 이전의 손세우미와 다음 손세우미가 맞교대하고, 교대 공지는 문자로 하지 않으며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맞교대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부분의 손세우미들은 손끝세에 온 날이 농맹인을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이어서 인사하는 방법도 대화하는 방법도 배워본 적이 없다. 수어를 20년 이상 사용해왔다는 베테랑 통역사도 농맹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 찢찢매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농맹인마다 축수어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다르고 시각의 상실 정도, 청력의 상실 정도가 다르기에 한 사람 한사람 맞추어가며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 떨렸죠, 일등으로 도착했어요. 그때 사모님도 처음 뵈고 여기 처음 왔는데 아무도 안 와 계시고, 오시면 어떻게 인사해야 해? 만나면 내가 인사 어떻게 하지? 인사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손잡고 제 이름 처음 써드리고 간단히 인사했고요. 첫날은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근접수어통역을 했죠.”(손세우미 참여자 1)

축수어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법을 모르기는 농맹인도 마찬가지였다. 시력 상실정도에 따라 가까이서 수어하면 보이는 저시력 농맹인도 있지만 시각으로는 전혀 수어를 인지할 수 없는 전농전맹 농맹인의 경우, 상대방의 수어를 만져서 촉각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손을 만진다는 것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러나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했고 만남이 잦아지면서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촉각이 민감한 농맹인의 경우, 한손의 수어만 만져도 내용 인지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다.

“원래는 농맹인을 만나기 싫어서 소극적이었어요. 같은 농맹인 끼리 축수어로 소통하는 게 어색했기 때문이에요.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이어가던 손끝세는 농맹인을 안내하는 방법, 농맹인과 소통하는 방법도 모른 채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미국 라이트하우스의 농맹인 담당자인 C씨를 손끝세에 초대하면서 농맹인을 위한 통역방법, 안내방법, 에티켓 등을 하나하나 배웠고 손세우미들은 배우고 익히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모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면서 통역을 했던 손세우미들은 농맹인 회원들에게 축수어로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농맹인 회원들도 선호하는 손세우미가 생겼다.

“어떤 통역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달 받는 양이 다르거든요. 어떤 통역사는 (잘 전해 줘서) 느낌이 좋지만 가끔 (잘 전달 못 받을 때도 있어서) 별로 일 때도 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 ② 갈등을 통한 성장

어떤 사회나 어떤 모임이나 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손끝세도 성장통 같은 갈등과 가슴앓이가 있었다.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성장통을 겪으면서 손끝세는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져갔다.

정안인, 청인도 간혹 음성으로 통화하지 않고 문자로만 대화가 오고갈 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듯이 농맹인 사이에도 문자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다. 그 갈등의 문자를 지켜보는 모든 회원들이 가슴을 졸이며 그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한다. 그 시간은 갈등의 원인인 농맹인 당사자뿐 아니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회원들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다.

“손끝세 선교회는요. 마음 공부하는 곳이고 우리가 많이 성숙해지는 학습장인 거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을 배우지 못 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뽐고 거침없이 ‘내 생각이 옳아’라고 행동했었는데 여기서는 서로 조율하고, ‘아, 이런 때는 말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누구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 같아요. 물 흐르듯이.”  
(운영위원 참여자 1)

손끝세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배려의 정도가 다르다 보니, 다른 회원에 비해 경증인 회원이 서운해 하는 때도 있다. 전농전맹만 농맹인이 아니라 저시력 농, 저시력 난청, 맹 난청도 모두 농맹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손끝세는 전농전맹과 저시력 농맹인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축수어로 소통해야 하는 전농 전맹인에 비해 잔존시력이 남아 있고 수어 사용자인 저시력 농맹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저시력 농맹인들은 때로는 서운하고 외톨이임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농 전맹인을 위해 자신이 농맹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농 전맹인 동지들을 안내하거나 지원하기도 한다.

“저는 시야가 좁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제가 잘 안 보이는지 (겉으로는) 알아볼 수 없으니까 농맹인만 관심 가져주고 그랬어요. 나도 관심 받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는 관심 안 주냐. 실망은 안했지만 좀 외로웠어요. 그냥 나는 혼자 활동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겼죠.”(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3)

농맹인은 시야가 좁거나 시력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손끝세는 알고 있었다. 시력이 남아 있어서 활동은 가능하지만 불편한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들이 외롭지 않게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손끝세의 시작은 맹기반 농맹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모임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손끝세 회원들은 맹기반 농맹인이 대표로 있는 '손잡다'에도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익혀야 할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손끝세는 이제 성장통을 이겨내고 더 성숙해진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대전 장애인 선교회에서 맹농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제주도에서 삐걱 하는 바람에 (손끝세가) 새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로 가는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방향을 잡아갈 것은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농맹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있었구나를 확인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나누는 관계로 발전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운영위원 참여자 2)

손끝세 운영위원들은 손끝세가 문화와 언어가 다른 농맹인 모임에서 독립하여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면서 농기반 농맹인과 맹기반 농맹인이 기반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 (3)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손끝세의 예배에는 여러 가지 통역 방식이 동원된다. 일반적으로 단상에는 설교자가 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손끝세 예배에는 설교자가 단상 아래에 앉고 단상에 메인 수어통역사가 선다. 그 이유는 메인 통역사가 단상에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수어통역을 해주면 그 통역을 보고 농인통역사가 농맹인에게 축수어 통역을 해주고, 저시력 농맹인들은 앞자리에 가까이 앉거나 중간자리에 있는 커다란 TV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메인 통역사의 수어를 보기 때문이다.

농맹인 회원들은 손끝세 예배 때 설교에 특히 은혜를 받는다. 왜냐하면 송 목사가 준비하는 설교는 농맹인 맞춤 설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농맹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농맹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손끝세 농맹인에게 딱 맞는 설교라 은혜로워요. 보통 농인교회의 설교는 (문화가 다르니까)별로지만 손끝세에서 하나님이 농맹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따뜻한 느낌을 받죠.”(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3)

손끝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농맹인 회원들은 농맹인이 되면서 사라진 줄 알았던 민

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 농인으로 살다가 시력을 잃은 농맹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신앙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기에 신앙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웠으나 손끝세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있음을 고백했다.

또한 손끝세에 참여하는 손세우미들은 모임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축각으로 느끼며 말씀을 듣고 있는 농맹인 회원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회개한다고 했다. 또한 손끝세 예배를 통역하면서 날로 밝아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농맹인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은혜를 받으며 도전을 받는다.

손끝세 예배에서는 농맹인 회원들이 돌아가며 대표기도를 하고 특송을 한다. 한 달 전에 공지된 대표 기도를 위해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농맹인 이름을 말해가며 기도하는 회원,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간절히 부르짖는 회원, 그 기도를 보고 있는 정안인 회원들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가식적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는지를 회개하는 시간이 된다. 농맹인 회원의 특송은 온몸으로 부르는 찬양이다. 들리지 않아 반주도 필요 없고, 보이지 않아 가사를 띄울 필요도 없으나 자기 나름대로의 리듬을 담아 특송에 간절하게 신앙고백을 담아낸다.

“제가 청인 교회 갔을 때는 그냥 예배다. 누가 대표 기도하시면 아, 하시나보다 그런데 A씨가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F씨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완전 느낌이(감동이죠) 감정이 좀 달라요.”(손세우미 참여자 2)

손끝세가 추구하는 목표는 농맹인 회원들이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행복해 지는 것이다. 손끝세는 예배를 통해서 농맹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시청각장애를 겪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농맹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길 소망한다.

#### (4) 제 2의 가족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食口)’라고도 한다. 그 의미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손끝세는 4년 여를 함께 해오면서 함께 소통하고 예배하면서 삶을 나누었기에 그런 의미에서 식구이고 가족이다. 세상에서 혼자인 줄 알았던 고립에서 벗어나 손끝세에 나오면서 이제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그 안에서 사랑을 키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다.

#### ① 못 만나도 외롭지 않은 신세계, SNS

농맹인 회원들이 손끝세에서 당사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가 ‘한소네’라는



점자정보단말기이다. 농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면 촉각으로 수어를 읽는 것은 물론이고 점자를 배워 손끝으로 읽는 능력을 훈련하고 키워야한다. 점자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는 매우 크다. 웹상에서 보여 지는 정보를 점자로 읽을 수 있는 도구인 점자정보단말기의 소유 여부도 정보 습득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농맹인 회원 중에 점자정보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다른 농맹인들에게 점자정보단말기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손끝세를 통해 알게 된 단체로부터 기기를 대여 받고 방법을 익혀 사용하면서 손끝세 카톡방은 매일 시끌벅적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 점자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농맹인 회원들이나 점자정보단말기를 갖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농맹인 회원들은 활동지원인이나 시설의 담당자를 통해 정보와 소식을 전해 들어야 하지만, 점자정보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과는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점자정보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농맹인 회원들은 손끝세 모임이 없는 날에도 카톡으로 회원들과 수다를 떨며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외롭지 않다. 손끝세 단체 대화방 뿐 아니라 농맹인 친구들과도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며 소식도 듣고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한소네와 연결해서 카톡을 설치한 후 카톡으로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고 심심하지 않았어요. 한소네 덕분에 다른 농맹인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나면 한소네도 읽고 너무 재미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농맹인 회원들은 손끝세에 모임 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누며 함께 발전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가 옆에 있는지 농맹인은 알 수가 옆에 누가 있는지 알려주고 서로 손잡아 주어야 그 때부터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손끝세는 농맹인 회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농맹인 당사자들의 자조가 형성되고 서로 지원하고 도와가며 성장하고 있다.

## ② 사랑을 만나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사랑’이 있다. 친구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지만 남녀 간에 짝트는 사랑은 손끝세 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농기반 농맹인 참여자는 손끝세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어 화이트데이 때 사랑고백을 하였다. 화이트데이는 보통 사랑을 주고받지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 굴비를 선택하였다. 참여자와 같은 농기반 농맹인 여자 친구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었고 농맹인이 되면서 혼자 평생 살 것 같았던 참여자는 손끝세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

“3월14일이 화이트데이인데 사탕을 줄까 하다가 선물로 굴비를 보냈어요.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게 뭐예요’(화이트데이인데 굴비라니)라고 했지만 며칠 후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 후로 연애가 시작 되었어요. 손끝세가 없었다면 저 혼자 평생 힘들고 답답하게 살았을 텐데 애인 만나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 이 싹트니 더 힘내서 손끝세에 참여할 수 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 ③ 외로움 대신 그리움, 또 하나의 가족

손끝세에 참여하는 농맹인 회원들은 이제 외로움 대신 그리움을 이야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부터 모임을 못하고 있어 손끝세 모임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혼자여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모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기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있고, 함께 여행했던 추억을 그려보며 손끝세와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모임 없을 때는 손끝세 회원들과 카톡도 하고 손끝세 모임을 기대하며 지내요. 손끝세에서 여행하고 교 제하고 했던 추억들이 많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못 보니까 안타까워요. 눈이 보이면 사진을 보며 ‘아 그랬었지, 하나님 은혜지,,’할 텐데 보이지 않으니깐 느낌으로 추억하는 거지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 보는 거예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K씨는 국민일보에 나온 손끝세 회원들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고 첫머리 아이 때문에 손끝세에 오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 했다.

“손끝세 회원 몇 명이 얼마전에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농맹인에 대한 집중 인터뷰 기사요. 헬렌켈러가 되 고 싶은 꿈을 꾸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그냥 애기 키우고 밥 주고 생활할 뿐.”(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3)

만남에 대한 기대로 생겨나는 ‘그리움’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동 지가 있음을 아는 마음이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진행되는 손끝세 모임은 참석하는 농맹인 회원들과 손세우미들에게 친정 같은 곳이고, 회원들은 삶의 일부이며, 당연히 만나야 하는 피붙이 같은 사람들, 친구, 가족이 되었다.

“그냥 감사해요. 저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농맹인과 함께 하는 삶이 친구 만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손 세우미 참여자 1)

손세우미 참여자 4는 처음 농맹인을 만났을 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들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손끝세에 함께 하면서 이제는 장애가 보이지 않고 친구로 보인다는 고백을 한다. 손세우미 참여자 3은 농맹인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아들이 엄마가 수어통역사라는 이유만으로 농맹인과 함께 해주길 부탁했는데 ‘농맹인은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느냐’는 아들의 간곡한 애원 때문에 손끝세에 함께하게 되었다. 엄마와 함께 농맹인을 위한 사역을 할 것을 꿈꾸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손세우미 참여자 3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으나 손끝세 식구들의 위로에 큰 힘을 얻어 괴로운 마음을 털고 일어났으며 이제는 손끝세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 (5) 촉각으로 함께 하는 시간

손끝세는 한 달에 한 번 모임 때 여행, 요리 대회, 선물교환, 시각장애인용 윷놀이, 레크리에이션,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특징적인 것은 그 모든 활동들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할 것이 정해지면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다음 달에 무엇을 할지, 올해 무엇을 할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 모든 행사와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농맹인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손끝세 여행의 특징은 농맹인 회원들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맹인 스스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도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흔쾌히 도전의사를 밝히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손끝세 여행시간이다.

“손끝세에서 어린이대공원 간 것이 즐거웠고, 2년 전에 천안에서 해보았던 짬라인이 재미있었습니다. 4명이 함께 했던 자전거, 부산 해운대 바다를 느끼며 불만과 속상함 등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회도 먹어서 좋았고 목포에서 배 탔던 것도 좋았는데 무엇보다 짬라인과 자전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손끝세 회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없다. ‘어떤 요리를 해야 함께 만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연말이 되면 2부 순서에 각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다른 회원이 가져온 선물과 교환하는 시간이 있다. 선물을 준비해 오지 못한 회원들은 손끝세에서 준비한 선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2부 순서는 농맹인 친교부장인 E씨가 맡아 진행하는데 E씨는 어떻게 하면 손끝세 회원들이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심하지만 농맹인 회원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해 항상 아쉽다.

“예배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데요. 제가 친교부장이라서 윗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죠. 손끝세 모였을 때 충분히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사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모임 마치고 바로 가야 하는 게 아쉬워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농기반농맹인 회원들은 축수어로 소통하는데 농맹인으로 살면서 궁금했던 것을 서로 물어 보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우울해진 마음을 위로받는다.

“손끝세 모임 때 농맹인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서로 물어보고 배워요. 마음이 힘들 때 (서로)물어보고 답하고 그러죠, 그것이 재미있어요. 한소네 정보도 얻고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 (6) 해외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하게 됨

손끝세와 함께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그중에서 농맹인 회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 하라면 손세우미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 경험을 꼽는다. 어두운 방안에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손잡아 주는 동지가 있어 용기를 내었다. 농맹인 회원들은 외국에 가서 경험할 일정뿐 아니라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일로 분주한 삶도 신난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농맹인 동지들을 만나고 난 후 마음도 넓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다.

2017년에는 농맹인 4명과 통역 3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시각장애인복지관 ‘라이트하우스’를 방문하고 나파지역에서 개최된 ‘농맹인 캠프’에 참여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농맹인컨퍼런스에 농맹인 3명과 손세우미 5명이 참여했으며, 2019년에는 농맹인 4명과 손세우미 6명이 호주에서 개최된 DBI(Deafblind International)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농맹기관을 방문했다.

#### ① 제 2 외국어를 배움

한국 농맹인이 외국 농맹인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 청인이 영어를 배우듯이 농맹인도 외국 수어를 배워야만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정안인의 경우 외국인과 대화할 때 음성을 듣거나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어 중간에 통역사가 있더라도 내용 전달하는 것 이외에 상대방과 눈도 맞추고 교류가 가능하나 농맹인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 외국 친구와 교류하는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 캠프에 참석할 때는 비행시간 11시간 동안 연구자가 농맹인 참가자들에게 미국 수어를 가르쳐 주었고, 현지에서는 외국 통역사들과 어렵사리 소통하면서 일정을 소화했다. 비행기 안에서 11시간 동안 배운 미국수어는 12일간의 미국일정에서 요긴하게 쓰였고, 다음 외국 일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언어 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해외 일정이었던 일본은 미국행보다 좀 더 철저한 준비로 진행되었다. 일본으로 출발하기 한 달 전부터 부산, 광주, 서울에서 일본수어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스터디 형식은 일본수어 교재를 선택하여 서울에서 참가하는 농맹인을 위해 서울 팀, 광주와 부산에서 참가하는 농맹인을 위한 광주, 부산 팀 스터디가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미국에서 소통이 서툴렀던 것과 달리 일본 컨퍼런스 때는 원활히 소통이 되었고 선행학습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처음 외국 캠프에 갔을 땐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외국 농맹인을 만났을 때 소통도 잘 안 되었어요.(제가 외국 간 것이 처음이라) 두 번째로 해외에 간 일본은 소통이 잘 되었어요, 재미있었고요. 일본 농맹인들과 밤에 찻집에서 만나 대화할 때 좋았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농맹인 참가자들과 함께 일본수어 스터디를 했던 손세우미에게도 선행학습은 신기한 경험이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앞에서 누군가 발표를 할 때는 한국수어로 촉수어 통역을 했지만 쉬는 시간, 자유시간이 되면 한국 대표로 간 농맹인 회원들의 손을 잡고 외국 참가자들에게 안내해주면 임무가 완료되는 현상을 체험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일본수어도 공부하고 갔잖아요. 처음 갔을 때 짝꿍이 B님 있었는데 일본 농맹인이 마침 옆에 계셔서 두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B씨가 일본수어 짜내서 대화하고 헐 잘하시네.. 난 중간에 소개만 잘하면 되겠다,, 그때부터 걱정 없었어요.”(손세우미 참여자 2)

호주 컨퍼런스를 위해서 농맹인 참여자와 손세우미들은 3개월간 국제수화를 스터디 했다. 농맹인 참여자들은 촉수어로 외국 농맹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인과는 다른 촉감의 손을 가진 외국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신기했다.

“수어로 대화는 어려웠지만 통역사 없이 직접 외국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한국 사람의 손의 느낌과 달라서 신기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호주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수화 스터디를 3개월의 일정으로 잡았지만 국제수화는 한국 수어와 너무 다른 패턴을 사용하다보니 원활한 소통은 어려웠다. 하지만 국제수화를 더 열심히 배워서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기엔 충분했다.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호주가기 전에 국제수화를 미리 배우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외국 사람들 만나니까 전에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서 당황했죠. 국제수화를 잘 하는 한국 농맹인 친구에게 물어봐서 대화하고 그 친구가 전해주고 그랬어요. 앞으로 국제수화 열심히 배워서 외국에 가게 될 때 외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 ②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미국, 일본, 호주 컨퍼런스 참가는 라이트하우스, 손끝세, 헬렌켈러센터 등으로부터 일부 후원도 있었지만 농맹인 참가자와 손세우미 모두 적지 않은 금액을 자비로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맹인들과 손세우미의 해외 일정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고 소중한 경험을 갖게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는 라이트하우스는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서 농맹인이 자립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식당, 교육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4명의 한국 농맹인은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며 보행훈련, 요리훈련, 응급상황 대피훈련 등을 했다. 일주일 후 개최된 농맹인 캠프에서 미국 참가자들과 함께 지내며 문화를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국에 농맹인 회원들과 손세우미들과 갔을 때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에 또 도전하고 싶어요. 참았다가 인도에 가길 기대하고 있어요. 외국의 점자정보단말기를 보니까 (한국제품과)느낌이 다른 거예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해외 컨퍼런스나 캠프에 참여한 농맹인 회원들은 외국 농맹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그 나라에서 농맹인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에 돌아와 농맹인 당사자로서 개인을 넘어 농맹인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은 아직 (농맹인 관련) 발전되지 않았는데 외국은 농맹인의 생활에 대해서 배울 것도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어요. 호주에 다녀온 후 마음가짐이 많이 변화된 거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농맹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활동하고 싶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농맹인들은 해외 일정을 통해 한국의 것과 다른 것, 다른 맛, 다른 문화 등을 경험했다. 외국 농맹인 친구들을 사귀어 직접 물어 보기도 하고 만지며 느끼면서 혼자만 갇혀 있던 우물을 탈출하여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

“미국, 일본, 호주 갔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넓은 세상을 경험한 느낌이었고 추억도 많아요. 서로 만나서 게임하고 회의하고 재미있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농맹인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 일본, 호주를 여행하면서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외국의 농맹인 당사자 친구들과의 교류도 있었으나, 미국 헬렌켈러센터나 시각장애인복지관 라이트하우스, 일본 맹농인 지원센터, 호주 농맹인협회 등 각국의 농맹인을 위한 협회나 기관 탐방도 하면서 한국에도 그와 같은 기관이 설립되기를 소망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또한 해외 탐방의 경험은 한국에서 농맹인 관련연구나, 포럼이 있을 때 해당 국가에 직접 다녀온 당사자로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③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온 농맹인과 손세우미들의 변화

농맹인 회원들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손끝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 방문 전에는 남자 농맹인이 화장실을 갈 때, 여자 손세우미가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주변의 다른 남자 손세우미에게 대신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남자 농맹인을 화장실 안 소변기까지 안내하고 농맹인 회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에 다녀온 후 농맹인들은 미국 라이트 하우스에서 배운 대로 예배실이나 교제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연습했으며 이제는 화장실이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화장실 다녀올 게요’하고 혼자 다녀온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손끝세의 점심시간은 언제나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어 농맹인은 자리에 앉아있고 손세우미들이 자기 밥 뜨라, 농맹인 회원 밥 뜨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미국에서 메뉴 설명하는 법, 메뉴 설명 듣는 법을 배운 농맹인 회원들은 뷔페식으로 차려져있는 배식대에서 오늘 메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듣고, 자기가 먹을 만큼 스스로 접시에 음식을 담는다. 물론 농맹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미국에 다녀온 농맹인 회원들은 음식 설명 듣고 스스로 떠가는 것이 익숙해졌다.

손세우미가 음식을 가져다주었을 때 농맹인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이 접시에 담겨 있어도 억지로 먹거나 남겨야 했고, 너무 많은 양, 또는 너무 적은 양이 담겨 있을 때는 남기거나 더 달라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스스로 먹고 싶은 만큼 떠온 식사에선 오늘 메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는 상태에서 기호에 따라 골라먹을 수도, 먹고 싶은 만큼 떠먹을 수도 있게 되었다.



“미국 다녀와서 마음이 넓어지고 제가 발전된 것 같아 좋았어요. 미국 안 갔다면 발전 없었을 거예요. 미국에 다녀온 후 느낀 게 많았고 더 노력해서 손끝세가 발전했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1)

농맹인 회원들과 외국에 동행했던 손세우미들의 마음가짐도 가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다. 외국 농맹인들의 자유분방함과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농맹인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깨졌고 그런 기회가 또 있다면 한국 농맹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호주의(컨퍼런스) 내용을 통역해 드릴 때 너무 기억을 잘하시고 어느 나라의 기술로 농맹인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할 때 그걸 기억해서 대화하시는 거 보고 통역을 정말 똑바로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손세우미 참여자 2)

“외국의 농맹인들은 자신감이 정말(많아요) 멋있게 입고, 외국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간 드레스에 멋있게 다녀요, 농맹인 맞아? 생각할 정도로 강의도 다니고 그래요.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손세우미 참여자 2)

## (7)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

손끝세는 1년을 시작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다만 1년이 지난 12월에 하나님께서 손끝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결산만 할 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경험한 손끝세 회원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낸다. 농맹인 회원들은 손끝세와 함께 하면서 고독하고 외롭던 방에서 나와 세상을 경험하고 나니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농맹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 ① 만나 나누기

손끝세는 지난 4년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채움을 경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새벽마다 내려주시던 ‘ 만나 ’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다. 영락농인교회에서 매달 챙겨주는 풍성한 점심식사와 외부에서 후원해주시는 손길, 여행 때마다 기쁨으로 대접해주시는 정성들을 맛보았다.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그 사랑을 경험한 손끝세 회원들의 마음도 언제나 풍족하여 다른 이를 위해 흘려보낸다. 농맹인이 발견되어 지거나 손끝세로 찾아오면 손끝세는 농맹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구상한다. 그것이 운영위원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최 선생님은 농맹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를 쓰며 산파역할을 하셨지요. 나는 산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고 구조물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운영위원 참여자 2)

손끝세의 손세우미들도 그 마음을 닮았다. 자신이 쓰여야하는 상황이 오면 아까운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외국에 통역으로 동행을 해야 할 때도 항공비며, 숙박비를 자비로 감당한다. 손끝세에서는 해외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농맹인, 손세우미들에게 60만원씩 지원한다. 농맹인 회원들과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일의 해외일정을 동행할 때, 농맹인 회원 1명을 위해 적어도 3명의 손세우미가 필요한데 통역비도 없이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비로 가야하는 해외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통역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함께 해주는 통역사들이 손끝세의 손세우미다.

“일본이랑 호주를 자비로 갔는데 손끝세 모임이 좀 이상해요. 세상에서 내가 놀러 갈 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가면 10만원도 아깝잖아요. 근데 손끝세는 내돈 300만원 내고 가도, 하루 종일 통역하고 잠도 못자도 아깝지가 않더라구요. 그게 신기해요. 돈만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 기간에 수어통역 하러 가면 수입이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가도.”(손세우미 참여자 1)

“그냥 부족하면 내가 내고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농맹인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생각해요.”(손세우미 참여자 2)

“왜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을까요? 이 주머니에 머니(money) 채워 주시고 빈손으로 안가게 해주세요. 마 음껏 부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농맹인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손세우미 참여자 4)

손끝세에는 매 행사마다 풍성한 나눔과 먹을거리가 있었고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매달 장소를 제공해주고 식사로 섬겨주는 영락농인교회와 성도들의 수고도 간과할 수 없다. 영락농인교회는 매달 손끝세 모임을 위해서 점심식사로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주방 봉사로 풍성한 점심식사가 매달 제공된다. 주방에서 식사로 섬기던 봉사자는 손끝세 모임을 어 깨 너머로 보다가 아예 손세우미가 된 경우도 있었다.

“교회에 손끝세모임 시작했을 때부터 요리봉사를 했어요. 요리하면서 농맹인들 모습을 보고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농맹인의 접시에 엉클어지게 놓인 음식들을 보면서 구분해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때부터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무나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손세우미로) 참여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손세우미 참여자 2)

영락농인교회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손끝세 모임과 행사는 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 ② 헬렌켈러에서 설리번을 꿈꾸다

손끝세는 2018년부터 농맹인 당사자 부장단을 선출하여 당사자 중심으로 행사 기획, 의사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2017년 미국 농맹인 캠프와 2018년 아시아농맹인컨퍼런스를 참가했던 농맹인 당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운영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농맹인 부장단은 리더가 된 후 자신의 경험들을 다른 농맹인에게도 알려주고 돕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고, 헬렌켈러의 삶을 살던 농맹인이 다른 헬렌켈러를 돕는 설리번이 되고 싶어 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숨어 있는 농맹인이 많아요. 농맹인 문화도 모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농맹인마다 각자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 경험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서로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2)

“내가 손끝세에 참여하고 생긴 변화는 앞으로 다른 농맹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농맹인이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손끝세에 안내해주고, 손잡다에 데려다주고 싶어요.”(농기반 농맹인 참여자 3)

손끝세에 4년을 참여하면서 농맹인 회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이 생겼고 안정감을 되찾았다. 아직 발견되지 못한 농맹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며 자신이 손끝세에 참여하면서 동료가 생기고 가족이 생긴 것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다른 농맹인들이 빨리 발견되길 바란다. 자신들이 손끝세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 했듯이 그들 또한 손끝세와 함께 하며 복음을 듣길 소망했다.

“앞으로 손끝세를 통해서 전국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전국의 농맹인들이 120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농맹인들이 많을 거예요, 모두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손끝세 모임이 더 풍성해졌으면 해요.”(농기반 농맹인 3)

손끝세는 농맹인이 모이고 교제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손끝세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 30분으로 못 박아 놓은 그 시간은 농맹인 회원들에게 당연히 자

신의 가족 같은 동지가 있다는 안정감을 주었으며 손끝세는 이름대로 '손끝으로 여는 세상'을 실현하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인 손끝세 선교회의 형성과 발전과정, 구성원의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과 FGI, 참여관찰, 문서 수집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손끝세의 형성 및 발전과정은 '손끝세의 태동', '기초다지기', '어우러지지 못함', '독립하기', '새로운 시작', '손잡고 함께 가기',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의 참여경험은 7개 범주 ('만남', '성장통',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제2의 가족', '촉각으로 함께 하는 시간', '해외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 하게 됨',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 14개 하위범주, 5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에 관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조집단 형성과 발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가능하였다. 손끝세는 농맹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중복장애로 인해 상처받고 닫힌 마음은 사회적 지원과 제도만으로 치유될 수 없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 손끝세는 예수님을 모르는 농기반 농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회원 중에는 손끝세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세례를 받은 회원들도 있고 실명으로 방황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신앙생활이 회복되었다고 고백 한 회원도 있었다.

손끝세 운영위원들이 항상 고백하는 것은 '손끝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농기반 농맹인은 근접수어나 촉수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아무리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손끝세에서는 회원 한 명 한 명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회원들은 아직 손끝세에 오지 못한 농맹인들 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손끝세는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도 경험하고 있다.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손끝세 모임을 위해 쓰여 지는데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쓰고도 남는 것은 더 필요한 단체에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손끝세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사람이 계획할 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매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다. 농맹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물질적,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

는 것은 복음일 수밖에 없다.

둘째, 자조집단 형성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농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수어를 제 1언어로 하는 자조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농기반 농맹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농맹인 자조집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농기반 농맹인들이 적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소통의 부재와 상이한 문화 때문이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농맹인으로서의 공통점은 있었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성장해 온 문화 환경이 달랐기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 손끝세는 이 점을 해소하고자 농기반 농맹인만의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개인별 수어통역을 지원하면서 회원들이 자조집단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30분 영락농인교회’라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참여하는 농맹인에게 ‘지속적인 모임’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오랜 시간 고립되어 있던 농맹인에게 동지를 만들어 주었다.

손끝세는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던 농기반 농맹인들이 가족, 지인, 친구들에 의해 손끝세 모임의 정보를 듣고 찾아 올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활동과 모임을 지속해왔다. 손끝세는 모임 때 마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 주변에 농맹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오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손끝세에 함께 하게 된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의 폭도 넓어졌다.

회원들은 손끝세 모임을 통해 동료상담을 받고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농맹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그러나 손끝세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지방의 농기반 농맹인들이 손끝세에 참여하려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손끝세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는 있으나 거점 지역에 손끝세와 같은 자조집단이 생긴다면 더 자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조집단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손끝세는 회원들이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개인적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손끝세는 초창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왔다. 2018년부터는 농기반 농맹인 부장단을 리더로 세움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더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 시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농맹 관련 해외 컨퍼런스 참여와 기관방문과 같은 국제교류를 지원하여 당사자 리더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참여와 활동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백은령, 2003: 107). 농맹인이 사회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농맹인은 더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농맹인의 능력

을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되며 농맹인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이고, 적절한 지원과 도움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최숙희·최인옥 역, 2019: 13).

넷째, 농기반 농맹인과 세상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손끝세는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있다. 농기반 농맹인이 어느 곳에 있든 통역지원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전국에 손세우미와 같은 촉수어 통역사들이 있어야한다. 농기반 농맹인이 사용하는 촉수어는 일반 수어와 다르지 않으나 농맹인을 처음 만난 수어사용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것은 농맹인마다 촉각으로 수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시각장애로 인해 표정을 볼 수 없으니 오롯이 촉수어로만 의미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농맹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어 모양이나 수어 단어 선택 등을 조절하며 통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맹인을 만나서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농맹인을 위한 안내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농맹인에 대한 에티켓도 배워야 농맹인과 소통할 수 있다.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에서 교육 받은 사람은 296명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습까지 진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농맹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원은 전국에 2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농기반 농맹인이 사회에 나올 수 있으려면 전국에 위치한 수어통역센터에 전문적인 통역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조집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손끝세는 관련 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회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손끝세는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회원들이 기회가 많아진 것은 다른 단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회원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농맹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농맹인 관련 포럼, 강연, 간담회 등이 생기고 있으나 농맹인 당사자와 연락이 닿아야 참여가 가능한데 그 플랫폼 역할을 손끝세가 하고 있다.

KASLI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농맹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농맹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방법’교육에 농맹인 당사자 강사로 손끝세 부장단 네 명이 파견된다. 횡수가 거듭될수록 농맹인 강사들은 짜임새 있는 강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모임이 없는 평소에는 강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손끝세만 운영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관련 단체와 함께하면서 더욱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단체든지 농맹인과 관련된 단체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농맹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손끝세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상에 자신만 홀로 갇힌 줄 알고 살아온 농맹인을 세상 밖으로 손잡아 이끌며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야 한다.

본 연구는 농맹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농기반 농맹인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농기반 농맹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의 발전과정과 참여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관련된 자조집단의 성공을 위한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도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손끝세 선교회라는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비기독교인인 농기반 농맹인에게 일정 정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손끝세는 이제 4살이 되었다. 그냥 4살이 된 것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현재의 손끝세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일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손끝세를 키워오셨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는다.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 우리나라 농맹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학교가 되고 일터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손끝세가 되길 소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현숙·김원옥·김정화·왕명자·조종희 (2004). 뇌졸중 후 대상자의 동서재활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4(7), 1351-1361.
- [Kim, H. S, W.O. Kim, J. W. Kim, M. J. Wang and J. H. Cho (2004). Effect of East-West Self-help Group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Post Stroke Cl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7), 1351-1361.]
- 고경희·백은령 (2019). 농인의 맹 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0(2), 27-56.
- [Koh, K.H. and Paik, E. R (2019).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Deaf who Developed Visual Impairment. *Disability & Social Welfare*. 10(2), 27-56].
- 김성천·김승용·김연수·김현수·김혜성·민소영·박선영·, 백은령·양소남·유명이·유서구·이기연·정희경·조현순·최말옥·최지선·함철호 (2020). **사례관리론: 개념, 기술, 실천역량 이해**, 서울: 학지사.
- [Kim, S. C., S. Y. Kim., Y. S. Kim., H. S. Kim., H. S. Kim., S. Y. Min., S. Y. Park., E. R. Paik., S. N. Yang., M. Y. Yu., S. K. Yoo., K. Y. Lee., H. K. Chong., H. S. Cho., M. O. Choi., J. S. Choi., C. H. Ham (2020). *Case Menagement*. Seoul. Hakjisa].
- 박경란 (2020). 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지원 실태 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41-64
- [Park, K. R (2020). Analysis of State of the Deaf-Blind in Japa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1(2), 41-64].
- 박순희 (2007). 농맹인 교육과 재활동향 분석. **시각장애연구**, 23(1), 1-22.
- [Back, S. H (2007).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for the Deaf-Blind.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3(1), 1-22].
- 박중휘·정지훈 (2008).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의 장애상황 실태 분석. **시각장애연구**. 24(4), 43-61.
- [Park, J. H and J. H. Jeong (2008). Analysis of Disability State of the Deaf-Blind.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4(4), 43-61].
- 박혜선·이종익 (2016). 자살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2, 277-311.
- [Park, H. S and J. I. Lee (2016). A Study of participation experience in a support group for family bereaved by suicid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2, 277-311].

백은령 (2003). **지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요인과 사회통합정도를 중심으로**. 문학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Paik, E. R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Focused on the environment alfactors and the degree of social integration*.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서해정·고아라·임수경 (2017). **시청각중복장애인(Deaf-Blind)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Suh, H. J., A. L. Ko., S. K. Lim (2017). *Study on the Needs and Actual conditions of Deaf-Blind Peopl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서해정·임수경 (2018). **시청각중복장애인(Deaf-Blind)의 일상생활 욕구에 관한 탐색연구**. 장애인복지연구, 9(2), 97-127.

[Suh, H. J., S. K. Lim (2018). *Study on the Daily Life Needs of Deaf-Blind People. Disability&Social Welfare*, 9(2), 97-127].

양혜원·김희수·최정숙 (2016). 저소득 이혼 한부모 자조집단에 관한 질적사례연구-월계종합사회복지관 ‘징검다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3, 117-159.

[Yang, H. W. H. S. Kim and J. S. Choi (2016).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Low-Income Divorced Single Parents Self-help Group: Focusing on the Case of ‘Jinggomdari’ at Wolgye Social Welfare Cent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3, 117-159].

조원석·김경미 (2018).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적 삶 지원 기반에 대한 연구: 이동, 의사소통, 정보·통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9, 57-80.

[Jo, W. S and K. M. Kim (2018). Studies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t living of Deafblind people: navigating the environment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9, 57-80].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201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서울: 학지사.

[Cho, H. S., Jung, S.W. Kim., J. S. & Kwon, J. S.(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200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좌현숙·김예성·오승환 (2013). 초점집단면접을 이용한 소년소녀가정 제도 개선연구:가정위탁보호 지

- 정의 장애요인 및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6, 116-137.
- [Jwa, H. S., Y. S. Kim and S. H. Oh (2013). A Study on Improvement of Youth-headed Family : Focusing on Analysis on FGI. *Forum For Youth Culture*, 36, 116-137].
- 조성재 역 (2017). **농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Scott, M. Stoffel (2012). *DEAF-BLIND REALITY, Living the Life*(1st ed).서울: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 [Choi, S. J (2017). *DEAF-BLIND REALITY, Living the Life*(1st ed). Seoul. Siloam Center for the Blind. Trans. Scott, M. Stoffel (2012).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주혜선·이해균·류현 (2015). 국제 학술지 분석을 통한 맹농인 관련 연구 동향 조사. **시각장애연구**, 31(3), 231~253.
- [Joo, H. S., H. G. Lee and H. Ryu (2015). Investigation of the Research Trend in Studies Related to the Deaf-Blind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1(3), 231-253].
- 최숙희·최인옥 (2019). **농맹인과 함께하기**. Theresa, B. Smith (2002). *Guidelines: Practical Tips For Working and Socializing with Deaf-Blind People*. 서울: 손잡다.
- [Choi, S. H & I. O. Choi (2019). *Guidelines: Practical Tips For Working and Socializing with Deaf-Blind People*. Seoul. Hold Hands. Trans. Theresa, B. Smith. (2002). Maryland : Sign Media, Inc].
- 후쿠시마 사토시 (2007). 일본의 시청각장애인(시각·청각 중복장애인)의 현황, **시청각중복장애인 교육과 재활 국제세미나 자료집**. 11-23
- [Fukushima, S (2007). *State of the Deaf-Blind in Japan.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eminar for Rehabilitation*, 11-23].
- Linda, F. K (1997). *Self help and support group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Marion, H (2013). Deafblind People, Communication, Independence, and Isolation. University of Glasgow.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8(4), 446-463.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 [Disabled person welfare law 16733 Decided December 3, 2019]
- 에이블뉴스. 2016. 9. 2일자 “미국 시청각중복장애인협회 ‘ NCADB”
- <https://www.ablenews.co.kr/news>, (검색일 2005. 11. 15)

[“North California Association of the Deaf-Blind, ‘NCADB’”, Able News (2016. 9. 2). Retrieved from <https://www.ablenews.co.kr>, (2005. 11. 15)]

한국농아인협회. 2020. 6. 30일자 “농맹인 회원 현황 결과보고서”

[“Report of Deaf-Blind who is member of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2020. 6.30)]

설리번의 손 헬렌켈러의 꿈 2007. 4. 15일자. “우리 카페는요”

<http://cafe.daum.net/kdbu>, (검색일 2020. 11.17)

[“Our cafe is”, Dream of hand(2007.4.15).Retrieved from <http://cafe.daum.net/kdbu> (2020. 6. 30)]

#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손끝세선교회'를 중심으로-\*

A Qualitative Case Study on Self-help Group for the Deaf-Blind:  
Focusing on the Case of 'Sonkkeutse' Missionary Society.

고 경 희 (충신대학교)

백 은 령 (충신대학교)(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손끝세선교회의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 이를 위하여 손끝세농맹인 선교회에 대한 사례연구를 심층면접자료, 참여관찰자료, 문서자료 및 시청각자료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손끝세의 형성 및 발전과정은 손끝세의 태동, 기초다지기, 어우러지지 못함, 독립, 새로운 시작, 손잡고 함께 가기, 아직은 미완성의 7개의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 참여자들의 손끝세 참여경험은 만남, 성장통, 손끝으로 느끼는 예배, 제2의 가족, 축각으로 함께 하는 시간, 해외문화를 경험하며 더 성장하게 됨,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섬김의 7개 범주에서 14개 하위범주, 5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농기반 농맹인 자조집단 운영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제어: 농기반 농맹인, 농맹인, 시청각장애인, 자조집단, 질적 사례연구



## 경관해석의 성경적 틀\*

### Biblical Framework for Landscape Interpretation

김 농 오 (NongOh Kim)\*\*

이 웅 규 (WoongKyu Lee)\*\*\*

이 창 훈 (ChangHun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Phenomenological approaches and old-age ideas in landscape analysis are human microcosm concepts that have been widely recognized in the East in the past. This is a much more human-centered landscape analysis than the traditional mechanistic landscape analysis, which has identified humans and nature as separate entities. At the same time, it is much more like a biblical interpretation than the conventional dualistic philosophy of separating nature from God. However, it is easy to overlook the value of the natural landscape itself, which was good to see even before human creation, when it came to excessive human-centered landscape analysis. It was pointed out that these living creatures [Soul, 靈] could commit the error of landscape analysis in the recognition process that humans cannot recognize or can recognize mistakes. Therefore, this paper argued that the basic framework of biblical landscape analysis discussed the value of the earth world as a model of heaven and the reality of all things from the human point of view as a 'Saving Soul'.

**Key words :** Christian World view, Landscape Planning, Landscape Recognition, Landscape Evaluation, Evolutionism

\* 2020년 11월 20일 접수, 12월 18일 최종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국립목포대학교(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과대학 조경학과 명예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nongoh@hanmail.net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과 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unikorea@bu.ac.kr

\*\*\*\* 국립목포대학교(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과대학 조경학과 조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leech4298@mokpo.ac.kr



## 1. 서론

진화이론은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 및 국토계획, 지리학, 조경학 분야에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건축학에서는 인간거주학(ekistics)<sup>1</sup>을 다루고, 도시계획학에서는 동적 도시(dynapolis)<sup>2</sup>나 소도읍이 거대도시(metropolis)<sup>3</sup>로 성장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관(landscape)의 해석에서 인간 중심 사고의 흔적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간들의 다양한 활동이 지구상에 다채롭게 전개되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개발과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지구의 환경 문제가 해체 직전의 위기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경관 혹은 환경 보전에 관한 해결 방안 모색은 그것을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자연과 인간 사회 같은 정적인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며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에크보(Garret Eckbo)가 주장한 경관의 개념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과 더불어 형성되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에 연속되는 모든 과정의 복합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이클 로리(Michael Laurie)는 경관이 갖는 그 자체의 특성이나 땅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인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이고 자연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체계의 반영으로 보았다. 이 같은 다분히 진화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경관해석은 자연과 인간 활동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인간을 위한 부지 선정(site selection), 디자인, 건설과 설비, 관리와 유지 등을 정당화하고, 소위 개발이라는 인간 행위와 자연 보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변화라는 진화 개념으로 용인해 온 것이다(최기수, 1983: 1-12). 따라서 경관의 가치 역시, 경관평가의 주체라 볼 수 있는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경관을 자연 그 자체로 볼 수도 있고(landscape as nature), 인간의 서식처(landscape as habitat)나 인간의 무대(landscape as artifact)로 볼 수도 있다. 또는 경관체계(landscape as system) 혹은 역사(landscape as history), 이념(landscape as ideology), 장소(landscape as place), 미(landscape as aesthetics)로 파악할 수도 있다. 또는 불완전한 교정 대상(landscape as problem)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재(landscape as wealth)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진화론적 입장을 대신할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본 성경적 경관해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방법은 경관해석의 기존 이론을 정리 분석

1) 거주지 형태에 관한 서술 연구 및 거주지에 사는 주민과 물리·사회문화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결론을 체계화한 이론을 총칭한다.

2) 그리스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주장한 미래 도시 개념으로, 그는 3차원의 공간에 대해 4번째 차원인 시간에 초점을 두고ダイナ믹하게 발전하는 미래 도시를 ‘기능 도시(dynapolis)’라 명명했다. 현대에 들어 도로를 따라 질서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기능 도시를 일컫는다.

3)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가 많고 각종 기능이 밀집한 도시의 의미를 가진다. 국내에서도 경제개발 이후 이촌향도 현상의 증가로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같은 곳이 인구 이동의 중심으로 가능한 상황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비평하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유관 성경 구절에 근거해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II. ‘경관(landscape)’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관은 일반적으로 ‘경치’ 그리고 ‘특색이 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을 뜻한다. 경관의 영어 표현에 해당하는 ‘landscape’는 중세 고어인 ‘landscipe’에서 유래했다. 경관의 의미는 ‘일정한 지주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 소유된 지역(district)’을 의미했으나, 이후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덴마크 풍경 화가들에 의해 landscape는 전원 풍경(rural landscape)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렇듯 경관의 보편적 개념과 형식은 이러한 서구 풍경화의 발전과 동반해 진행되었고, 당대의 풍경 화가가 화폭에 담았던 상상 속의 이상적 경치는 경관의 겉모습을 지배해 온 규범이 되었다. Landscape는 처음에는 바다 경관이나 바다 그림에 대비되는 내륙의 자연 풍경 또는 풍경화를 의미했으나, 현대에 들어 지구상의 모든 자연 및 도시 경관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임승빈, 2003: 1). 경관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풍경, 조망 또는 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심적 현상과 공간 해석에 의한 물리적 현상을 동시에 내포한다. 경관을 눈에 보이는 풍경이라 정의할 때, ‘보인다’의 의미가 반드시 시각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더 일반적인 어휘인 ‘지각한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꽃향기, 폭포의 낙수 소리 등과 같이 인체의 오관을 통해 지각되는 넓은 의미의 풍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임승빈, 2003: 2). 또한 경관은 시야를 통해 즐기는 경치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생존을 지원하는 생태적 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경관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본질을 느끼게 하는 상징적, 철학적 속성을 지닌다(임승빈, 2003: 서문).

경관은 태초에 사람의 힘에 통제되지 않는 상태인 ‘야생(wild)’ 또는 ‘원시(primitive)’ 경관과 이와 반대의 개념인 ‘인공적(artificial)’ 또는 문화적(cultivated)’ 경관으로 구분된다. 이는 같은 시대에 공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특징을 갖는다(황기원, 2011: 141-142). 이러한 지리학적 증거들은 장소적 사건을 형성하고, 장소 간에 발생하는 경관을 물리적 혹은 문화적 형태 등으로 구성한 지역으로 해석되기도 한다(Carl Sauer, 1963: 315-350).

한편 경관의 대표적 표출 방식인 정원(garden)<sup>4</sup>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설계되었다. 고대의 경우 대부분

4)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 육지와 바다, 동식물과 인간이 차례로 생성된 구약성서의 창세기는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구전되어 온 천지창조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따라서 조경사의 근원을 신화와 종교에서 찾게 된다. 원시인들은 인공적으로 언덕을 만들거나 혹은 거석을 다시 세움으로써 지구 환경에 최초로 인간의 의지들을 나타냈다. 그리고 불리한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울타리를 두름으로써 정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garden’의 어원은 히브리어인데, ‘gan’은 방어의 목적으로 울타리나 혹은 둘러쌌을 의미하며 ‘oden’ 혹은 ‘eden’은 즐거움이나 쾌락을 뜻한다. 정원이란 살기에 좋고 즐거운 곳이 되게끔 울타리를 두른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창세기에 묘사된 에덴동산과 같은 파라다이스의 추구는 자연환경이 불리한 곳에서 더 아름다운 정원을 낳게 했다(정영선, 1979: 11).

분 권력이나 이상향과의 관계 속에서 조성되었다. 고대 이집트 정원은 종자수집과 함께 감상을 위해 조성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의 정원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신들의 세계를 구현했다. 이슬람과 중세의 정원은 경전에 묘사된 천국의 이미지를 정원에 투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원들은 신화를 직접 재현하기도 했다. 결국 이 당시의 정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상을 옮겨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조정송 외 2006: 22-95). 이후 낙원과 연계된 이미지들을 구체적인 경관 형태의 하나로 인식해 풍경화 속의 자연을 기준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풍경화식 정원은 픽처레스크 미학의 우산 속에서 18-19세기를 풍미했다. 그림 같은 자연의 이미지는 경관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경관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배정환, 2004: 45-84). 이후 프랑스의 기하학식 정원과 영국의 픽처레스크 양식 등이 대두되어 경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의 경관 흐름은 도시화였고 이에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공공 영역의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기능적 디자인과 생태적 방향 추구가 등장했다. 근래에 들어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대지예술 등의 장르가 경관을 대변한다 할 수 있으나, 추후 어떠한 다른 형태의 경관해석 방식이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경관이란 것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간형태로 인식되는 과정이다(김농오, 1989: 41-59).

### III. 현대 사회 경관 인식의 변천 과정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경관계획을 통해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 가치 추구가 종래 종교적, 사상적 가치 추구를 대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더불어 사회의 민주화, 대중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종래 귀족 중심(landscape as royal)에서 대중 중심(landscape as public)으로 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관평가 방법에서도 1960년대 이후 경관 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따른 시각적 영향의 최소화, 레크리에이션 기회 증대, 도시 경관 향상 등 여러 측면과 관련해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관은 훼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아서 외(Arthur, et al, 1977)는 기존의 자연 자원의 경관미 평가기법에 관한 포괄적인 고찰을 하는 데 있어 경관평가 방법을 목록 작성(descriptive inventories), 대중 선호 모델(public preference model), 경제적 분석(economic aspects of aesthetic measurement)으로 나눈 바 있다. 또한 주비 외(Zuve, et al. 1982)의 경관분석 및 경관지각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이들은 전문가적 판단에 의지하는 방법과 정신물리학적 방법, 인지적 방법,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접근 방법은 4분화하기

도 했다(임승빈, 1988: 43-51).

다니엘과 바이닝(Daniel & Vining, 1983: 39-83)은 경관의 질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에서 생태학적 접근, 형식미학적 접근, 정신물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기호학적 접근, 다섯 가지 분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현대에 들어 경제학적 접근이나 기호학적 접근 방법 등 경관분석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 중심의 가치가 경관해석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학자가 경관분석의 틀을 다양한 범주로 분류했지만 경관의 내용적 틀은 크게 생태적 측면, 미적 측면, 철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 1. 생태적 측면

경관분석에서 생태학적 접근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생태학적 분석은 여러 학자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생태적 결정론을 주창한 이안 맥허그(Ian Mcharg)가 대표적이다. 이안 맥허그의 생태계획은 자연의 형성 과정을 기상, 지질, 수문, 수질, 토양, 식생, 동물 등의 요소로 잘게 나누어 조사 분석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을 중첩시켜 분석한 정보의 종합적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취한다(이명우 등, 2011: 64-72). 그러나 인간과 문화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천과 계곡의 경관 가치를 상대적 척도로 계량화한 레오폴드(Aldo Leopold, 1969) 또한 생태학적 분석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 2. 미적 측면

경관의 물리적 형식이 미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는 형식미학적 분석이다. 자연경관에서 경관의 훼손 가능성을 연구한 리튼(Litton, 1974)이 형식미학적 분석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경관을 시각적 특성이 적은 평범한 경관, 높은 산이나 폭포 같은 독특한 지형을 지닌 지형경관, 중심이 둘러싸여 있는 위요경관, 점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초점경관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 상 시각 훼손 가능성이 큰 곳을 연구했다. 제이콥스와 웨이(Jacobs & Way, 1968: 2-34)는 ‘여러 형태의 경관이 토지 이용 활동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와 ‘토지 이용이 시각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시각적 흡수성이 시각적 투과성과 시각적 복잡성의 함수로 나타난다고 했다(임승빈·주신하, 2008: 175-207).

미학의 상징적 측면을 기호 차원으로 분석한 학자들도 있다. 기호적 차원에서는 건축물이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접근이 주를 이뤘으며, 추후 경관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도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임승빈, 2003: 155-174). 기호의 다른 차원인 상징적 측면으로 볼 때 중세의 수도원 정원 구성은 유토피아를 상징하고자 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의 정원은 불교 및 신선 사상과 관련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 3. 철학적 측면

현대 미국의 철학자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숲속에 은거해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산림의 심리적 가치를 설파한 바 있다. 소로에 이어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중요한 산림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을 포함한 자연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임으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할 권리가 없으며, 산림은 인생의 의미도 깨우쳐 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토지윤리라는 사상을 주도하면서 지구상의 땅과 산림을 포함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간의 노력을 호소한다.

철학적 측면의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방법(phenomenological approach)에서는 인간-환경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지양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로 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상황의 여러 가지 경험적 측면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sup>5</sup>. 따라서 장소성과 비장소성, 내부성과 외부성(Edward Relph, 1979: 49), 장소 애착과 장소 혐오, 거주와 여행 등과 같은 경험 차원에서의 새로운 이분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주 환경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승빈, 1988: 46).

또한 아이켄(Aiken, 1976), 렐프(Relph, 1976), 튜안(Tuan, 1979) 등의 지리학자들이 문화적 경관 특성에 주된 관심을 두고 경관의 내재된 의미와 가치 등을 밝히고자 한 반면, 현상적 입장에서는 경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밝히는 데 이르고 있다. 예컨대, 노베르그슐츠(C. Norberg-Schulz, 1980)는 현상적 접근을 표방한 그의 저서 『장소의 영혼(Genius Loci)』에서 자연환경의 현상을 사물(thing), 우주적 질서(cosmic order), 특성(character), 빛(light), 시간(time)의 5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이 중에서 사물과 질서는 공간적 요소, 특성과 빛은 일정한 장소의 전체적 분위기와 관련된 요소이며, 시간은 항구성 및 변화의 차원으로서 공간과 특성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노베르그슐츠는 이상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낭만적 경관(romantic landscape), 우주적 경관(cosmic landscape), 고전적 경관(classical landscape), 복합적 경관(complex landscape) 총 4가지 경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낭만적 경관을 대표하는 사례로 터널 형태로 구성된 북유럽의 숲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장소에서 다양한 자연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나무가 울창한 북유럽의 숲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고 제한된 시야에 의한 미시적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연출되는 경관이 흡사 동화에 나오는 ‘숲속

5) 환경결정론에서 멀어질수록 자연과 관계에서 인간의 중요성은 증가하며, 그 마지막인 자유의지론에 이르면 인간의 의지에 거역하는 자연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도달하므로, 주체나 객체로 구분되는 이원론은 붕괴되고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가 된다고 주장했다. David Pepper, 이명우 오구균 김태경 역, 『현대환경론 :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 민중론적 이해』, 한길사, 1989, p211-213.



Table 1. Types and Features of Landscape by Norbert-Schultz

Classify	Distinction	Place Case
Romantic Landscape	Limited Field of View, Dreamlike	Nordic Forest Landscape
Cosmic Landscape	Open Field of View, Absolute	Desert Style Landscape
Classical Landscape	Harmonic of View, Friendliness	Greek Style Landscape
Complex Landscape	Combination of Romantic, Cosmic, Classical scenery	French Style Landscape Alps Style Landscape

의 난쟁이'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공상적인 세계로 이끌어 준다는 의미에서 낭만적 경관이라고 부른다.

우주적 경관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노베르그슐츠는 사막을 언급하며 광활한 불모지와 구름 없는 넓은 하늘로 설명했다. 거시적인 규모의 경관을 경험하면 절대적인 질서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특히 사막에서는 낭만적 경관처럼 개별적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의 힘을 경험하지는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가장 절대적인 우주적 특성을 경험하게 되며, 사막의 거주자에게는 '장소의 영혼'이 곧바로 '절대자' 혹은 '유일신'을 뜻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사막을 배경으로 탄생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고전적 경관의 대표 경관으로 그리스의 경관을 들 수 있다. 그리스의 경관은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며, 인간 척도에 근거한 조화로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산, 구릉, 계곡, 분지 등의 자연 요소가 각각의 개성을 지니며 동시에 연속적으로 변화를 가지며,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지닌다. 하늘은 높지만 친근하기 때문에 그리스인은 주어진 경관에서의 경험에 따라 의인화된 신을 탄생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켰다. 그리스인은 자연에서 '난쟁이'나 '유일신'을 찾지 않고 인간 자신을 발견한다. 자신과 자연과 동등한 협력자로 여기며 자연을 친근한 보완 관계로 해석한다.

복합적 경관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적 경관(낭만적, 우주적, 고전적 경관)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 경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경관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어 사막과 비슷한 공간 특징을 지니지만, 토지가 비옥해 '비옥한 사막'으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프랑스 경관은 우주적, 낭만적, 고전적 특성이 융합되어서 풍부한 의미를 지닌 통일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알프스 경관은 톱날 같은 윤곽과 협곡의 대비에 의해 '야성적 낭만성(wild-romantic)'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임승빈, 2003: 190-193).

최근의 현상학적 경관분석에서는 전문가의 경험적이고, 개방적 인터뷰 분류법(sorting) 및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기법 등이 가정(home)의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

은 경향은 인간을 자연의 산물로 보고, 디자인을 인간보다 더 중요시하며, 디자인의 목적을 인간의 재창조에 두어 자연 없는 인간이나 인간 없는 자연을 무(無)로 파악한 에크보(Garrett Eckbo, 1969: 54)와 같은 근대 서구 조경가와 고대 동양인들의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자연철학과 깊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한편 풍수지리설은 중국에서 시도되어 한국에서 특히 발달한 사상 체계로, 경관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현상학적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풍수지리설은 토지나 경관을 이해하는 이론 체계이며 동시에 이용을 위한 기술이기도 하다.

풍수지리에서는 산세, 수계, 방위 그리고 사람의 입지가 주요 고려 대상이며 땅의 기운을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론, 형국론 등의 원리를 이용한다. 특히 지형의 외관을 중심으로 지기의 흐름에 의해 묘사되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쌍룡교구형(雙龍交媾形),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등의 형국론은 미학적 측면과도 연결된다.

#### 4. 경제적 측면

경관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경제의 편익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게임이다.

편익 계산은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의 편익(benefit)을 화폐가치로 계산해 경관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편익을 계산하는 경우, 경관 이용자들이 경관의 이용과 관련해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불 용이성, 기회비용, 지출비용, 국민총생산, 부동산 가격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교환게임은 경관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가치, 즉 수자원, 지하자원, 대기 자원, 주거의 편리성, 교육의 질 등과의 상대적 중요성 또는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교환게임을 통해 제안된 상황에서 여러 인자 간 상대적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계획 과정의 목표 설정 단계에서 삶의 질의 지표를 찾아내고, 예산을 분배하며,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임승빈, 2003: 201-220).

6) 도교의 자연철학은 “원래 자연의 본질적인 통일감은 개인의 양심을 상실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는 한 생활 방식이다. 그것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 행동 그리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자연과 접촉하는 공예 기술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식의 근원에 대한 재고찰을 필요로 한다.” 도교의 자연주의 사상은 보통 수준을 훨씬 넘어서었다. 모든 예술과 기교,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을 자연발생적 행위로 여긴다. 이는 시와 풍경화에 훌륭하게 표현된 인간 감정의 노출이고, 그 기법에는 ‘통제된 우연’, 즉 강제력과 자의식적인 의도 없이도 정확하게 읊을 것을 실행하는 매혹적인 수련이 담겨 있다.



## IV. 경관계획 단계별 특성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경관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의 부분 계획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법 제정 이후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조례 작성,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익순, 2000: 37-47).

경관계획은 기존 경관자원의 보전과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형성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경관 보전은 경관지구 지정과 그에 따르는 법과 조례 및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경관관리를 통해 실현되며, 경관 형성은 주로 경관 사업과 경관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관계획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본 경관계획 또는 특정 경관계획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기본 경관계획이란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 관리 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특정 경관계획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경관 유형(산림, 수변, 가로, 역사문화, 시가지 등) 혹은 특정 경관 요소(야간 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공공시설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안이다.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경관관리 행정 체계 및 실천 방안,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한국경관협의회, 2008: 45-48).

조경 분야에서는 경관계획의 과정을 크게 조사·평가, 구상·계획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이명우, 2011: 17-24), 다시 조사·평가 단계에서는 사전 검토와 환경분석, 구상·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구상과 기본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Figure 1 참조).

사전 검토 단계는 대규모의 광역적 개발계획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 조사·평가하는 단계로 사전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과거 일반적인 조경 분야의 경관계획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최근 광역 단위의 개발과 관광지 조성 등에 있어 살펴봐야 할 주요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분석 단계는 개발대상지 내·외부에 있는 생태 서식지를 포함한 자연환경, 인간의 행태분석을 포함한 인문환경,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시각 환경분석에서 나타나는 잠재력과 제한 요소 등을 토대로 종합분석을 다룬다. 이 단계에서 도출되는 경관계획의 논리성과 객관성의 수준은 대상지 개발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조경 및 경관계획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단계이다.

기본 구상 단계에서는 앞의 조사·평가 단계에서 분석된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대지에 도입되는 인원과 건물·시설물 등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 추정 프로그래밍 단계를 거쳐서 도출된 최적의 기본 구상안은 환경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이 받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구상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 위에 인간이 사용할 세부 공간, 시설, 동선, 도로 및 주차장 등이 계획되며, 이때 결정되는 전통 생태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저영향 개발 기법은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한 경관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V. 기독교 세계관적 경관해석

‘경관’이란 인간 의지대로 디자인하고 개발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속성이며 인간 역시 자연의 산물에 불과한 것인가? 앞장에서 분석한 결과, 인간과 자연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경관을 해석하던 과거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재해석하고 평가하며 개발해 나가는 큰 흐름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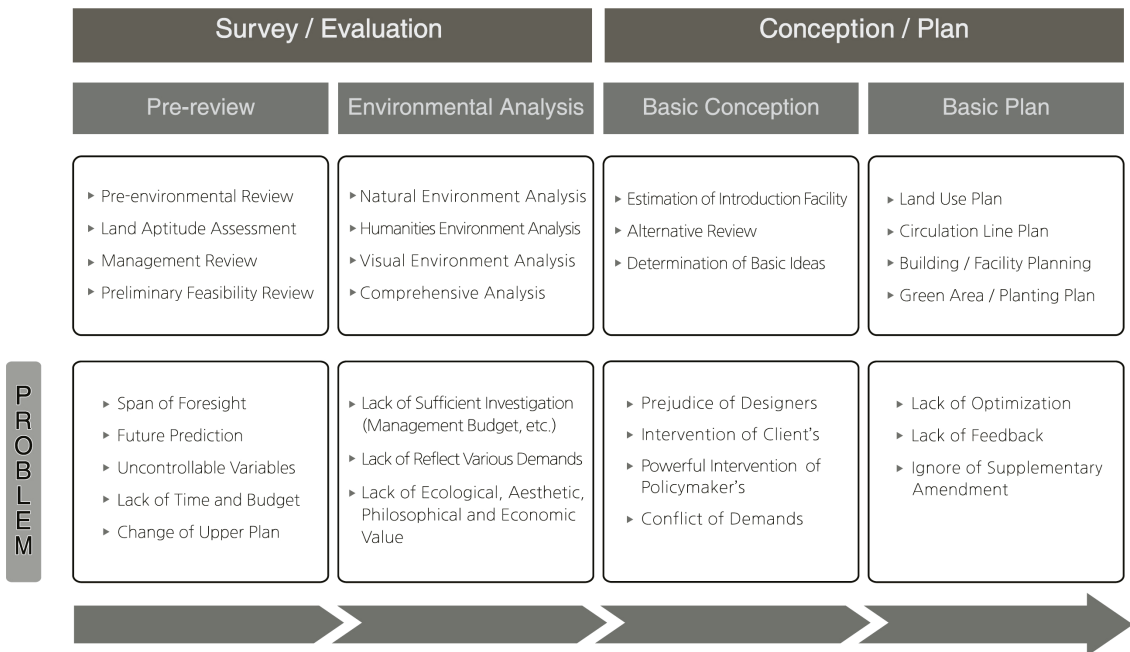


Figure 1. Stage process of landscape planning

물론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운명론적인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과 같은 종교적 주술적인 차원이 아니다. 르네상스 이후 경관의 형태에 관한 인식 및 경관 가치를 인간 중심적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조경가나 건축, 지리, 도시계획가 사이에서 주로 연구된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계획가들이 지향하는 개발 방향이 다분히 진화론적 기본가설(basic-presupposition)에 근거를 두고 학적 체계를 수립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의 개발 활동과 아울러 사회 체제가 갈수록 다양화되며, 기존 경관 역시 공간 분화 또는 파편화되어감으로써 진화론처럼 경관이 진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경관해석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공간계획가들에 의해 오히려 지구 경관은 더욱 황폐해질 우려가 있으며, 인간 역시 파멸할 위기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성경적 틀은 무엇인가?

첫째, 경관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창 1:1), 창조주에 의해 소멸될 수도 있다(벧후 3:12). 따라서 경관은 물리적 작용이나 생물학적 작용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 변화 자체를 진보 또는 진화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 행위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화, 상업주의, 자본주의 등의 발달로 인한 부패를 죄악으로 여긴다(계 18:1-24, 창 13:10-13, 창 19:13).

둘째, 경관해석의 중심을 인간의 관점에 둘 때 인간 중심의 가치가 결국 경관의 가치를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관 고유의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며 과학 언어 게임보다 인간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경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 동시에 자주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자연을 격리할 경우, 변화 속도가 느린 경관의 회복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 부담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이 보는 관점이 아닌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창 1:4, 창 1:10, 창 1:12, 창 1:18, 창 1:21, 창 1:25) 경관 그 자체의 관점에서 가치를 논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가치가 될 수 있다. 우주 만물,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의 원초적 경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면 인간의 존재가 있기 전에 피조된 우주 만물의 가치 역시 객관화시켜야 타당하다.

셋째, 하나님은 피조만물을 창조하신 후 에덴동산에 아담(남)과 이브(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눅 9:25 참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눅 12:7)”,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21-23)”라는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자체의 가

치보다 한 인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심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존재하며, 부활한 후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형체(고전 15:42, 44)로 변화될 인간의 가치는 분명 현상의 피조 만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새 피조물의 실체로서(고후 5:17-18)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살만한(고전 6:20) 귀한 가치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줄 수 있었다(요 3:16). 그리고 그만큼 귀하기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며(눅 15:7), 전도자의 발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길(롬 10:15)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창 11:1-9)이라는 점을 볼 때, 자연경관 자체는 선한 것이나 인간 중심의 지나친 경관 개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인간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녀가 결혼해 종족을 번성시키며 자연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 자체가 축복이지만(창 2:18), 하나님의 법도를 빗나간 자연의 이용, 예컨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 먹는 일이나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심의 도시나 문화를 이룩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경관을 재평가해야 한다.

## VI. 결론

지금까지 경관의 해석은 다분히 인간 중심의 진화론적 기본 가설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중심의 경관해석 틀을 제시했다. 경관이란 그 자체가 피조된 우주 만물로서의 실체이며, 인간 역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주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서 파악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치 역시 ‘살아 있는 영’, ‘살아 있는 존재’(창 3:20, 고전 15:45)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과 살려 주는 영, 거듭난 존재로서의 인간(고전 16:25)의 가치가 다름을 분명히 구분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구 철학자들이 논한 인간과 자연, 몸과 마음, 하늘과 땅,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등 이원론적 철학적 토대에 경관 자체를 평가하는 극단적 논리는 비성경적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주 만물 또한 현상의 세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되어 있는 내세에 대한 모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진화론의 기본 가설을 근거로 현상의 우주 경관이 계속 진보하고 발전할 것으로 주장했던 기존의 경관해석 기준만으로 인간 중심적 경관을 평가하는 것 역시 비성경적·비과학적이라고 본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현상학적 경관해석이나 노장사상 등 동양에서 그동안 파악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경관의 실체를 파악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간의 심리적 내면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인간 소유주를 논

한 관점이나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인간 존재 구조와 우주 구조와 관련해 환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던 일면에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객관적 실체의 가치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간 세계에 대한 ‘산 존재(a living soul)’로서 인간의 현상학적 해석 이상을 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살려 주는 영(a quickening spirit)’으로서 인간이 우주와 자연을 파악하고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활한 인간의 가치와 천상 세계의 모형으로서 현상 세계의 경관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모형과 땅의 모형이 일치될 원하신다(눅 11:2).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진화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틀에서 탈피해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지구와 자연, 지구와 우주 경관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눈은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이기에(눅 10:21-22) 거듭남의 지속적인 역사와 더불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경관해석의 기본적 틀을 계속 연구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인간은 만물 자연 파괴자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교회가 주체가 되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엡 1:23)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sup>7</sup>.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 지구상에 경관을 경작하며 잘 다스리고 에덴의 염원을 지상에 두고자 하는 것이 정원일 것으로 생각된다. 정원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낙원인 만큼 조경 분야에서 가든을 만드는 것은 성경적 유토피아의 구현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천국의 그림자 지상낙원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이며 인류의 낙원으로서<sup>8</sup>, 못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성경적 유토피아(사 11:6-8, 사 65:25)<sup>9</sup>를 실현하기 위해 땅을 경작해 나가는 크리스천 조경가가 되는 것은 경관해석의 성경적 틀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성경적 틀에서 경관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기법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동시에 성경적 이상을 실현할 정원 조성 기법 역시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7) 우주란 자의면에서 볼 때 ‘(집 먼)’은 가옥의 상개를 표시하며, 이에 존재의 장소를 표시하는 ‘于(여조사 우)’를 결합해 공간적 세계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동작의 내력을 표시하는 ‘由(말미암을 유)’를 결합해 시간적 세계를 의미한다.

8)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퇴계 이황의 경우 도산서원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면서 서원 안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즐겼다. 그는 ‘절우사’라고 이름 붙인 언덕에 직접 매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심고 이를 즐겼다. 또한 고산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다섯 친구라 하며 즐겼다.

9)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사 11:6-8)”,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사 65:25).”

## 참 고 문 헌

- 김농오 (2001). **경관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천과 조경가의 활동**. 목포대 조경학회.
- [Kim, N. O. (2001). *The Historical Vicissitudes of the Perception of Landscape and the Activities of Landscap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Landscape Society.]
- 배정환 (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조경.
- [Bae, J. H.(2004) *Theories and Issues of Modern Landscape Design*. Seoul: Book publishing landscaping.]
- 성서위원회 (2005). **성경**.
- [Biblical Commission (2005) *The Bible*.]
- 신익순 (2000). **조경기본법제정과 관련법규의 정비 방향**. 한국조경학회지, 29(5), 37-47.
- [Shin, I. S. (2000). The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andscape and the readjust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9(5), 37-47.]
- 이명우 등 (2011). **조경계획**. 서울: 기문당.
- [Lee, M. W. et al (2011). *Landscape Planning*. Seoul: Gimundang.]
- 임승빈 (1988). **경관분석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6(1), 43-51.
- [Lim, S. B. (1988). A Study on the Method of Landscape Analysis and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1), 43-51.]
- 임승빈·주신하(2001). **조경계획**. 서울: 보문당.
- [Lim Seung-bin and Ju Shin-ha (2001). *Landscape Planning*. Seoul: Bomundang]
- 임승빈 (2003).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Lim Seung-bin (2018). *Landscape Analy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ulture Center.]
- 조정송 외 (2006). **조경·미학·디자인**. 서울: 도서출판 조경.
- [Jo, J. S. etc (2006). *Landscape, Aesthetics and Design*. Seoul: Book publishing landscaping.]
- 최기수 (1983). **조경학개론**. 서울: 신학사.

[Choi, K. S. (1983). *An 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Shinhaksa]

황기원 (2011). **경관의 해석 그 아름다움의 앞**.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Hwang, K. W. (2011). *The Interpretation of the Landscape and the Knowledge of Its Beau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auer, C. (1963). *The Morphology of Landscape, Land and Lif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Eckbo, G. (1969). *Landscape we se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경관해석의 성경적 틀

## Biblical Framework for Landscape Interpretation

김 농 오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이 웅 규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과)

이 창 훈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경관해석에서 현상학적 접근이나 노장사상은 과거 동양에서 주로 인식해 온 인간 소우주적 개념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실체로 파악해 온 종래의 기계론적 경관해석보다도 훨씬 인간 중심적인 경관해석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해 온 종래의 이원론적 철학보다는 훨씬 성경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인간 중심적 경관해석에서는 인간 창조 이전에도 보기에 좋았던 자연경관 자체의 경관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이처럼 살아 있는 생명체(영, 靈)로서 인간이 인식할 수 없거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과정에서 경관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경적 경관해석의 기본적 틀에 있어 '살리는 영'으로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만물의 실체와 천상 천국의 모형으로서 지상 세계에 대한 가치를 논함을 주장했다.

주제어: 기독교적 세계관, 경관계획, 경관인식, 경관평가, 진화론

##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9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 제 6 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8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 제 3 조 (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게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 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 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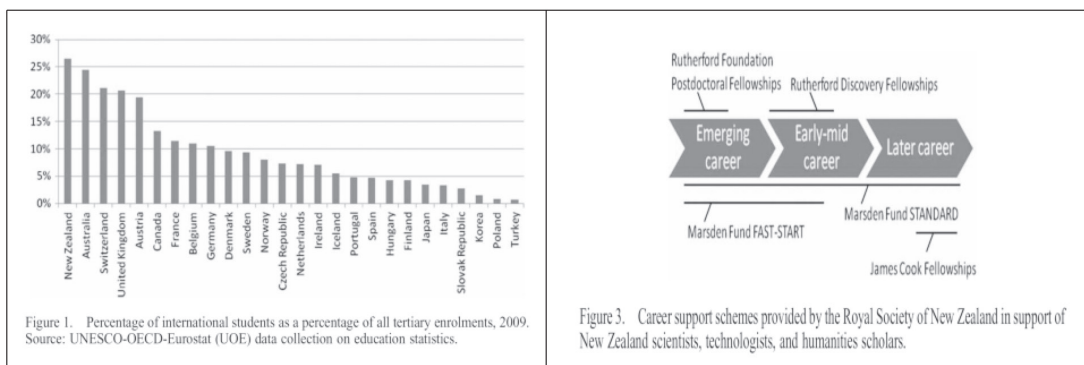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N = 152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t(151)$	$r$	$d$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

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1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mailto: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9층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장 후속 조치

####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이명현 (인천대학교)		김종훈 (성신여자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김철수 (조선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박원곤 (한동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신응철 (동아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우종학 (서울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박영주 (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염동한 (부산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손병덕 (충신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이호선 (국민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前 고려대학교 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김지원 (백석대학교)		



# 신앙과 학문

제25권 제4호 (통권 85호), 2020년 12월호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